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

황준헌의 외교활동과 동아시아정책론

-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양 린

황준헌의 외교활동과 동아시아정책론

-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장 인 성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양 린

양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_____ 전 재 성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정 환 _____ (인)

위 원 _____ 장 인 성 _____ (인)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청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외교관 겸 문장가인 황준헌(黃遵憲)을 통하여 그의 대일본관과 외교 사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 하에서 중국 유교지식인들이 국제정치관과 주변국 지위의 변화에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황준헌은 청나라 외교관으로서 일본과 류큐(琉球), 조선 사건 교섭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황준헌의 일본 인식은 변화하게 된다. 이 논문은 황준헌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1877년부터 1882년까지, 연구 자료를『류큐삼책』과『조선책략』에 드러난 황준헌의 인식에 주목한다. 또 정치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역사적 기술방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황준헌의 외교사상의 특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류큐와 조선은 명청시대부터 번속국으로서 중국에 조공하고 무역을 행하였으며, 중국-조선과 중국-류큐는 사대교린의 관계를 유지했다.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서양의 근대 국제법인 만국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질서로 변화되어 갔다. 류큐와 조선은 모두 서양 열강,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침해를 당했다. 이는 청나라의 조공 체제가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 근대의 하여장, 황준헌 등 외교관들은『류큐삼책』(琉球三策)과『조선책략』을 제안하여 대처하였다.『류큐삼책』은 각서 사건과 미국의 조정 실현을 추진하였다. 조선수신사(朝鮮修信史) 김홍집(金弘集)의 필담을 통해『조선책략』은 조선에 소개되어『조미통상조약』(朝美通商条約)의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황준헌은 일본에 비타협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황준헌은 이후 전통적인 유교 국제정치관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을 수용과 이용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을 얕잡아 보던 문화적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메이지 유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조선책략』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책략을 내세웠다. 황준헌은 러시아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고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흥아 兴亚"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내보였다. 당시 이홍장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들의 지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더 큰 목적은 일본이 중국과 서방 사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이홍장과 달리 황준헌은 아시아에 평화와 위신을 가져다주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지지했고 초기 범아시아주의 단체들 중 하나인 흥아회(興亞會)를 조직했다. 그의 아시아 부흥론은 아시아의 역사적 조우, 상통하는 문화, 현실적 운명, 인종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아시아 부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글로벌화가 강화되고 아시아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황준헌의 아시아관을 되살리는 것은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귀감이 크다. 특히 최근 동북아 국제정치의 형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으로서 '지정학(Geoplitics)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전적인 지정학의 시각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 전략, 19세기 동아시아에 있는 중일 경쟁과 오늘날의 미중 경쟁, 한중일 삼국협력 등을 설명하는 데 이 논문이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주요어: 류큐삼책, 조선책략, 하여장, 황준헌, 흥아론, 지정학, 동아시아정책론

학번 : 2017-20778

<목차>

I.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현황 및 평가 ····· 9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10

II. 지정학적 시각에서 본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환경

1. 청국의 '속국'문제: 류큐와 조선·····13
2. 일본의 대만 침공과 류큐문제·····15
3. 러시아의 남하 정책·····20

III. 황준헌과 일본

1. 황준헌의 생애·····24
2. 황준헌의 재일 외교 활동·····25

IV. 『류큐삼책』과 류큐교섭

1. 『류큐삼책』의 집필 배경과 내용·····31
2. 『류큐삼책』의 외교 구상·····38
1) 각서 사건·····39
2) 미국의 조정(調停)·····41

V. 『조선책략』과 조선 수신사 김홍집

1. 『조선책략』 집필 배경과 내용····· 45
2. 『조선책략』의 외교 구상·····52
1) 조선 수신사 김홍집과의 회담·····53

2)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54
3. 『주지조선외교의』와 청국의 대조정책……57

VI. 황준헌의 외교론

1. 대일관
1) 일본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 ……63
2) 만국공법의 수용과 적용……69
3) 경일(輕日)에서 사일(師日)로……71

2. 아시아 부흥론 …… 80
1) 이홍장과 황준헌의 아시아 인식 ……81
2) 아시아 부흥론의 주요 내용 ……84
3) 아시아 부흥론의 변모 ……87

VII. 황준헌과 청국의 외교정책

1) 류큐와 조선에 대한 인식 ……92
2) 지연책에서 적극 대응으로 ……94
3) 만국공법의 수용……98

VIII.결론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 ……115

그림 목차

<그림> 중국과 주변 세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개념도로 기준 시점은 청나라 시기이다.
출저: 浜下版清朝華夷秩序概念図……107

I. 서 론

1.문제의 제기

황준헌(黃遵憲)[1], 19세기 말 초대 주일청국공사(駐日淸國公使)로 임명된 하여장(何如璋)[2]의 참모(參贊)로 1877년 일본에 파견된 근대 중국 초기의 대표적 직업외교관이었고 조선의 대외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조선책략 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황준헌은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변화상, 근대적 개혁의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쌓은 견문을 바탕으로 1879년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를 저술하고, 1887년에는 『일본국지(日本國誌)』를 저술하여 1895년 간행하였다. 그는 이 두 저서를 통하여 일본의 역사와 문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의 성과를 인정하고 화이론적 일본관·세계관을 탈피하였다. 황준헌의 저술과 사상은 강유위·양계초 등 변법개혁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강유위 등이 주도하였던 변법운동에 참여하면서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개혁을 참고로 한 자신의 개혁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그 역시 활발한 개혁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그는 청국·일본·조선이 동일한 유교문화권이라는 인식하에 일본인이 제창한 아시아연대에 호응하였다. 이와 같은 아시아연대론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을 담은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저술하여,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에게 전하였다. 조선과 청국·일본·미국이 협력하여 러시아를 공동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88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 1890년 초 주영국공사 참찬(參贊)직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1891년에는 싱가폴 주재 총영사에 임명되어 외교관으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황준헌이 외교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류큐와 조선과의 교섭에서 그의 역할 때문이었다. 일본에 출사한 4여 년 동안 그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모략을 짜고, 조문을 작성하여, 주일공사의 하여장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 동안

1) 황준헌 (黃遵憲,1848-1905) 호는 인경려주인(人境廬主人), 자는 공도(公度)
2) 하여장(何如璋, 1838-1891) 호는 자아 (子峨) 중국 청나라 말기의 외교관이다.

주일공사 하여장은 청나라 총리아문, 북양대신 이홍장과 류큐와 조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 양은 10만 글자에 달했다. 양계초(梁啓超)에 따르면 주일공사 하여장의 명의로 이홍장이나 총리아문에 보낸 편지 중 70~80%는 참사관 황준헌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3] 황준헌은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 시에도 조약 초안을 작성하여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고 류큐 교섭과 조선의 장래, 그리고 청나라의 대응책을 두고 여러 차례 조언했다. 황준헌은 류큐와 조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류큐삼책』은 황준헌이 일본의 류큐 조공 저지 사건 이래의 절박한 형세에 직면하여 청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중·하'의 삼책[4]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의 중·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책략』[5]은 그가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수신사 김홍집(金弘集)에 의해 조선으로 가져가 조선의 통상 개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조선책략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 적지 않은 논란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런 점에서 조선의 개방에 끼친 조선책략의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6] 그리고 두 책략은 황준헌 개인의 외교사상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

3) 梁啟超.1959.『飮冰室詩話』. 人民文学出版社 P104

4) 현재의 책략은 변론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사를 파견하여 류큐에 문책하고, 그의 공사(貢使)를 징벌하여 일본에 필쟁의 뜻을 암시하면 일본 쪽에서 기세를 꺾는다. 이렇게 하면 일은 쉽게 성사되므로 이것은 상책이다. 이치에 따라 끝까지 쟁론하여 그를 저지한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류큐인과 반드시 구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그들이 일본인에게 저항하게 한다. 일본이 류큐를 공격하면 우리가 좌우익 부대로 나가 대항하고, 안팎에서 협공하면 일본을 패배시키기 마련이다. 일본이 패하면 화의(和議)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중책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말을 한다. 혹은 공법을 인용하여 각자의 사신을 요청하여 이치를 따지도록 한다. 일본인은 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줄 알고, 류큐인은 요행히 생존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하책이다. (溫廷敬.『茶陵三家文鈔』 卷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pp 1~5.)

5) 요는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 하고 미국과 수교 통상하도록 권유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상세는 제5장 제1절 참고

6) 조선책략의 조선 유입 이후의 과정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이헌주, 앞의 「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 의 도입」; 張靜, 吳振淸, 앞의 「黃遵憲《朝鮮策略》與近代朝鮮的開放」; 김시태, 앞의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한말정국에 끼친 영향」; 조항래, 앞의

청나라의 대외방침이 반영 되었으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두 저술은 모두 19세기 후반 같은 동아시아 역사적 맥락에서 작성되었고 발생 시간과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여구에서 단일 사건만 분석하여 생긴 연구결과에 대한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황준헌이 재일 동안의 외교사상을 더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황준헌은 류큐·조선 문제에 있어 일본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아시아 국제정세와 중국의 장기적 이익 차원에서 지적한 것은 전략적으로 원대한 견해였다. 류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사실상 중국을 향한 일본의 탐색 메시지였다. 일본이 새 정치를 추진하면서 급속히 강해지면서 영토 확장 의욕도 급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 측은 영국의 세 섬으로 자신에 비유하지만 자강(自强)을 도모하고 비록 자수(自守)라지만, 실제로는 약소(弱小)에서 점차 강대해져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포부다.”[7]

황준헌은 1880년 하여장과 '조선외교의(朝鮮外交議)'를 상의한 뒤 조선이 일본 도쿄에 파견한 수신사 김홍집을 만났다. ‘조선이 개방하여 생존을 도모한다.’라는 견해로 김홍집을 권유하여, 『조선책략』을 저술하였다. 전략적으로 조선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러시아를 방어하여 스스로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을 권고했다.[8] 류큐 사건을 겪어온 황준헌이 이시기 ”결일본“이라는 건의를 제안 하였으나 그의 대일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 질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 하에서 황준헌의 외교사상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황준헌의 대일본관과 외교사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치학적 접근방식을 위주로, 역사학적 접근방식을 부차적으로 사용한다. 본 글의 **핵심주장은 황준헌이 서세동점이라는 변화된 세력구도 속에서 중국의 속국인 류큐와 조선 사건을 도맡으면서 그간 지녔던 문화적인 자부심에 의거하여 얕잡아 보았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변하였는데, 이는 적대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조선책략을 통해본 防俄策과 聯美論 연구」 등이 있다.

7) 黃遵憲.『日本國志』[M].台北:文海出版社, 1974, pp.4-246.

8) 황준헌, 『조선책략』. 이 글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편집한 『수신사기록』.160~171쪽에도 나왔다.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대신 메이지 유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맹우로서의 일본과 연대하여 흥아(興亜) 즉 아시아 공통체로 부흥의 구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외교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지은 시문과 외교 문서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그의 외교 사상의 발전 변화는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그가 만들려는 동아시아 질서는 어떤 모습인지 등 문제들도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초기 황준헌은 류큐사건에 보듯이 일본에 비타협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황준헌은 이후 전통적인 유교 국제정치관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을 수용과 이용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을 얕잡아 보던 문화적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메이지 유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조선책략』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책략을 내세웠다. 황준헌은 러시아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고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흥아 兴亜"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내보였다. 당시 이홍장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들의 지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더 큰 목적은 일본이 중국과 서방 사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이홍장과 달리 황준헌은 아시아에 평화와 위신을 가져다주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지지했고 초기 범아시아주의 단체들 중 하나인 흥아회(興亞會)를 조직했다. 그의 아시아 부흥론은 아시아의 역사적 조우, 상통하는 문화, 현실적 운명, 인종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아시아 부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2. 연구현황 및 평가

황준헌은 초대 주일 청국 공사(駐日淸國公使)로 임명된 하여장의 참모(參贊)로서 1877년 일본에 파견된 근대 중국 초기 대표적 직업외교관이었다. 그는 청나라 말기의 시인일 뿐 아니라 직업외교가였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적 공헌보다는 외교적 사무

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병폐를 적시한『인경려시초(人境廬詩草)』때문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청나라 말기의 외교활동에 주력하였고 일생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작품(詩 書 雜著 序 檄 編 등)을 남겼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대량으로 축적되어 왔다. 더욱이 20세기 80년대에 들어서 대량의 황의 작품, 편지, 수필이 밝혀지면서 중국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심화되었다. 중화서국(中華書局) 에서 출판한『황준헌 전집(상·하)』은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국에서는『조선책략·대청흠사필담』의한글 번역버전,『日本國誌』,『人境廬詩草』, 『茶陵三家文鈔』 등 대량의 작업이 필요한 성과물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연구에는 역사·철학·정치적 시각뿐만 아니라 문학적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5년여 동안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시작(詩作)과 저술을 통해 그것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대표작인 『日本雜事詩』와 『日本國誌』는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를 비롯한 많은 개혁파 지도자들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통로를 통로를 제공하였고,그 결과 중국의 개혁운동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삼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중국학계에서는 황준헌과 그의 개혁사상 및 대일관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10] 또한 황준헌의『조선책략』이 조선의 근대적 개방을 가져오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면서 그의 개혁사상이 이웃나라(조선)의 개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연구도 있다. [11] 중국의 『류큐

---

9) 張朋園, 「黃遵憲的政治思想及其對梁啓超的影響」,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1期(1968. 8); 賈寶波 汪志遠, 「論黃遵憲的"中日聯盟"思想及其影響」, 中國民航學院學報 14-5(1996), pp.68-70; 朱憶天, 康有爲的改革思想與明治日本 , 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11, pp.39-42 등 참조. 日本雜事詩 와 日本國志 의 내용과 저술, 출판 과정에 대해서는 조병한, 「청말 중국의 변혁사조와 근대 일본 인식-黃遵憲과 康有爲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집(2007); 李長莉, 「黃遵憲《日本國志》延遲行世原因解析」, 中國社會科學 院近代史研究所 編, 黃遵憲研究新論 ,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p.49-61에 자세하다.

10)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編, 黃遵憲研究新論 , 社會科學文獻 出版社, 2007에 실린 여러 편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중국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鄭燕珍, 「1994-2004年黃遵憲研究論析」, 嘉應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 26-5(2008)도 참고할 만하다.

11) 魏明樞, 「論黃遵憲的《朝鮮策略》」,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7-2期

삼책』에 대한 연구로는 류큐가 조공국으로서의 상실과정을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다.[12)]

한국 학계에서도 그간에 황준헌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데, 대개는 조선책략을 전해 받은 김홍집과의 교유(交遊)나 조선책략의 내용 및 영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그의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남진이라고 하는 당시, 청조가 당면하고 있던 최대의 국방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선이 중국 및 일본과 연대하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 개방을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겉으로는 종래의 상국(上國) 내지 종주국의 태도를 어느 정도 불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청국의 대외적 위협을 해결하는 데에 조선을 이용하려는 중국 중심적(중화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13)] 그리고 근대 중·류(中琉), 일·류(日琉)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본학계에서 연구들은 주로 그의 일본에서의 외교활동, 일본인들과

(2004); 金美蘭, 試論黃遵憲的《朝鮮策略》, 延邊大學碩士論文(2005年); 張靜, 吳振清, 「黃遵憲 《朝鮮策略》與近代朝鮮的開放」,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2; 董洁,「《朝鮮策 略》的源起-是黃遵憲個人構思還是清政府的決策」, 韓國學論文集 2007-2 등 참조.

12) 정해린의『황준헌과 근대 중국』에서는 류큐 삼책은 황준헌이 하여장을 대신하여 총서(總署)에 상서하여 류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중하 3책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류큐에 관한 전문서는 미칭위(米慶餘)의『류큐 역사 연구』가 있는데 제7장 중·일은 류큐의 귀속 문제를 교섭하는 부분에서 '류큐삼책'을 언급하여, 이를 '필쟁(必爭)', '필구'(必救), '이치를 따지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왕운생(王雲生)의『60년 동안 중국과 일본: 1871년 동치(同治) 조약부터 1931년 9.18사변까지』는 대량의 진귀한 원시 자료로 류큐가 상실된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류큐삼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분석이 없다. 황증장(黃增章), 천즈슝(陳志雄)의 저서『걸출한 시인 외교가: 황준헌』에서도 '류큐삼책'을 황준헌의 명의로 귀속하고 있었다.

13) 김시태,「황준헌의 조선책략 이 한말정국에 끼친 영향」, 사총 8(1963); 조항래,「조선책략을 통해본 防俄策과 聯美論 연구」, 현상과 인식 6-3(1982); 허동현,「1880 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 양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집(2002); 이헌주,「제2 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 의 도입」, 한국사학보 25집(2006); 조병한, 앞의「청 말 중국의 변혁사조와 근대 일본 인식-黃遵憲과 康有爲를 중심으로」; 배항섭,「朝露수교(1884) 전후 조선인의 러시아관」, 역사학보 194집(2007); 이헌주,「1880년대 전 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연대론' 인식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호(2009); 김 수자,「黃遵憲의 朝鮮策略 에 나타난 朝鮮自强策과 '지역'의식」, 동양고전연구 40집 (2010) 등 참조.

의 교류, 조선책략이 19세기 말 중·일 관계 혹은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등에 집중되어 왔다. [14] 일본 학자의 연구에 있어서, 무라다 유우지로(村田雄二郎)는『잘 알려지지 않은 중일동맹 및 기타-청일관계사의 새로운 탐구』에서 초대 주일공사 하여장을 언급할 때 '류큐삼책' 및 류큐 분쟁 처리 중 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니시자토 키코(西里喜行)의『청말 중류일 관계사연구』하권에서도 단지 하여장의 류큐삼책을 언급했을 뿐 더 많은 것은 곽숭도(郭嵩燾)의 '자립ㅡ독립론'을 분석하였다. 사토 사부로(佐藤三郎)의『근대 중일 교섭사 연구』는 류큐삼책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류큐 번속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는 일본 측의 태도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학계에서는 아시아 연대론적 시각시각으로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15] 이러한 연구 경향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아시아 공동체 내지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색이 주목 받으면서, 아시아

---

14) 原田環, 「《朝鮮策略》をめくつて一李鴻章と何如璋の朝鮮政策」, 季刊 三千里 1979年 春; 姜範錫, 「黃遵憲 朝鮮策略 の行間を讀む-クレートケーム下のロシアの脅威を中心に」, 大阪市立大學法學雜誌 42-4號(1996); 平野健一郎, 「黃遵憲《朝鮮策略》異本校合-近 代初頭東アシア國際政治における三つの文化の交錯について」, 國際政治 (日本國際政治 學會), V. 129(2002-2); 姜東局, 「中國的世界秩序の變容と言說- 朝鮮策略 の「親中國」 をめくる議論を中心に」, 思想 944號(岩波書店, 2002年 12月); 薄培林, 「晚淸中國官僚 的中日韓聯合論-《朝鮮策略》中的"結日本"策-」, アシア文化交流硏究 (關西大學アシ゛ア文化交流硏究センタ)V. 5(2010) 등 참조.

15) 조선책략 을 동아시아 지역 연대론의 시각에서 다룬 국내 학계의 연구로는 이광린, 「 개화기 한국인의 아시아 연대론」, 동씨저,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 일조각, 1989; 홍철, 「근대 동북아시아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의 일방성과 다자성 고찰」, 대 한정치학회보 12-1집(2004); 김수자, 앞의 「黃遵憲의 조선책략에 나타난 조선자강책 과 '지역'의식」; 이헌주, 앞의 「1880년대 전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연대론' 인 식 연구」; 하정원, 「1882년 전후 동아시아론의 형성과 조선지식인의 반응」, 동방한 문학 51집(2012) 등이 있다. 지역 연대의 시각에서 조선책략 을 다룬 중국학계의 연구로는 賈寶波 汪志遠, 앞의 「論黃遵憲的"中日聯盟"思想及其影響」; 張永芳, 「略論黃 遵憲對中日文化同源性的關注」, 瀋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1期를 들 수 있 고 일본학계의 연구로는 薄培林, 앞의 「晚淸中國官僚的中日韓聯合論-《朝鮮策略》中的 "結日本"策-」; 張偉雄, 「明治初年日中間の文化交流と外交交涉-初代駐日公使何如璋を中心に」,札幌大學總合論叢7號(1999) 등이 있다.

주의 내지는 아시아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 된 것과[16]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황준헌이 조선책략에서 주장했던 중국, 한국, 일본 연대 주장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 황준헌에 관한 기존연구는[17] 주로 그의 시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문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 또는 외교문서로써의 '류큐삼책'과 '조선 책략'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과 정치학적인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기존연구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황준헌의 일본관에 있어서 기존 연구의 시기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즉 단순히 조선 문제만 집중하거나 류큐사건만 통해 개별적으로 황준헌의 정치사상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류큐문제와 조선문제를 제기하였던 두 개 시기 결합하여 황준헌의 활동과 사상을 통해서 그게 류큐문제가 조선문제까지 연결되는 시도로, 그에 연구에 대한 시기적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정치학적 접근방식이 결핍하다. 황준헌에 대한 연구는 지성사에 대한 연구인만큼, 그 접근방식에는 철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정치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그의 정치와 관련된 의거 혹은 상소와 같은 행위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상을 오직 황준헌이라는 주체에만 제한되어 연구함으로써, 그 외의 인물과 당시 시대적 배경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이므로, 자칫 '몰역사'라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는 대부분 기존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황준헌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하여 역사적 기술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배경을 최대한 환원함으로써 당대의 기타 중국 외교 관료의 비교를 통해 황준헌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

16) 백영서,「총론: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동씨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창 비, 2005;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 동북아역사재단, 2009 등 참조.

17) 기존 연구현황에서는 본 글의 연구주제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 문학적 시각을 제외하여 정리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황준헌의 대일관과 외교사상이다. 본 연구는 황준헌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보다는 그의 외교사상의 전개 궤적을 추적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황준헌의 국제정치관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주일 참사관을 맡아 본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참여하기 시작한 1877년부터 일본을 떠나 미국에서 취직하게 된 1882까지이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황준헌이 외교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류큐와 조선과의 교섭에서 그의 역할 때문이었다. 일본에 출사한 4여 년 동안 그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략을 짜고 조문을 작성하여, 주일공사 하여장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로 되었다. 그 동안 주일공사 하여장은 청나라 총리아문, 북양대신 이홍장과 류큐와 조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편지를 쌓아 10만 글자나 되었다. 양계초(梁啓超)에 따르면 주일공사 하여장의 명의로 이홍장이나 총리아문에 보낸 편지 중 70~80%는 참사관 황준헌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18] 황준헌은 류큐 교섭과 조선의 미래, 그리고 청나라의 대응책에 대하여 원대한 조언을 많이 하였다. 비록 이홍장은 만청 정부의 타협적 입장에 얽매여 이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막료들의 조언을 잘 참작했을 것이다. 황준헌은 류큐와 조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방법은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지만 주로 정치학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며, 문헌 분석의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1 차자료를 독해하고 사용함으로써 검증할 것이고 부차적으로 2 차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전문학자인 진관타오의 관점에 따르면 역사 연구의 진실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원자료를 다룰 때 반드시 사람들이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린 관념을 복구해야 한다. 즉 연구자가 오늘날의 관념과 가치체제로 역사 사건을 상상하는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당시 사건의 발생을 지배한 관념을 파악해야 한다. [19]

---

18) 梁啟超.1959.『飮冰室詩話』. 人民文学出版社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의 가치체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일본이 대만·류큐·조선에 침략과 러시아 남하 등의 19세기 동아시아 중대한 역사 사건을 지배한 배후의 주요 관념을 규정하는 데 성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구의 폭넓은 연구시기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류큐삼책』과 『조선책략』 전편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작품만 분석하여[20] 생긴 연구결과에 대한 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에서는 황준헌의 두 책략의 제시 과정 및 책략의 추진 과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진행하는 고증과 논술이 결여되어 있으며, 책략을 연결시킨 분석은 더욱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책략이 청나라 정부 대외정책에 끼친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 토론이 결핍되어 있다.

본문은 연계된 관점에서 양자를 보고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통해 청정부가 류큐와 조선 속지의 위기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거시적으로 보여주고, 다시 이 둘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홍장과 황준헌이류큐와 조선 위기를 처리하는 데 나타난 다른 점을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정부가 류큐와 조선 두 조공국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나타난 차별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별성의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차별성이 당시 청정부의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흔히 볼 수 있는 개별 사상가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처럼 주로 시계열적 해석방법을 취함으로써 사상적 추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시계열적 해석방법은 텍스트에 지나치게 의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21] 뿐만아니라 이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

---

19) 『관념사란 무엇인가-1 이론과 방법』,pp.268-271

20) 예를 들어 류큐가를 비롯한 황준헌의 외교 경력에 의해 창작한 시들의 내용 자체에는 저자의 생각과 실제로 다른 의도도 담겨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뒤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단일 자료에 대한 분석은 사상 도출의 오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21) 장인성,『장소의 국제정치사상-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 서울대하교출판부, 2002). p.49. 장인성 교수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대상에 대한 해석이 텍스트에만 의건해서 이루어진다면 작자(사상가)가 텍스트를 서술하는데 있어-이해의 진위는 어찌되었든-고려했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고 생각되는 콘텍스트를 배제하기 마련이다. 콘텍스트를 배제한 택스트 분석, 특히 텍스터의 시계열적 분석은 지(知)의 전기(傳記)적 나열이 되기 일쑤이며, 따라

의 하나는 100 여년 전에 살았던 황준헌이 남겨 준 외교문서나 시들이 문언문(文言文, 고대중국어)이기 때문에 고대중국어에서 현대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용어나 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언어와 문체를 서로 번역하는 작업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의 차이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주제 특성상 황준헌의 언어사용 에도 주목한다.[22] 본 글에서는『류큐삼책』과『조선책략』을 1차적 연구 자료로 사용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본문 중 에서 언급한 연도는 모두 음력표기법이다.[23]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눈다.

제2장에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을 지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 중국 외부 구성이 된 류큐와 조선은 일본의 침략과 러시아의 남하 위협을 받고 있고 동아시아의 전통질서가 위태로워진다.

제3장에서는 황준헌의 생애와 재일 외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1877년부터 1881년까지의 류큐 사건 시기를 알아본다. 당시 일본은 류큐 '표류민'(漂流民) 사건을 계기로 대만을 침범하였고, 중국에 대한 류큐의 조공을 막았으며 류큐를 합병시킴으로써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해 황준헌은『류큐삼책』을 통해 청나라 정부에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서 사건'과 '미국 조정'이라는 외교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제5장에서는 1880년 황준헌과 김홍집의 회담과『조선책략』의 제기부터 1882년 『조미통상조약』의 체결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조선책략』을 세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책략을 내세웠는데 이는 조미통상조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황준헌은 러시아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고 아시아의 연대를 주장하였다. 또한『주지조선외교의』에 중국과 조공국간의 관계 변화의 사고가 담는다.

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2) 예를 들어 황준헌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인경려시초』(人境廬詩草) 비롯한 그의 글에서 종종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서양 어휘에서 채택한 새로운 용어였는데 황준헌이 점점 중국 중심 세계의 논리에서 벗어나 아시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그려낼 수 있다.

23) 많은 기존연구에서는 시간을 서술함에 있어 음력과 양력을 구분하지 않아 사건과 사상을 도출함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6장에서는 황준헌의 외교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황준헌의 대일본관의 변화가 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본에 비타협 입장을 고수한다. 둘째, 사대교린의 전통적인 유교 국제정치관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을 수용과 이용을 시작하였다. 셋째, 그간 일본을 얕잡아 보던 문화적인 자부심에서 벗어나 메이지 유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에 글에서 종종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일본에서 “흥아 興亞”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

제7장은 황준헌이 작성한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이 청나라정부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황준헌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계층이 『만국공법』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에 시행하던 속국에 대한 지연법에서 조공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적극 대응으로 전환되었다.

II. 지정학적 시각에서 본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

1. 청국의 '속국' 문제: 류큐와 조선

류큐와 조선은 명청시대부터 줄곧 중국과 왕래가 가장 밀접한 조공국이었다. 둘 다 번속국으로서 중국에 조공하고 무역을 행하였으며, 중국-조선과 중국-류큐는 사대교린의 관계를 유지했다.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어 갔다. 조공과 책봉을 매개로 작동하였던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서양의 근대 국제법인 만국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질서로 변화되어 갔다. 즉 만국공법이 강제적 수용과 적용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서양세계에 연결시키고 편입시킨다.[24] 류큐와 조선은 모두 서양 열강,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침해를 당했다. 이는 청나라의 조공 체제가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의미했다.

류큐 또는 류큐 군도로 불리고 지리적 위치는 중국의 동쪽 해역에 있는데 동북 서남향으로 오스미군도, 투카라군도, 엄미군도, 오키나와군도, 미야코군도, 야에야마군도 등이 포함되며, 아시아 동부 연해 군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부이다. 알류샨제도, 쿠릴열도, 일본군도, 류큐제도, 대만군도, 필리핀군도, 인도네시아군도와 함께 이른바 서태평양 제1열도선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 내해 장악과 태평양 오지의 진입에 매우 중요하며 그 군사적 전략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류큐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데, 그 동쪽은 바로 중국 대륙의 연해 지역으로 북쪽으로 일본, 조선 심지어 러시아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남쪽으로 대만과 인접해 동남아, 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갈 수 있어 해상 교통이 편리하고 무역 왕래가 빈번하며, 지리적 위치가 매우 우수하다. 조선반도는 아시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쪽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남쪽으로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보고 있다. 한반도가 중국

24) 장인성,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근대한국의 경험과 관점", 『정치사상연구』 9, 2003, p.123

동해와 인접해 있고, 멀리 태평양과 접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심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동아시아 대륙과 해양 간의 교류의 교량으로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접해 있다. 청나라에 있어서, 조선은 청나라의 용흥의 땅에 인접해 있으며, 청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국이었다.

1609년, 일본 사쓰마 번 수령이었던 시마즈 다다쓰네가 가바야마 히사타카를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류큐를 쳐들어갔고, 일본군은 수도인 슈리로 쳐들어가 류큐 국왕을 포로로 잡고 류큐의 무역을 통제하며 류큐에게 일본에 조공을 강요하였다. 또 1875년(청광서 원년) 일본 정부는 류큐가 청나라에 파견한 조공 사신을 강제로 저지하고, 류큐에게 일본 메이지 연호와 일본 국체를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1879년, "일본은 류큐에 들어가 류큐를 멸망시켜 류큐를 오키나와 현으로 바꾸고 류큐왕과 세자를 포로로 잡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총리아문은 왜 우리 속국을 침해하느냐고 일본에 물었으나 일본인들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25] 역사상의 조선은 역시 일본의 침범을 받았으며, 1588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에 침입한 전쟁을 일으켜 조선 경성으로 쳐들어갔다. 1868년에 일본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여 근대 자본주의 국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매진하였으나, 당시의 조선은 여전히 '위정척사' 사상이 뿌리 깊은 국가로서 조일 교섭에 진전이 없었다. 조선의 문을 열고 전쟁의 실마리를 일으키기 위해 일본은 나아가 협상의 길을 열어 조선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1875년 9월 일본 운양함이 강화해협에 도착하면서 충돌이 일어나 '강화도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조선에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일제는 적극적으로 조선 일에 간섭하였다.

류큐와 조선은 줄곧 일본의 침범을 받았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서방 각국들은 다 류큐와 조선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탐내고 있었다. 중국에 있어서 류큐를 잃으면 중국 연해 지역은 반드시 침략을 받고, 조선을 상실하면, 중국 동북의 문호가 활짝 열릴 것이었다. 만청 외교 사신들은 류큐와 조선 속국의 위기에 직면하여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을 제시하여 실행함으로써 갈수록 잃어가는 조공국을 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의 대다수 외교 대신들은 류큐의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인식하지

25) 『清史稿』 卷526 『屬國志』, 中華書局, 1977.

못하고, 『류큐삼책』에 나오는 적극적인 대일 전략을 확고히 실행하지 않아 류큐를 일본의 손에 잃었으나 류큐에 비해 조선의 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제시하듯이 조선을 근대 열강의 조약 관계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선을 열강 앞에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훗날 조선을 잃게 될 화를 자초하였다.

2. 일본의 대만 침공과 류큐문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국내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을 진흥시켰고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놀라웠다.1866~1873년 일본 산업생산의 평균성장률은 32.2%였지만 영국(1855~1873)은 3.3%, 미국(1861~1873)은 5%, 독일(1861~1873)은 3.8%였으며 일본은 1874~1890년 산업생산의 평균성장률은 12.1%였지만, 영국(1.7%), 미국(5.2%), 프랑스(1870~1890)는 2.1%, 독일은 3.5%이었다.[26] 군사적으로, 메이지 정부는 더욱 전력을 다해 부국강병을 하였다. “메이지 6년(1873)부터, 정부는 재정 예산을 공개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1873년 제6기 재정결산에서 군비가 10709330엔으로 재정지출의 17.1%를 차지했고, 1883년 메이지 16년의 재정결산에서는 19046718엔으로 재정지출의 23.5%를 차지해 10년간 군비가 77.9% 증가하였다.[27] 일본의 경제와 군사력의 증가는 반드시 대외 침략을 증대시킬 것이며, 전쟁을 통해 해외로 나가 물질적 부를 축적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16세기에 류큐를 점령하고 대만을 침공하려는 기도가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대중 정보 수집에 적극 나섰다. 1871년 10월, 대만에서 모란사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만에 출병하려고 하여 대만 및 중국 복건(福建) 연안에 대한 정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대만과 보건 각지에 도착하여 현지의 지리 환경과 군사 상황을 조사하였고, 또한 정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872년 일본 육군성 소

26) 樊亢.『主要資本主義國家經濟簡史』, 人民出版社, 1973, pp.6.
27) 明治財政史編纂会.『明治財政史』第3巻. 明治財政史発行所, 1937, pp.167~733.

좌 이케노우에 시로(池上四郎) 소좌, 육군 대위 다케시 마사간(武市正幹) , 외무성 통역 사카키 츄헤이(彭城中平) 등 3명을 중국 만주 지역으로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28] 일본은 모란사 사건을 핑계로 대만 출병을 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국가가 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무력 용병으로,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였다.

일본 대만 침공의 구실은 류큐 표류 사건 즉 대만 모란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71년 10월, 류큐인은 두 배를 몰고 나하 중산부 (那覇中山府) 에 공납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해상에서 강풍을 만나 대만의 봉산(鳳山) 지역으로 표류하여 모란사의 야만인 지계에 잘못 진입하여 현지인들에 의해 살해 되었다. 1874년 1월, 일본 정부의 이와쿠라 도모미 등은 '군대를 일으켜 야만인들에게 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29] 이후 이와쿠라 도모미는『대만번지리요략』(臺灣番地理要略)을 제기하여 대만 원주 지역을 주인 없는 곳으로 변명하고 이를 핑계로 출병을 하려 하였다. 5월에 일본군이 대만을 침입하여 현지 주민을 살해하였다. 일본군의 대만 침공 행동에 대해 청나라는 즉각 철군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철군을 거부하였고, 7월에 중-일 간에 담판을 벌인 후, 쌍방은『북경 특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국이 이번에 한 일은 원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거였는데, 중국은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2. 전에 살해당한 난민의 가족들에게는 중국이 위로금 은량을 주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이곳에 도로를 정비하고 집을 짓는 등 모든 것을 중국이 자신의 용도로 쓰기를 원하면 먼저 합의하여 은량을 보충해야 한다.

3. 모든 이 일에 관한 양국이 주고받은 공문서를 서로 철회하여 영원히 무효로 하기로 한다.

4. 항해객이 더 이상 흉해를 입지 않도록 중국은 스스로 야만인을 잘 단속해야 한다."[30]

---

28) 池上四郎.『滿洲視察復命書』, 黑岩會本部, 1909, pp. 23.
29) 동아동문회:『대화회의록』, 상무인서관, 중국어번역본, 38쪽.
30) 孟曉旭,『漂流事件和清台 , 中日關係』,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pp 203.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원래 구상한 목적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을 체결하여 배상함으로써 중일 간의 무사를 보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1874년 일본은 대만에 군대를 보냈지만 일본의 대만 출병 소식을 들은 이홍장은 "일본 내란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그 역량이 아직 먼 곳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무력을 동원해도 먼저 조선을 공격할 텐데. 에토 신페이(江藤新平)가 조선을 토벌하려던 것도 허락치 않아 난리였는데, 어찌 약한 조선을 버리고 먼저 횡포하고 교화가 덜 되는 야만인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31]"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류큐 문제 시기에, 이홍장은 일본 측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 청정부는 대만 침공 사건이 중국 측의 한계를 알아내기 위해 속을 떠보는 것이었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중·일 이후 여러 차례 교전하면서 청정부는 더 이상 우위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 측의 타협적인 태도를 보고 일본인의 팽창된 야심을 키웠고, 이후 류큐 사건, 강화도 사건, 청일전쟁 등 계속된 사건과 전쟁이 있었다. 일본이 대만에 출병한 후의 중·일 담판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는 협상 관료에게 내린 협상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류큐의 두 나라 속국의 연원을 끊고 조선의 관문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조정의 초지이고, 당직자의 밀책이다."[32] 이를 보면 류큐를 독점한 후 다시 조선의 관문을 열겠다는 일본의 목적은 매우 명확하다. 이홍장은 일본이 대만을 침탈한 후에도 일본의 야망을 보고 일본이 규제개혁을 통해 자강한 이후에 "그 기세가 날로 세지고 그 뜻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감히 동아시아를 군림하고 중국을 경시하며, 대만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비록 서양 국가는 강하지만 그래도 7만 리 밖에 있고, 일본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어 수시로 우리의 허실을 바라보고 중국의 영원한 대환이다. 지금은 억지로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 깊은 사려로 우리 물산 인민의 풍성함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의 병사와 배로는 이길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고, 장래에 잠깐의 빈틈이 있어도 계속 교활하게 우리를 침범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33] 이홍장은 일본과 연합하여 서양

31) 고정룡(顧廷龍)·다이일(戴逸) 편집. 『이홍장전집』 제31권, 안휘교육출판사, 2008년, pp. 23.
32) 미여경(米余慶), 『일본 근현대 외교사』, 세계지식출판사, 2010년, 25쪽.

을 제압하는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잠재적 침략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졌다. 일본의 이런 횡포한 전략 행동에 청나라의 외교 사신들은 오직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해야만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후에 류큐삼책과 조선책략을 성립시켰다. 황준헌의 『류큐삼책』 내용은 바로 이홍장이 비교적 주동적인 행동을 취하여 청나라 정부가 대국의 지위와 이익을 한 걸음씩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만, 이후에 러시아 세력은 남하를 더욱 가속화 하였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유착을 방지하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결일본'에 기대를 걸었다.

청정부가 류큐 문제의 분쟁에서 황준헌이 류큐 분쟁을 해결하는 상·중·하의 삼책을 제시한 것은 일본의 등등한 기세에 직면하여 취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책으로, 일본의 류큐 횡령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만약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향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정부는 『류큐삼책』의 적극적인 방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측이 류큐 사건에서 끊임없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류큐 문제가 방치되어, 결국 류큐라는 중요한 속국을 잃게 되었고, 일본 측에서는 청정부의 타협의 일면을 보고, 일본의 확장을 가속화했다. 청정부는 류큐 문제가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하나는 류큐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일본 메이지 정부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는 방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구미 열강을 본떠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국가를 침략하려는 일본의 시도였다. 이는 근대 중·일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후에야 조선 출병, 갑오전쟁 등의 일련의 침략 행위가 있었다. 둘째, 류큐의 병합을 시작으로 중국의 조공 체계는 끊임없이 붕괴되어 갔으며, 일본은 성공적으로 대륙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 야심은 나날이 커져 전 아시아 침략의 길로 들어섰다.

『조선책략』은 "결일본"을 제기하였는데, 조선의 의혹(疑惑) 자를 위한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은 평수길 이래로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 변방을 흔들고 성곽을 괴롭히며 우리 인민을 해치고 명나라 군대의 공수에 의지하여 철수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서양

33) 고정룡(顧廷龍)·다이일(戴逸) 편집. 『이홍장전집』 제6권, 안휘교육출판사, 2008년, 170쪽.

의 변법을 모방하였는데,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등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 강화의 일전으로 인해 일본이 강대해졌는데, 그의 목적은 도발하는 데 있었다……[34]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황준헌 등은 일본의 국정과 전쟁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이전에 비해 매우 큰 진보가 있었다. 또한 일본이 감히 조선을 공격하려 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하물며 중국의 도움이 있어 서로 부조할 수 있다", 둘째는 "하물며 오늘날의 일본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텅 비어 있고 여야의 괴리가 심하여 국고가 비어 있다." 따라서 일본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결일본'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나라가 대만과 류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무기력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와 군사력이 증강되어 조선을 침탈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일본은 조선에 친일파 인사들을 양성하여, 친일파의 힘을 빌려 조선이 청나라 정부로부터 벗어날 것을 도모하였다. 1884년 12월 조선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하여 개화당을 지지하는 일본군을 격퇴하고 정변을 진압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있는 실패를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불 전쟁에 즈음하여, 청정부와 담판을 벌여, 조선에서 더욱 큰 권력을 얻으려 하였다. 1885년 4월, 청정부와 일본은 천진에서 『천진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서 "장래 조선에 변란 등 중대 사례가 있을 경우, 중·일 양국 혹은 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려면 먼저 서로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 사정이 평정되는 대로 즉시 철회하고 다시는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5]이것은 바로 일본이 청나라와 군대를 파견할 동등한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훗날 청일전쟁에 복병을 남겼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청정부의 대조정책의 큰 외교적 실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양계초(梁啟超)의 말처럼 "톈진조약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일본과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은 조선을 우리 속국이라 할 수 있듯이, 일본도 조선을 그들 속국이라 할 수 있

34)(일) 伊原澤周 『근近代朝鮮的开港 : 以中美日三国关系为中心』,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8, pp 308.

35) 왕철아(王鐵崖), 중외 구약장 회편(1권), 삼련서점, 1959년, pp. 465.

다."[36]

두 가지 책략이 추진하는 이면에 일본의 실력과 야망의 부단한 확대는 중요한 요소였다. 일본의 성장과 강대함은 비로소 두 가지 책략의 영향하에 행해진 외교 활동이 있었다. 이런 외교 업무들은 모두 일본이 강대해진 이후의 끊임없는 침략에 직면한 것이며, 외교적으로 동아시아 조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3. 러시아의 남하 정책

1880년 8월 대청흠사 대사 하여장, 부사 장사계(張斯桂)과 찬사관 황준헌이 일본을 방문한 조선수신사 김홍집을 답방하면서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하여장: 얼마 전에 러시아인들은 귀국의 북쪽에 있는 두만강 하구 일대에서, 확장 배치를 했는데, 도대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국민이 그쪽으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귀하께서 그 일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 알려 주십시오.

김홍집: 러시아는 국토가 접경이 어려워서 여태까지 왕래한 적이 없으며, 경영 배치를 했다는 일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북쪽 백성이 저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가끔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여장: 최근 서양 각국에는 세력 균형을 이루는 추세가 있는데, 만약 한 나라가 강대국과 이웃하고 있어 후환이 있을 경우 각 나라와 연계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역시 전에 우리나라가 부득이하게 채택한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홍집: 균세 두 글자는 근래부터 공법에서 보았지만, 본국은 옛 규칙을 엄수하여 외국을 홍수나 맹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자연히 이교를 척결하는 것이 매우 엄하다. 가르침이 이와 같으면 마땅히 귀국해서 조

36) 좌순생(左舜生), 『중국 근세 외교사』, 심운용 주필 『근대중국사료총간』 속편 99집, 문해출판사, 1983년, pp. 28~29.

정에 고해야 한다."[37]

황준헌은 조선에 항구를 많이 개방하고 외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또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열강 각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은 서양 열국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의 영향은 『류큐삼책』이나 『조선책략』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세기 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위기감은 구체적으로는 조선이 침략의 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청나라에서도 동시 에 제기된 위기감이었다.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정리되면 반드시 조선이 침략을 당하고 일본과 중국 또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도 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만약 청국이 조선을 완전히 종속화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침략보다 위험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일.청 양국과 조선을 포함하는 3개국 동맹이 주장되었다. [38]

『류큐삼책』에서 제시한 '후삼책' 중의 하나는 "토지 변경이나 금화로 배상"인데 이는 역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황준헌은 『총서총판과 류큐사건논의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사할린 섬을 서로 교역하는 일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일본은 약하고, 러시아는 강하지만 화대주는 러시아에 귀속되어도 일본은 그래도 그 군도를 자기에 귀속시킬 수 있었다. 일본인들이 감히 그것을 요구하고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힘으로 되찾지는 않았다. 일본은 러시아에 한 듯이 우리는 일본에 그렇게 해도 일본은 절대로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서양 각국들의 용병은 모두 이해타산을 한 후에야 행동하고 일언반구나 한 가

---

37) 『하여장, 황준헌 등은 조선 김홍집과의 필담(1880년)』, 이경((李慶) 편집 주해 : 『동영유묵(東營遺墨)-근대 중일 문화교류 희견 사료 집주』, 상해인민출판사 1999년판, 16쪽.

38) 俄旣不能西略, 乃幡然變計, 欲肆其東封, 十餘年來, 得樺太洲於日本, 得黑龍江之東於中國, 又屯戍圖們江口, 據高屋建 之勢, 其經之營之, 不遺餘力者, 欲得志於 亞細亞耳. 朝鮮一土, 實居亞細亞要衝, 爲形勝之所必爭, 朝鮮危則中東之勢日, 俄 欲略地, 必自朝鮮始矣. 嗟夫, 俄爲遞狼秦, 力征經營, 三百餘年, 其始在歐羅巴, 繼在中亞細亞, 至於今日, 更在東亞細亞, 而朝鮮適承其弊, 然則策朝鮮今日之急 務, 莫急於防俄, 防俄之策, 如之何, 曰親中國.結日本.聯美國, 以圖自强而己. (黃遵憲, 『朝鮮策略』)

지 일도 갑자기 도발하는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39]

또 말하길: '류큐 한 섬은 조선처럼 지리적으로 중국을 호위하고 외국을 바깥으로 막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만약 러시아인들이 저기를 탐내면 보호가 매우 어려우니, 미리 계획하여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조공을 막는 일은 비록 중토가 약하지만, 아직 일본보다 낫다. 일본은 비록 광망하지만 아직 감히 변방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류큐가 만약에 멸망하면 후환이 깊어질 것이다. 쟁취하지 않으면 변경에 변란이 생길 것이다."[40] 황준헌은 류큐가 비록 하나의 섬이지만 청나라의 울타리로서의 조선처럼 중요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위협을 고려할 때 만약 조공을 막는 일에 대해 "의리와 이치로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변경의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세기 중엽 러시아는 남쪽으로 확장하려 했으나 크림반도 실패를 계기로 동아시아로 확장 방향을 틀었다. 1862년부터 산서(陝西)·감숙(甘肅)지역에서 회족 반란이 일어나 신강(新疆)지역으로 파급되었다. 1864년 말에 호한국(浩罕國) 야쿱 벡은 신강 반란을 틈타 군대를 이끌고 신강에 침입하여 할거 정권을 세웠다. 1871년, 러시아는 기회를 틈타 출병하여 이리 지역을 점령하고, 야쿱 벡과 동맹 조약을 맺었다. 이 때 청나라는 중일 류큐 문제의 담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제정 러시아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일 관계의 진일보 악화를 애써 피하면서, 쌍방의 담판이 '분도 계약'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마침 이때 중국이 이리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니, 청나라는 류큐 문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분도 계약' 조약을 거부하였고, 이어서 류큐 문제는 흐지부지되었다.

『조선책략』의 핵심 내용은 바로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남하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된 문건[41]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의 주요한 외교정책이었는데 이러한 관점이 황준헌의 문건 에 충실하게

39)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40)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41) 俄羅斯(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국과 親狎하고, 일본과 結緣하며, 미국과 連繫하여 自强을 도모해야한다.(防俄之策, 如之何, 曰親中國. 結日本.聯美國, 以圖自强而已. (朝鮮策略))

반영된 것이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로 러시아는 끊임없이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침식해 왔으며, 1879년에 러시아가 20척의 군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시켜 러시아에 대한 청정부의 공포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홍장 등은 러시아 방어 책략을 제정하려 하였는데 서방 국가 세력을 끌어들여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러시아가 조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책략』의 첫머리에 "지구 위에 막대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러시아다. 그 폭이 넓으니 세 개의 대륙을 횡단하고 육군 정병 백여만, 해군 거함 20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쪽에 있어 날씨가 춥고 땅도 척박하기 때문에 교활하게 그 강토를 확장하여 국가 발전에 이롭게 하려고 한다……한반도는 아시아의 요충지에 있어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서 반드시 쟁탈해야 한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가 더 위험할 것이다. 러시아가 아시아의 땅을 뺏으려면 반드시 조선부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는 사납고 탐욕적인 호랑이와 늑대와 같이 300년 동안 확장에 힘썼다. 그 시작은 유럽이고 중앙아시아 이어 오늘날까지 동아시아에 이르렀는데 조선이 그 병폐를 이어받았다. 지금 조선의 급선무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방어책은 어떠한가? 바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하면서 자강을 도모하는 것이다."[42] 황준헌 등은 우선 러시아의 강대함을 소개하며 조선이 직면한 정세를 설명했고, 조선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어 방어를 중심으로 한 책략을 제시하였다.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는 극동지역으로 확장하고 중·조·일 삼국이 모두 제정 러시아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었다 "중국은 땅이 넓고 물품이 풍부하여 아시아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서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자는 중국뿐이다." 또한 중조 양국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선에 일이 생기면 중국은 반드시 천하의 급료를 조달하고, 천하의 힘을 다하여 조선을 지켜 왔다."[43] 이를 통해 조선이 러시아를 방어하는 결심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

42)(일)伊原澤周,2008,306~307쪽.
43) 陳錚. 2005, pp.251.

III. 황준헌과 일본

1. 황준헌의 생애

황준헌(黃遵憲), 중국 광동성(廣東省) 가응주(嘉應州, 지금의 매현梅縣) 사람으로 자는 공도(公度) , 호는 인경려주인(人境盧主人) 관일도인(觀日道人) , 동해공(東海公)·법시상임재주인(法時尚任齊主人) 수창안홍관주인(水蒼雁紅馆主人)이다. 황준헌의 일가는 남송(南宋) 때부터 이어진 이주민이었지만 향시(鄕試) 합격자 다수를 배출한 지방 유력 집안이었다. 1876년(29세)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황준현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관료와 실용적이지 않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이 결국 개혁 성향의 외교관이 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시에 합격한 바로 다음해에 일본공사 하여장의 참찬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후 중국정부 인사들과의 의견 절충과 일본 내에서의 정보수집에 열중하였으며 이때 여러가지 민감한 현안의 협상과정에서 부국강병의 목표를 세웠다. 이는 필담이나 저서『조선책략』등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내우외환으로 가득했던 1848년에 태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1905년에 세상을 떠났다. 황준헌 57년의 생애 중, 앞의 30년 동안 과거 공명을 위해 노력하였고 후의 20년 동안 청나라 말엽의 외교활동에 주력하였다.

황준헌이 외교의 길을 들어선 것은 지향과도 관계가 있지만 부친뻘들이 이끌어 준 것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부친이 북경에서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북경과 연태(煙臺)에서 하여장, 장인환(張蔭桓) 등 아버지뻘인 광동성 출신의 고향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훗날 청나라 외교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특히 연태에서 직예총독(直隸總督)이자 북양대신(北洋大臣)인 이홍장을 만났는데, 이홍장은 황준헌은 '패재(覇才)'[44]라 칭하며 재능을 높이 샀다.[45]

황준헌은 1877년 초대 출사 일본 대신인 하여장의 상주를 거쳐

---

44) 재능 있고 위압적 인 임의. 독점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45) 황준헌 (黃遵憲) 은『이숙의후만시(李肅毅侯挽詩)』에서 "광서병자년에 나를 처음 본 이홍장은 사신 정옥헌에게 나를 패재라고 칭송했다. (光緖丙子 , 餘初謁公 , 公語鄭玉軒星使 , 許以霸才) "라고 스스로 주석하였다. 1901. PP185

하여장과 부사 장로생(張魯生)을 따라 참사관으로 일본을 출사하면서 그때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며 두각을 나타냈다.[46] 황준헌은 1882년 미국으로 부임해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를 맡았고, 1886년 퇴임해 귀국하였다. 1890년 2월에는 그는 2품 관직으로 영국 주재 2등 참사관에 임명되어 설복성(薛福成)을 따라 영국으로 갔다. 황준헌은 1891년 10월 화교 사무가 번잡한 주싱가포르 총영사로 자리를 옮겼다. 1894년 여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청정부는 일본에 대한 자문을 위해 황준헌을 긴급 소환하였다. 1895년 봄, 양강총독(兩江總督) 장지동(張之洞)은 황준헌을 강녕양무국(江寧洋務局)의 총재(總辦)로 위촉하여, 프랑스와의 '5성 미제 교회사건 단결(斷結五省未結教案)' 교섭을 총괄하였다. 1896년 봄에는 다시 대일(對日) 전권 담판 대표로 임명되어 소주(蘇州) 개항과 그 치외법권의 담판에 종사하였다. 청정부는 황준헌의 외교적 재주를 감안해 1896년 10월과 11월 황준헌을 주영국 공사와 주독일 공사를 차례로 맡겼으나 영국과 독일의 반대로 부임하지 못하였다.[47] 황준헌은 1897년 11월 옹동양(翁同龢)의 추천으로 호남장보염법도(湖南長寶鹽法道)에 임명되었다. 곧 호남안찰사(湖南按察使)로 부임하여 무술유신운동(戊戌維新運動)에 투신하였다. 1898년 7월 황준헌의 『일본국지(日本國志)』를 본 광서황제는 그를 높이 평가하여 '삼품경당(三品京堂)'으로 일본을 출사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서태후가 무술정변을 일으켜 황준헌은 일본에 부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황준헌은 정계를 은퇴하고 직업외교가 생활을 접었다.

황준헌은 외교관 시절에 화교의 처우 개선과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본인 스스로는 선진화한 여러 나라의 문물을 통해 견문을 넓혀 자국의 문학과 사회 개혁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및 그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론하였다. 황준헌이 외교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류큐와 조선과의 교섭에서 그의 역할 때문이었다. 일본에 출사한 4여 년 동안 그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모략을 짜고, 조문을 작성하여, 주일공사의 하여장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

---

46) 청나라 정부는 1876년 9월(광서 2년 8월) 처음 주일공사를 위촉했고, 정사는 허검신(許鈐身)이었는데, 하여장이 부사(副使)였다. 그러나 넉 달 뒤 하여장을 정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청사고』 권159 "국교지", 권213 "교부 연표" 참조.

47) 영국은 황준헌이 싱가포르에서 영국군 화선을 고집했다는 것 때문에, 독일은 자오저우만(膠州灣)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황준헌의 출사를 반대하였다.

가 되었다. 그 동안 주일공사 하여장은 청나라 총리아문, 북양대신 이홍장과 류큐와 조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 양은 10만 글자에 달했다. 양계초(梁啓超)에 따르면 주일공사 하여장의 명의로 이홍장이나 총리아문에 보낸 편지 중 70~80%는 참사관 황준헌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48]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할 때에 조약문을 기초(起草)하여 조약체결에 참고가 되게 한 것 등이 황준헌의 대표적인 행적이다. 황준헌은 류큐 교섭과 조선의 장래, 그리고 청나라의 대응책을 두고 여러 차례 조언했다. 황준헌은 류큐와 조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준헌의 저서로는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 2권 ,『일본국지』(日本國志) 40권 ,『인경려시초』(人境廬詩草) 11건 등이 있다.

2. 황준헌의 재일 외교 활동

하여장, 장로생, 황준헌 등은 중국 근대에 처음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이었다. 그러나 이 초대 사절들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류큐 병합이라는 곤란한 사건을 겪었다. 류큐 사태의 심각성은 조선과 대만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데 있음을 황준헌은 예리하게 알고 있었다. “류큐는 멸망하면 조선에까지 이를 것이다.”[49] 조선 문제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류큐 사건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는 꽤 식견이 있는 강경파의 입장을 보였다.

1877년(광서 3년) 겨울, 하여장, 장로생, 황준헌이 일본 고베에 도착하자, 류큐국 대신 마겸재(馬兼才)가 한밤중에 갑자기 중국 외교사신의 배에 올라와서 통곡하며 류큐국왕의 밀서를 꺼내들었는데 일본이 류큐의 조공을 막고 류큐를 폐지할 작정이어서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되므로 중국 사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라는 내용이었다. [50]주일 외교대신인 하여장은 청나라 총리각국사무아문 및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류큐 사

48) 梁啟超.1959.『飮冰室詩話』. 人民文学出版社 PP104
49)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卷8, 商務印書館, 1921, pp. 3~4.
50) 黃遵憲,『人境廬詩草』, 卷7, ‘續懷人詩’自注.

건을 교섭하는 서한이 수십 건에 달하였는데, 황준헌은 하여장의 참사관으로 그중 “10분의 7~8”이나 되는 서신을 작성하였다.[51] 황준헌의 손에서 주로 나온 이 보고서는 대일 강경론을 주창하고 “현재 각국의 시국은 종횡무진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를 살펴본 후에야 그들과 도리를 따질 수 있다”며 당시 국세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만일 버티면 일본이 반드시 물러날 것이며 만일 내버려두면 류큐가 멸망하고 류큐가 멸망하여 조선에 이르리라 하여 대만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52]

황준헌이 기초하여 총리아문에 보낸 『류큐삼책』은 그의 외교적인 비견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일본은 불안정하고, 병력도 강하지 않아 일본에 맞서면 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넘어가면 호랑이를 길러 화를 입히듯, 반드시 정세를 되돌릴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물며 류큐가 대만에 가까이 있으니, 일본에 속하게 되면 일본은 거기에 군현을 설치하고, 민병을 훈련시키며, 그들에게 배를 대포를 제공하여 우리 변방을 교란시켜 대만과 평후 열도 사이에 단 하루의 안정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대만을 고려하면 지금 쟁취하면 우환은 더디게 찾아오게 되고, 포기하면 그 환난이 더욱 시급할 것이다. [53]

황준헌은 류큐·조선 문제에 있어 일본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아시아 국제정세와 중국의 장기적 이익 차원에서 지적한 것은 전략적으로 원대한 견해였다. 류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사실상 중국을 향한 일본의 탐색 메시지였다. 일본이 새 정치를 추진하면서 급속히 강해지면서 영토 확장 의욕도 급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 측은 영국의 세 섬으로 자신에 비유하지만 자강(自强)을 도모하고 비록 자수(自守)라지만, 실제로는 약소(弱小)에서 점차 강대해져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포부다.”[54]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후 조선을 침탈한 정세는 황준헌의 “류큐가

---

51) 양계초는 하여장이 이홍장이나 총리아문에 보낸 편지의 십분의 칠은 사실 황준헌의 손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梁啟超.1959.『飮冰室詩話』. 人民文学出版社 pp104

52)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卷8, 商務印書館, 1921, pp. 3~4.

53) 溫廷敬, 위의 인용서와 같음, 李鴻章, 위의 인용서와 같음.

54) 黃遵憲.『日本國志』[M].台北:文海出版社, 1974, pp.4-246.

기멸하고 조선에까지 이를 것이다"는 예상이 그대로 증명되었다. 조선은 당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속국이자 변경이었고, 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동북은 이른바 청나라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청정부 외교의 첫 번째 문제였다. 황준헌은 엄한 형세에 맞서 형세에 따라 "조선 외교를 주재"하여 조선의 재앙을 해결한다고 주장하였다.[55]

황준헌은 1880년 하여장과 '조선외교의(朝鮮外交議)'를 상의한 뒤 조선이 일본 도쿄에 파견한 수신사 김홍집을 만났다. '조선이 개방하여 생존을 도모한다.'라는 견해로 김홍집을 권유하여, 《조선책략》을 저술하였다. 전략적으로 조선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러시아를 방어하여 스스로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을 권고했다.[56] 류큐 사건을 겪어온 황준헌이 이시기 "결일본"이라는 건의를 제안 하였으나 그의 대일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중일 담판을 하는 동안 황준헌은 감정과 사상이 복잡했다. 그는 "중국의 사대부는 외국 일에 대해 막막하다. 옛날 요나라 군주가 송나라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국사는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일은 너희가 모른다.'고 하였는데 지금 중국과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7] 그들은 동쪽으로 이웃한 일본에 대해도 모두 "가까이 바다만 끼고 있지만 마치 열 겹의 안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58]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열강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류큐 사건 외에도 일본 메이지 유신 이래의 풍토와 민정과 전장 제도를 다룬 『일본국지(日本國志)』를 저술했다. "일본과 서양의 일을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다"는 취지였다.[59]

---

55)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 主持朝鮮外交議

56) 황준헌,『조선책략』. 이 글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편집한『수신사기록』.160~171쪽에도 나왔다.

57) 陳錚,『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黃俊憲全集 (下卷) 』[M]. 北京: 中華書局, 2005: 90-1575.

58) 陳錚,『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黃俊憲全集 (下卷) 』[M]. 北京: 中華書局, 2005: 90-1575.

59) 陳錚,『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黃俊憲全集 (下卷) 』[M]. 北京: 中華書局, 2005: 90-1575.

이때 그의 일본으로 배운다는 사상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황준헌은 1877년부터 1881년까지 14곡의 『근세애국지가(近世愛國志士歌)』를 썼는데, 주로 일본 메이지유신의 영웅 인물을 칭송한 것이다. 예를 들어, “네 나라의 위업을 능히 알 수 있고, 오직 님만이 시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시는 사쿠마 쇼잔 (佐久間象山)을 칭송하는 것이고, “대장부는 뜻이 사방에 있으니 어찌 함거 안에서 죽으랴. 만약 칠생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면 중국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는 요시다 쇼인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단순히 일본 유신지사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출된 십 수 명을 뽑아 시로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다. [60] 이를 보면 그가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태도는 애국심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강한 애국심에 힘입어 황준헌은 열심히 일본에 대해 배우고, 일본을 알아보고, 외사를 책으로 만들었다.

황준헌의 대일 사상은 하여장, 장사계 등에 비해 훨씬 탄력적이었다. 허여장, 장사계 등과 달리 황준헌은 대일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수용·인정하고 메이지 유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일본은 유신 이래로 모든 정령의 연혁, 제도의 손익, 아침에 공포한 법이 저녁에 바뀌고, 달이 다르고 해가 다르다. 메이지 12년까지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규모가 비교적 정해졌다. 그러나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적지 않다.”[61] 황준헌이 『일본국지(日本國志)』를 쓰고 나서 시를 지었다. “호해(湖海)에서 돌아왔지만, 호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천(憂天)의 뜨거운 피가 언제 용솟음칠까? 이 책은 일본의 『오처경(吾妻鏡, 일본의 역사책)』을 참고로 하였다. 인경려(人境廬, 황준헌의 거처)의 사방 벽에는 모두 그림이 걸려 있다. 제도를 바꿔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이 책은 내가 스스로 『황서(黃書, 왕부지王夫之의 정치평론책』로 비유한다. 몇 년째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의 악천후, 닭 울음소리가 코앞에 다가왔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쳤다. 눈물을 흘리며 등불의 심지를

60) 陳錚,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黃俊憲全集 (下卷) 』[M]. 北京: 中華書局, 2005: 90-1575.

61) 黃遵憲. 『日本國志·範例』, 上海古書出版社, 2001, pp. 4.

돋워 스스로 진퇴하였다.”『일본국지』의 완고는 그의 일본으로 배운다는 사상이 정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바탕으로 더 나아가 황준헌은 이홍장의 대일 경계와 달리 아시아에 평화와 위신을 가져다주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진정으로 지지했다. 그는 모든 아시아 민족이 서구인들의 침략으로 고통 받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미래의 굴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아시아를 일으켜라"(흥아론 興亚论) 라는 생각을 높이 샀다. 동시에, 그는 일본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황준헌은 “아시아 부흥” 사상을 지지했고 일본이 아시아 협력의 이상에 부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국과 류큐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일본이 기존에 주창했던 협력적 기조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청나라정부에 보낸 한 공식문서에서 황준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의 양보는 일본의 무시로 이어졌다.” 그는 비상시에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점점 더 중국에 대해 더 탐욕스럽고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호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황준헌은 일본의 국력이 강화되기 전에 일본의 오만함을 타파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일본이 류큐를 침략한 것이 작은 욕심이나 이익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을 경시하는 것으로 서양에 대한 강한 찬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방에 대한 찬사와 중국에 대한 경시가 1945년까지 일본의 행동 방침이 되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멸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압적인 자세가 서구에 대한 문화적 재편성의 결과라는 것도 황준헌이 예리하게 관찰하고 지적한 바이다. 중국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한 일본으로 인해 더 이상 아시아 톱니바퀴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Ⅳ. 『류큐삼책』과 류큐교섭

1. 『류큐삼책』의 집필 배경과 내용

류큐 왕국[62]은 중국 동해에 있는 군도의 나라로 대만과 인접해 있고 일찍이 중국 대륙과 왕래가 있었다. 명나라 홍무 연간에 명 태조는 류큐에 사신을 보냈고, 이후 중국-류큐(이하 '중류') 간에 조공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류큐는 중국의 중요한 조공국이었다. 중류 간 우호적이고 밀접하게 왕래한 것은 명·청 양조에서 무려 500여 년에 달하였다. 중국의 조공제도는 명청 이래로 중류와 중조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 체제가 점차 잠식되었다. 근대에 들어선 이래,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강렬한 충격을 받았으며, 중국과 일본은 서방의 위협에 직면하여 두 나라 모두 개혁적인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천황은 개혁 조명을 발포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변혁을 통해 빈약한 현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였다. 비록 개혁이 철저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전력을 다하여 서양을 배웠으며, 점차 강대국의 길로 나아갔다.

메이지 정부 초기에 사회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에서 모두 진일보

62) 류큐 군도는 중국 동해 동부에 있는 섬으로 중국과 종번(宗藩) 관계가 500년이나 되었다. 명청 때부터 중국에 조공하였는데, 중국은 그를 책봉하고 류큐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 류큐는 조선, 안남 등과 함께 중국과 조공을 가장 많이 하는 종속국으로 조공국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1609년, 일본 사쓰마 번은 류큐에 무력으로 침입하였다. 경장(慶長) 14년 3월 4일, 대장 樺山久高, 부장 平田增宗와 사병 3천여 명이 병선에 승선하여 백여 척에 타고 구주산천항에서 출발해 오시마, 도쿠노시마, 영량부도(永良部島)를 평정하였고, 25일 고수리섬(古守利島)에 상륙하여 4월 5일에 수도성을 점령하고 마침내 류큐를 평정하였다. 5월 17일에 상녕왕(尚寧王)과 구지두(具誌頭) 왕자와 이하 100여 명의 인질을 데리고 지금의 귀인(歸仁)에서 출항하여 24일에 산천(山川)으로 돌아갔다. 7월 5일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시마즈씨 (島津氏)에게 편지를 보내, 7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신과 류큐를 통치하는 흑인장을 하달하였다. 이듬해(1611년) 9월, 상녕은 류큐에 반환되었다. 일본 정부는 류큐에 조공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명나라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표면적으로는 류큐에 독립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류큐가 계속 중국에 조공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류큐는 중일 조공에 있어서 '양쪽에 속해 있는 상태'가 되어, 이후 중일 간의 분쟁에 잠복해 있는 화를 남겼다.

한 발전을 해야 하였으며, 국가가 직접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여, 외교 담판의 방식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외교를 통해 조선과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였으며, 조선이 문호를 열고 통상 서약을 맺기를 희망하였으나 조선의 엄한 거절에 일본은 조선의 종주국인 청나라와 교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끊임없이 청나라와의 상담을 거쳐 마침내 1871년 중일 사이에 『중일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후 중일 양국은 화목하게 지내며, 양국에 속한 국토는 조금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고, 수도를 주둔시킨다……제9조, 양국이 지정한 입구에서 이사를 두지 않았을 때 무역은 지방관이 단속하여 돌보는 것으로 한다. 범죄의 경우, 사건을 부근의 각 이사관에게 알려서,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제13조, 양국 국민이 지정 구 안에서 도적을 저지르면 지방관이 엄중히 체포하여 이사관에게 통지하여 같이 심문한다. 내지에 있는 자는 지방관이 심사하고, 이사관에게 통지하여 이사관이 조사하며 모두 범행을 저지른 데서 사형을 집행한다.[63]

『중일수호조약』의 체결은 중일 양국의 근대적 외교 관계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으며, 일본은 이 조약으로 중국과 동등한 외교 관계를 맺은 동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조약의 제4조에 따르면 일본은 일찍이 1874년에 야나기하라 사키미츠(柳原前光やなぎわらさきみつ)를 공사로 파견하였고, 청정부는 1876년에 하여장을 초대 주일공사로, 장로생을 부사로, 황준헌을 주일대사관 참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황준헌은 그의 외교 인생을 시작했다.

허여장[64]은 임명을 받은 후,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전념하여, 일본에 파견된 동안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사동술략』(使東述略)과 『사동잡영』(使東雜詠)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 두 책은 훗

63) 中日條約研究會 編輯·印刷, 『中日條約全集』, 1932, pp 1~11.
64) 허여장(1838-1891), 자는 자아(子峨)이고, 다푸(大埔)현 솽컹(雙坑)촌 사람이다. 1876년 하여장은 출사 일본 국사(國正使) 흠차대신으로 임명되었다가 1877년에야 정식으로 일본에 출사하였다.

날 중국인이 근대 일본 사회의 각 방면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저서가 되었다. 1876년, 황준헌은 북경에서 순천향시(順天鄕試)에 응시하여 141번째 거인(擧人)으로 뽑혔다. 하여장은 황준헌의 문채를 매우 좋아하였는데, 하여장의 주청을 거쳐 황준헌이 주일대사관 참사관으로 임명되어 두 사람이 함께 일본으로 출사하였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줄곧 교제해왔고, 두 사람은 이후 『조선책략』의 제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여장, 장로생, 황준헌 등은 중국 근대에 처음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이었다. 그러나 이 초대 사절들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류큐 병합이라는 곤란한 사건을 겪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류큐를 병합하여 대만을 침탈하고 나아가 중국 대륙을 침공하길 계획했다. 1872년 일본은 류큐를 '번'(藩)으로 선포하고 일본의 부현과 같은 위치가 되어 내무부의 담당을 맡았다. 1874년(동치 14년) 일본은 류큐 '표류민'(漂流民) 사건을 계기로 대만을 침범하였다. 이 사건을 이용하여 중국과 『북경 특별 조약』이 체결된다. 대만 사태가 수습되자, 일본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일본 정부에 류큐를 폐지하고 병합하여 강토를 넓힐 것을 건의하였다.

"류큐의 양쪽에 속해 있는 상태는 중세 이래로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점차 개혁하기 어려워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중국은 우리 속국을 정벌하는 것을 의거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을 무휼하였는데, 류큐가 우리나라 판도에 속한다는 사실을 족히 밝힌 것 같지만, 양국의 국경은 여전히 판명되지 않았다. 현재 류큐 난민으로 인해, 우리는 일찍이 막대한 재물을 들여 많은 사람을 희생하여 류큐를 보호하였다. 그 번왕이 마땅히 신속하게 우리 왕조를 찾아와 사은의 성의를 표명해야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까닭은 중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조령으로 번왕을 불러들이는데 만일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절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잠시 미루어 계획해야 하고, 먼저 그 중신을 불러 속국 정벌 사유와 중국 출사의 자초지종을 알려주고 또한 번왕이 분발하게 하여, 순례에 와서 사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게 해야 한다. 나하(那霸)에서 진대(鎭臺) 분영(分營)을 설치하고 형법·교육 이하에서부터 모든 제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개혁하여 그것이 우리 판도에

속한다는 실효를 거둔다. 또한 류큐는 항해 통상으로 그 나라의 계책을 보충하기 때문에 근래에 류큐 인민들이 끊임없이 각지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지금은 중국이 배상한 돈으로 난민을 구호하고, 그 나머지로 기선 한 척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이 조치는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유익한 사업을 운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명분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다."[65]

오쿠보 도시미치의 건의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어 1875년 일본은 류큐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렸다.

1. 중국에 대한 조공을 위해 사절을 파견하고 청제의 즉위를 축하하는 등의 관례를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2. 푸저우(福州)에 있던 류큐 상관을 철폐하고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모두 샤먼(廈門)의 일본 영사관에 귀속시킨다.

3. 류큐왕이 즉위하려면 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책봉해야 하는 의례는 이후에 모두 폐지된다.

4. 류큐왕은 일본 정부가 제안한 류큐 왕국에 대한 정치 개혁과 시설 건설 등 일련의 방안을 수용하기 위해 일본에 가야 한다.

5. 류큐 왕국이 앞으로 중국과 교섭할 것에 대해 모두 일본 외무성에서 관할한다.[66]

그리하여 일본 메이지 정부는 류큐 사관 3명을 도쿄로 소환했다. 오쿠보 도시마치는 류큐를 폐지하고, 신왕을 중국에 책봉 받는 관례를 폐지하며, 이후 류큐와 중국의 교섭은 일본 외무성이 관할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강제적인 명령은 류큐 사관 3명의 거절을 받았다.

1877년(광서 3년) 겨울, 하여장, 장로생, 황준헌이 일본 고베에 도착하자, 류큐국 대신 마겸재(馬兼才)가 한밤중에 갑자기 중국 외교사신의 배에 올라와서 통곡하며 류큐 국왕의 밀서를 꺼내 들었는데 일본이 류큐의 조공을 막고 류큐를 폐지할 작정이어서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되므로 중국 사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라는 내용이었다. [67]주일 외교대신인 하여장

---

65) 동아동문회: 『대지회고록』 권상전. 왕운생 『60년 동안 중국과 일본:1871년 동치(同治) 조약부터 1931년 9.18사변까지』. 생활·독서·신지 삼련서점, 2005년, 148쪽.

66) 동아동문회: 『대지회고록』 권상, 149-150쪽, 왕운생 『60년 동안 중국과 일본:1871년 동치(同治) 조약부터 1931년 9.18사변까지』. 생활·독서·신지 삼련서점, 2005년.

은 청나라 총리각국사무아문 및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류큐 사건을 교섭하는 서한이 수십 건에 달하였는데, 황준헌은 하여장의 참사관으로 그중 "10분의 7~8"이나 되는 서신을 작성하였다.[68] 황준헌의 손에서 주로 나온 이 보고서는 대일 강경론을 주창하고 "현재 각국의 시국은 종횡무진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시세를 살펴본 후에야 그들과 도리를 따질 수 있다"라며 당시 국세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만일 버티면 일본이 반드시 물러날 것이며 만일 내버려 두면 류큐가 멸망하고 류큐가 멸망하여 조선에 이르리라 하여 대만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69]

청 정부는 일본이 류큐의 조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찍이 하여장 등이 일본으로 출사하기 전에 청정부는 그들이 기회를 봐서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70] 일본에 도착한 후, 조공 방해의 경위 및 일본 방면의 행위를 파악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따라서 황준헌이 『류큐삼책』을 기초하여 총리아문에 보냈다.

"현재 일본은 불안정하고, 병력도 강하지 않아 일본에 맞서면 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넘어가면 호랑이를 길러 화를 입히듯, 반드시 정세를 되돌릴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물며 류큐가 대만에 가까이 있으니, 일본에 속하게 되면 일본은 거기에 군현을 설치하고, 민병을 훈련하며, 그들에게 배를 대포를 제공하여 우리 변방을 교란해 대만과 펑후 열도 사이에 단 하루의 안정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대만을 고려하면 지금 쟁취하면 우환은 더디게 찾아오게 되고, 포기하면 그 환난이 더욱 시급할 것이다. [71] "

황준헌은 일본 강역의 땅이 광동과 광서 두 곳보다 못하고, 경제적 재산은 쑤저우(蘇州)·창처우(常州)·후저우((湖州)보다 훨씬 못하며, 개혁 후에 더욱 민심이 불안해진 상태이다. 병기, 병법 등 군사력 면에서는 더더

---

67) 黃遵憲, 『人境廬詩草』, 卷7, '續懷人詩'自注.
68) 양계초는 하여장이 이홍장이나 총리아문에 보낸 편지의 십분의 칠은 사실 황준헌의 손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梁啟超.1959.『飮冰室詩話』. 人民文学出版社 pp104
69) 溫廷敬. 『茶陵三家文鈔』 卷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吳汝綸. 『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 卷8, 商務印書館, 1921, pp. 3~4.
70) 『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 卷1, 故宮博物館, 1932, pp.21.
71) 溫廷敬, 위의 인용서와 같음, 李鴻章, 위의 인용서와 같음.

욱 우리나라 군대에 비견할 수 없다. 구번(舊藩) 폐지 이후 10년 동안 화란이 거듭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이 가난하고 약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숨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일본이 감히 변경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그리하여 1878년, 황준헌은 총서에 상서하여 류큐 문제 해결을 위한 『류큐삼책』은 상·중·하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책략은 변론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사를 파견하여 류큐에 문책하고, 그의 공사(貢使)를 징벌하여 일본에 필쟁의 뜻을 암시하면 일본 쪽에서 기세를 꺾는다. 이렇게 하면 일은 쉽게 성사되므로 이것은 상책이다. 이치에 따라 끝까지 쟁론하여 그를 저지한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류큐인과 반드시 구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그들이 일본인에게 저항하게 한다. 일본이 류큐를 공격하면 우리가 좌우익 부대로 나가 대항하고, 안팎에서 협공하면 일본을 패배시키기 마련이다. 일본이 패하면 화의(和議)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중책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말을 한다. 혹은 공법을 인용하여 각자의 사신을 요청하여 이치를 따지도록 한다. 일본인은 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줄 알고, 류큐인은 요행히 생존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하책이다.[72]"

첫 번째는 일본과 교섭하는 한편, 병선을 파견하여 류큐에 조공을 가압함으로써 일본에 강함을 과시하는 것인데 이는 상책이다. 둘째, 대일 교섭이 무효하다면, 류큐와 약속을 하고, 일본이 류큐를 침공하면 중국은 좌우익을 파견하여 류큐와 내외로 협공하여 일본이 강화하도록 핍박한다. 이것은 중책이다. 셋째, 각국 사신들을 초청해 비판과 중재를 시켜 일리를 굴복시키고 류큐를 살아남게 하는 것이 하책이다. 만약 중국이 "류큐를 구하지 않고 일본이 류큐를 멸망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하면 이는 우호적인 관계를 버리고, 원한을 조장하여, 문을 열고 도적을 읍하는 것이고 무책(無策)'이다.[73] 이 『류큐삼책』은 또 중국은 당시 영국과의 윈난 마가

72) 溫廷敬. 『茶陵三家文鈔』 卷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pp 1~5.
73) 溫廷敬, 위의 인용서와 같음, 李鴻章, 위의 인용서와 같음.

리 사건, 러시아와의 이리 사건, 산시성과 허난성에 가뭄과 기근의 재난이 있어 지금은 “결코 군사를 부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채가 2억이 넘고 지난해 사란(1876년 일본 규슈 남서 사쓰마번 폭동)으로 민정이 불안하고 조세 감축이 재의되면서 국비가 부족해진 데다 육군은 불과 3만2000명, 해군 4천 명, 선박 15척밖에 안 되어” 중국보다 더 군사를 부릴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류큐삼책』은 상·중 2책이 가능하다고 본다.[74]

황준헌은 류큐 문제 처리에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는 한편으로 일본과 외교적으로 이치에 맞서고 다른 한편 청정부가 병선을 류큐에 파견하여 천조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두 방면의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일본을 위협하여 청나라 필쟁의 결의를 일본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류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하여장의 중책은 만약 교섭이 안 되고 일본은 그래도 류큐를 쟁탈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류큐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일본을 저지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류큐를 침공한다면, 청정부는 제때 출병하여 류큐를 구원해야 하며, 류큐와 내외가 연합하는 형세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은 반드시 타격을 당하여 화의를 요청할 것이다. 황준헌의 하책은 류큐를 보존하려면, 청나라가 만국공법을 인용하여 일본이 싸우지 않고 스스로 이치가 꿀리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상책과 중책보다 이 하책은 청정부가 이미 주동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삼책은 ‘전삼책’이라고 부른다. 앞의 삼책 중에서 청나라는 아직 약간의 능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황준헌이 제시한 무책, 즉 ‘후삼책’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수동적인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첫째 계책은 “그보다 못한 것은 한 가지 결말만 도모하여, 류큐는 결국 상납만 하고 책봉은 받지 않거나 아니면 책봉만 받고 상납을 하지 않는다.”[75] 중국과 류큐의 관계는 결국에는 상납만 하고 책봉은 받지 않거나 아니면 책봉만 받고 상납을 하지 않는 명의상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리라 생각한다.

---

74) 溫廷敬, 위의 인용서와 같음, 李鴻章, 위의 인용서와 같음.
75)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두 번째 계책은 “류큐가 대대로 일본의 외번(外藩)이나 내륙처럼 번제(藩制)를 폐지하고 군현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류큐의 상납은 끊어지지 않는다. 혹은, 일본에 우리 두 나라가 화해하고, 지금은 류큐가 우리 두 나라 공동의 속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알린다.”[76] 만약 청나라와 류큐 간의 봉공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류큐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류큐가 일본의 번속이 될 수 있음을 각국에 알린다. 이렇게 하면, 바로 류큐는 청나라 번속이기도 하지만, 일본 번속이기도 하다. 즉, 류큐는 동시에 양국의 속국이다.

세 번째 책략은 “류큐는 완전히 일본으로 귀속시켜, 모든 것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서양의 사례를 본떠 토지를 변경하거나 금화를 배상하는 것을 허락한다……일본이 도리가 굴절되고 구실이 궁해진다는 것을 기다린다.”[77] 황준헌은 만약 류큐가 그래도 보존되지 못한다면, 서양의 토지 변경이나 금화로 배상하는 방식을 본떠 해결한다고 말하였다. 그 본인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감탄하였다.

황준헌의 류큐삼책 제안은 당시 류큐의 중요한 전략적 의의와 일본의 국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토대 위에서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어느 정도는 청나라가 외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일본인이 기왕 분쟁을 일으킨 이상 청나라가 마땅히 대승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고 항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를 밝혔다. 이는 한 외교 사신의 전략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 『류큐삼책』의 외교 구상

황준헌은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근거하여 『류큐삼책』을 제기하였고 일본 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줄곧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채택하여 류큐 분쟁에서 한때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일본과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청정부는 결국 책략을 실행하지 못하여 류큐 사건에서 점차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

76) 溫廷敬. 『茶陵三家文鈔』 卷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77) 溫廷敬. 『茶陵三家文鈔』 卷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1) 각서 사건

황준헌과 하여장은 총서에 류큐삼책을 상주한 후에 총리아문은 대일 협상 타결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다. 총리아문은 “일본은 대만 사건 종결 이후 아직 다른 도발 단서가 없으므로 군사 사용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치를 따지고 일본에 문책하는 것이 순리다.”[78] 북양대신 이홍장은 “작은 나라의 공물을 쟁탈하고 헛된 명성을 위해 힘을 쏟으면 그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79] 그래서 하여장에게 먼저 일본 정부와 교섭을 해 보게 하고 만약 안 되면, 각국 주일 사절을 불러 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878년 9월, 하여장은 일본 외무성에 류큐는 일찍이 중국의 조공국 중 하나였다며 이는 서방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류큐의 조공을 막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류큐가 자기의 속지라고 강변하였다. 하여장은 여러 차례의 교섭을 거쳐도 결과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여장은 10월 7일 일본 정부에 언사가 강경한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각서는 처음부터 “명나라 홍무 5년부터 류큐는 중국에 신복하고, 왕이 책봉 받고 중국에 조공하여, 중국의 번속에 속했다. 다만 중국의 정령이 류큐의 자치를 허락한 점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청나라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며 류큐를 특별히 우대한다. 류큐는 우리나라를 섬기는데 특히 공손하다. 관례로 2년에 한 번 조공하고 끊김이 없었다.”[80] 또한 이것은 중국-일본-류큐 각국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하여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지금 갑자기 귀국이 류큐를 우리나라에 조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당당한 대국으로서 절대로 이웃 나라의 교분을 배반하려 하지 않으며 약자를 업신여기는 불신불의하고 무정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81] 하여장은 『중일수호조규』를 인용하여, 이치에 의하면, 류큐는 본래 우리나라의 국토에 속하므로 일본 측에 어떠한 침범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78)『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1, 故宮博物館, 1932, pp. 24.
79)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卷8, 商務印書館, 1921, pp. 5.
80)『日本外交文書』卷11『琉球歷史研究』, 天津人民出版社, 1998, 182쪽에서 재인용.
81)『清国公使致寺島外務卿』,『日本外交文書デジタルアーカイブ』11巻, (東京)日本国際連合協会, 1950, pp 271.

지금 오히려 “류큐를 업신여기고, 옛 제도를 독단적으로 고쳤는데 장차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82] 마지막으로, 각서의 연유를 설명하고, 일본 측이 “류큐를 예의로 대하기를 바란다.”, ‘조공의 일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83]

일본 외무경 대신 데라시마(寺島)는 10월 27일 이 각서에 회신하여 “이 섬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토였으며, 현재 우리 내무성이 관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하여장 각서에서의 “일본이 당당한 대국으로서 절대로 이웃 나라의 교분을 배반하려 하지 않으며 약자를 업신여기는 불신불의하고 무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와 “류큐를 업신여기고, 옛 제도를 독단적으로 고쳤다‘ 등의 용어를 ”가정(假定)의 폭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 측과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중국 정부에 떠넘기려 하였다.

나약하고 타협적인 자세로 인해 청 정부는 일본의 세력 확장을 억제할 호기를 놓쳤다. 1879년 3월 30일(광서 5년 3월 8일), 일본은 류큐에 군대를 파견하여, 이후 류큐의 나하를 점령하였다. 3월에 류큐 영토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여 류큐를 정식으로 병합하였다. 류큐 국왕은 이에 사신 홍덕(宏德)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청정부는 그때 이리(伊犁) 사건[84]에 빠져 여력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속국 류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바탕으로 류큐 왕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교섭을 계속할 것을 주일 사절에게 지시하였다. 이해 4월, 총리대신은 청 정부에 하여장의 교섭 사항을 보고하였다.

“일본이 위세를 떨치고, 강압적으로 위협하려 하는 것은 인정이나 도리에 모두 어긋나는 일이다. 하여장 등이 병력을 빌려 위세를 떨치려 하는 것은 중국의 현재 정세를 헤아리면 바다를 건너 먼 길을 정벌하기에는 정말 힘이 미치지 못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만약 허장성세만 부리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의해 간파당하면, 정세를 반전시키기 더욱

82) 『清国公使致寺島外務卿』, 『日本外交文書デジタルアーカイブ』11巻, (東京)日本国際連合協会, 1950, pp 271.

83) 『清国公使致寺島外務卿』, 『日本外交文書デジタルアーカイブ』11巻, (東京)日本国際連合協会, 1950, pp 271.

84) 일리 사건, 1871~1881 1862년 이후 중국 서북의 이슬람 교도의 반란은 1864년 이후 톈산 남북로(天山南北路)에 파급되었으나, 러시아는 이 혼란을 틈타 일리 지방에 출병하여 점령해버렸다

어려워질 것이다. 신 등은 재삼 의논하였지만 역시 정리에 근거하여 변론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85]

총리대신은 일본이 류큐를 강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치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하물며, 지금 하여장이 무력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국면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오직 정리에 따라 변론하는 것만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로써 청정부는 하여장이 이렇게 강경한 교섭 과정을 찬성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하여장에 대한 인원 이동이 진행되어, 사건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하였다. "하여장 등은 일이 만회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귀국하여 절대 결별의 흔적을 드러내지 말고, 훗날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해야 한다."[86]

각서 사건은 황준헌 일행의 적극적인 외교 행동이었고, 근대 중일 외교관 역사상의 격렬한 외교 교전이었으며, 중국 측의 강경한 외교 교섭이었다. "일본인들이 점점 기호지세인 듯하다." 황준헌의 류큐삼책은 적극적인 상중 양책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측의 일련의 전략적 배치를 어느 정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홍장 등은 대일 강경 조치에 찬성하지 않고, 일본과 무력 각축을 벌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더욱이 함부로 변경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홍장은 하여장을 다음과 같이 비평히였다: "영민하지만 교섭에 있어서 경험이 깊지 않고 예봉이 좀 지나치다. 일본 외무성에 처음에 보낸 각서는 언사 표현이 지나치게 적절하지 않다가 변단을 일으켰다. 옛말에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분쟁을 일으킨다' 라고 이르는데 이를 경계로 삼을 만하다.[87]

2.2. 미국의 조정(調停)

청정부는 류큐 문제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류큐와의 조공 관계를 포기하면서 류큐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잃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러 이리 협상이 한창일 때, 이홍장 등이 또 사단을 일으켜 일본인

85) 왕운생『60년 동안 중국과 일본:1871년 동치(同治) 조약부터 1931년 9.18사변까지』. 생활·독서·신지 삼련서점, 2005년, 165쪽.
86)『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1, 故宮博物館, 1932, pp.11~13.
87)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卷8, 商務印書館, 1921, pp.44.

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 넣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일본 측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심지어 일본과 청일 동맹을 실현하여 러시아를 공동으로 제압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이홍장은 지연의 방법을 채택하기를 원하였다. 이때 마침 미국의 전 대통령 그랜트가(Ulysses Simpson Grant) 중국을 여행하러 왔기 때문에, 이홍장은 그가 중일 류큐 문제를 조정하기를 희망하였다.

1879년 5월 이홍장은 류큐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미국 그랜트 전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1879년 6월, 이홍장은 톈진을 방문한 그랜트와 처음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중류 사이의 오랜 조공 관계를 설명한다 "류큐 국왕은 중국으로부터 왕위 책봉을 받다가 일본이 무단으로 폐위되고 공법을 어기는 것은 각국에 없는 일이다."[88]라는 하면서, "지금 일본은 이유 없이 류큐를 폐멸하고 공법을 어기는 것은 각국에 없는 일이다."[89] 또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은 반드시 일본의 항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본이 지금과 같이 무리하면 반드시 향후 중미 통상 대국을 혼란시킬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홍장은 미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길 바랐다. 그랜트는 "공평하게 의견을 견지하고 싶다."[90]고 했다.

그랜트가 일본에 도착한 후, 일본 측은 『태사전조』의 "대만 야만인이 일찍이 일본 국민을 해친 적이 있다."라고 설명한 바에 의하면, 청정부는 일찍이 류큐인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였고, 류큐는 이미 일본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그랜트는 이번에 일본에 오기 전에 원래는 일본 측이 류큐를 침탈한 것으로 여겼으나, 일본인과 교섭한 후에야 중일 류큐 분쟁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랜트 조정의 진전은 비록 느리지만, "분도 개약 (섬을 나누어 약정을 변경함)" 의 방안을 제기하였다. 일본은 중일 양국 간의 화호를 증진할 목적으로 류큐 영토를 세 부분으로 나눠 풍요로운 북쪽은 일본에 속하고 척박한 남쪽은 중국에 속하며, 중부에서는 류큐 국왕이 국가를 재건하고 류큐 남부, 대만과 인접해 있는 미야코(宮古列島), 야에야마(八重山) 두 섬을 중국에 양도하고 양국의 국경선을 구획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88) 吳汝綸. 1921, pp. 42.
89) 『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2, 故宮博物館, 1932, pp.17.
90) 吳汝綸 , 1921, pp. 43.

중일 통상 조약을 개정하여 이익 균분의 중요한 조항을 증가시켜 일본인이 서양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 들어가 무역할 수 있도록 한다.[91] 이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의 미야코와 야에야마 두 섬을 획득하고 중일 평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류큐를 포기하고 일본 측이 꿈꿔왔던 내륙의 통상과 일방적 최혜국 대우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79년부터 188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를 중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다케조에 신이치로는 일부러 중부의 류큐 국왕 복국을 언급하지 않고, 중국과 두 가지 협상만을 하였다. 첫째, 류큐 열도 최남단의 미야코 열도, 야에야마 열도는 중국에 속하고 류큐의 나머지 영토는 일본에 귀속된다. 둘째, 1871년 중일 조약과 통상규약을 개정해 재중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하고, 일상인 비통상 구안 지역 출입 금지의 규정을 없애도록 한다. 당시 담판에 참여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는 "정해진 조항은 비록 한두 조에 불과하지만, 구 조약의 정신을 바꾸어, 일본은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내륙의 통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으로 미래의 큰 이익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92]. 청정부는 당시 서북 이리 문제를 더 많이 고려하였는데, 러일 간의 결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말 중일 간 『류큐조약』과 『작가조항』(酌加條款)에 가조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분도 개약' 조항에 대한 진일보한 실현이었다.

청정부는 '분도 개약'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직면하여 만약 승인한다면 대일 타협이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총리 관아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홍장 등은 지연의 방법을 계속 채택하여 중일 '분도 개약'의 조정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랜트의 조정은 청정부가 특수시기에 처해 지연시키는 방법이고 중일 간에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조인한 조약을 보면, 청정부는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

91) 동아동문회: 『대화회의록』, 상무인서관, 1979년, 115~116쪽.
92) 信夫清三郎(Shinobu Seizaburō), 『日本外交史 １８５３～１９７２』, 毎日新聞社, 昭和49年, pp 186.

이홍장 등은 하여장 같은 상중 두 책략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외교적인 하위의 결과였다. 이홍장은 하책인 후삼책을 썼는데, 그 결과 류큐가 조공 체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다.

V. 『조선책략』과 조선 수신사 김홍집

황준헌의 조선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일(使日) 시기부터 시작됐다. 1876년 일본은 조선 강화도를 공격했고 조선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며 조선이 자주지국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조 종번(宗藩) 관계를 구축했다.1879년 청나라 정부가 예부에서 처리하던 조선의 사무를 북양대신으로 맡기고 주일공사가 보조했기 때문에 황준헌이 조선의 사무를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황준헌은 조선을 주제로 한 시를 여러 편 썼는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인경려시초』 제8권에 수록된 『비평양』(悲平壤) 과 『조선탄』(朝鮮嘆) 이다.

1. 『조선책략』의 집필 배경과 내용

조선은 중·일·러 전략적 요충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열강들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곳이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서방 제국은 일찍이 중조 간의 관계에 불만을 품었으며, 19세기 후반에는 그 전략적 지위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어 조선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직면하게 되었다.

1860년 러시아와 중국은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중국 측이 흑룡강 이북과 우수리강 동쪽의 넓은 영토를 할양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선은 더욱 제정 러시아 앞에 노출되었다. 러시아는 일찍이 조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통대신인 포르시에테가 '해변 지역과 아무르 지역은 곡물과 가축,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생스러우나 조선은 그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93] 고 밝힌바 있다.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면 전략 군사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1866년 러시아

93) (미) 말로제모프 저 /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캘리포니아판, 2002년, 15쪽.

가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 동해안을 침범하고 조선 정부에 조선 무역 통상을 요구하고 무력 위협까지 하면서 러시아의 조선 침범은 더욱 긴박해졌다. 하여장은 청정부에 “러시아인은 흑룡강 일대에서 갑옷을 수리하고 성곽을 보완하며, 기병대 4천5백 명을 증가하고, 또 보병 3천명, 포병 6백명, 수병 2천명, 병선 4척을 증가할 계획이다.” “호랑이와 늑대 같은 러시아인의 마음은 천하만국이 다 알고 있다.”[94]고 밝혔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등장하며 적극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일본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치 제도 변혁과 더불어, 대외 확장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메이지 초기에는 소위 “대륙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침략 행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첫째는 대만을 침탈하고 둘째는 조선을 병합하고, 다시 중국의 만주족 지역과 몽고족 지역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중국 전 대륙을 침탈하여 세계를 정복하려는 망상이었다. 침략의 순서를 정하자 공격의 창끝이 직접 조선을 겨누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을 빨리 선점하고 러일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할린 섬 포기를 불사했고, 1872년 러일 사이에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교환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의 조선은 여전히 “위정척사” 사상이 뿌리 깊은 국가였기 때문에 조일 교섭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조선의 문을 열고 전쟁의 실마리를 일으키기 위해 일본은 나아가 협상의 길을 열어 조선에서의 이익을 챙겼다. 1875년 9월 일본 운양함이 강화해협에 도착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여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1876년, 조일 쌍방은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보기에 조선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이며, 이에 따라 중조의 조공 관계는 위태로워졌고, 일본은 조선 침략의 첫발을 내디뎠다. 즉 일본 정부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대조선 정책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임하였다. 첫 번째는 조선이 자주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국의 대조선 영향력을 차단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두 번째는 대조선 정책이 대러시아정책과 연동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 남하에 대해서 조선을 軍事的 要衝으로 만들어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러 시아와의 국경문제해결의 중대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95] 1879년 일본 참모본부,

94) 郭廷以, 李毓澍,『清界 中日關係史料』, 中華印書館, 1972년, 403쪽.
95) 石井孝,『日本國交成立の國際的背景」, H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シア』,有隣堂, 1982.

육군성 정보과는 청나라, 조선 연안 군상 위상의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장교가 중국과 조선 각지에 잠입해 군사 정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96]

조선이 러시아 남하 정책에 직면하고 또 일본의 끊임없는 위협과 침범을 받자, 청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열강의 조선 침탈을 방지하고 복잡한 동북아 환경에 대처하기 원했다. 주일참사관 황준헌 등은 국제 정세에 근거하여 1880년에『조선책략』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황준헌은 1880년 하여장과 '조선외교의(朝鮮外交議)'를 상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이 일본 도쿄에 파견한 수신사 김홍집을 만났다. '조선이 개방하여 생존을 도모한다.'라며 김홍집을 권유하여,『조선책략』을 저술하였다. 그는 전략적으로 조선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러시아를 방어하여 스스로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을 권고했다.[97]

『조선책략』의 핵심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모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황준헌은 "지구에 아주 큰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다"며 "러시아는 서쪽으로 침략할 수 없어서 갑자기 계책을 바꿔 동쪽 나라로 침략하려고 한다."[98]고 했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면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도 뒤에서 보조를 맞출 것이고, 러시아가 조선을 공격하면 다른 조약국의 반대에 부딪혀 그 야망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99]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조선은 친중국, 일본과 친화, 연미국 등 세 가지 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자는 이 세 가지 책략에서 그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째, 친중국: 중국과 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동 서 북이 러시아를 등 에 두고 경계를 잇고 있는 것은 오직 중국뿐이다. 중국은 땅이 크고 물자 가 풍부하며, 형세가 아세아주에 거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천하는 러시아를 제어할 나라로는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아 끼는 나라로는 또한 조선만한 나라가 없다. 조선이 우리 번속이 된지 이미 천년이 지났으되 중국은 덕으로써 편안히 지내게 하고 은혜로써 품어 줄 뿐, 한번도 그 토지와 인민을 탐내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음은 천하가 함께 믿는 바이다.....마치 왼발과 같다. 서로 휴척을 같

96) 陸軍文庫,『鄰邦兵備略』, 參謀本部, 1880, pp. 20.
97) 황준헌,『조선책략』. 이 글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편집한『수신사기록』.160~171쪽에도 나왔다.
98) 黃遵憲,『朝鮮策略』.
99) 黃遵憲,『朝鮮策略』.

이 하고, 서로 환란을 함께 하였으나, 저 越南(베트남)의 소원함과 緬甸(버마)의 편벽함과 는 본디 서로 떨어짐이 오래됨이다. [100] 중러 간의 특수한 역사적, 지리적 관계 때문에 러시아의 침입을 막으려면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 조선은 친중국만 해야 러시아와 일본을 방지하는 유효한 조치이다. 게다가, 중조는 예로부터 종속 관계였기 때문에 반드시 화복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환난을 함께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서방 국가들도 중조를 실제 일가라고 인정하는데,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철수시킬 수 있다. 그는 김홍집을 위해 조선과 외국의 상약(商約)을 작성하여 상약에 "지금 조선은 대청(大淸)의 국명을 받들어 모 나라와 언약을 맺는다"는 문구를 적어주기도 했다.[101]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천명함으로써 조중 관계의 특수성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이 표현은 외교적 비전이 있는 표현이었다.

둘째, 결일본: 일본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중국 이외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다. 옛날 선왕이 사신을 보내어 통교한 나라는 맹부에 실려 있고, 그들은 대대로 맡은 일에 충실하였다. 근일에 이르러서는, 즉 북으로 이리와 호랑이가 어깨와 등을 걸쳐 타고 있어 만일 일본이 혹 땅을 잃으면 조선 팔도가 능히 스스로 보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조선에 한번 변고가 생기면 九州.四國 또한 일본이 차지하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고로 일본과 조선은 실로 보거상의의 형세에 놓여있다.[102] 조일은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조일은 상호 의존해야만 비로소 적을 막을 수 있다. 이른바 "강대한 이웃 나라가 조일을 다 핍박하며, 조일은 입술과 이와 같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으려 한다."

셋째, 연미국: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조선의 동쪽바다로 부터 가면 아메리카가 있는데 즉, 합중국이 도읍한 곳이

---

100) 何謂親中國, 東西北背俄, 連界者惟中國, 中國之地大物博, 據亞洲形勝, 故天下以爲能制俄者莫中國若, 而中國所愛之國, 又莫朝鮮若, 爲我藩屬, 己歷千年, 中國 緩之以德, 懷之以恩, 未嘗有貪其土地人民之心, 此天下之所共信者也, …… 有如左臂, 休戚相關而患難相共, 其與越南之疏遠, 緬甸之偏僻, 相去固萬萬也. (『朝鮮策略』)

101) 黃遵楷, 『事實述略』; 이 글은 『속회인시·회조선김홍집(續懷人詩·懷朝鮮金宏集)』, 『人境廬草詩』 권7 주석에서도 나왔다.

102) 何謂結日本, 自中國以外, 密邇者, 日本而己, 在昔先王, 遣使通聘, 載在盟府, 世世職守, 至於近日, 則有北豺虎同据肩背, 日本苟或失地, 八道不能自保, 朝鮮有一變故, 九州.四國, 亦恐非日本能有, 故日本與朝鮮, 實有輔車相依之勢. (『朝鮮策略』)

다. 그 근본은 영 국에 속해 있었는데 백 년 전에 워싱턴이란 자가 유럽 사람의 학정을 받기를 원치 않고 발분 자립하여 한 나라를 독립시켰다. 이 뒤로부터 선왕의 유훈을 지켜서 예의로써 나라를 세우고 토지를 탐내지 않고, 남의 인민을 탐내지 않고, 굳이 남의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그와 중국과는 조약을 맺은 지 십여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조그마한 분쟁도 없는 나라이다. 일본과의 왕래에 있어서는 통상을 권유하고 연병을 권유하고 조약을 개선함 을 도와주니, 이는 천하만국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103] 아메리카는 민주국가로서 약한 자를 돕고 공의를 유지한다. 만약 조선이 미국과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원조를 얻어 화를 면할 수 있다. 황준헌은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어 미국의 원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제시하는 책략을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조선이 친중국 하는 것에는 찬성할 것이지만 결일본 하는데에는 반쯤 의심할 것이며 연미국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의심할 것이라고 봤다.[104] 특히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로 일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조선으로서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는 일은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선책략이 써지던 1880년 직전까지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1874년에는 류큐 漂流民의 피살사건을 이유로 일본의 대만에 대한 침공이 있었고 1879년에는 류큐를 오키나와(冲繩)縣으로 바꾸면서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인 1876년에는 청조가 속방(屬邦)으로 여기고 있던 조선에 대한 침략의 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강화도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그가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조선에게 권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된다. 그러나 당시 청국의 외교정책 수립에서 최대의 목표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 다면, 그리고 청국이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

---

103) 何謂聯美國, 自朝鮮之東海而往, 有亞美利加者, 卽合衆國所都也, 其本爲英屬, 百年之前, 有華盛頓者, 不願受歐羅巴人苛政, 發奮自雄, 獨立一國, 自是以來, 守先王遺訓, 以禮義立國, 不貪人土地, 不貪人人民, 不强與他人政事, 其與中國, 立約十餘年來, 無纖芥之國, 而與日本往來, 誘之以通商, 勸之以練兵, 助之以改約,尤天下萬國之所共知者, (『朝鮮策略』)

104) 조선책략 , p.27.

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청국이 조선에게 전략적인 입장에서라도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권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05] 그리고 황준헌은 러시아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학자 호 타쿠슈(彭沢周)는 황준헌의 이러한 주장이 러시아의 남하 팽창에 놀란 일본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106]. 황준헌은 또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알았다. 이에 그는 조선이 중국의 보호에 의존하지 말고 서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자국의 근대화를 위해 긍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서세동점의 시기에 청국의 입장에서 조선이 취해야하는 바람직한 책략 은 자신들 청국과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과 일본과 수교를 맺고 미국과 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과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제안은 조선의 입장에서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미국과 우호관계를 체결하라는 권고는 조선 내부에서 거센 반기 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책략』은 이어서 매우 큰 지면을 할애해 조선에 존재하는 의구심을 설명하였고 의심에 대해 설명을 덧붙다. 당시 조선이 직면한 국내 국제정세에 대해 조선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1879년, 이홍장이 조선 원임 태사 이유원에게 서한을 보내 개항을 권유하자, 이유원은 답변에서 개항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차례 밝혔다. 예를 들면, “조선의 동쪽 외진 곳에 있어서, 풍조가 비교적 늦어 비록 중국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해 주지만, 시무를 꿰뚫어보고 전체 국면을 가로보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현재 전국 사람들은 견문에 얽매여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유원은 여러 사람의 의견에 말려들어 이것

105) 당시 청국이 전략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던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朝鮮策略이 써진 이후 몇 달이 지난 1880년 11월 중순 何如璋이 총리아문 에 보낸 보고서 속에서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러시아의 물자 지원 요청도 거절하는 엄격한 의미의 중립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는 점이다.「總署總辦收出使大臣何如璋函(光緒六年十月十六日)」, 앞의 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p.437.

106) Ho Takushu,meiji shoki nikkanshin,p.90. Ho stated that Huang wrote his booklet by oder of Ho Ju-chang and following the opinions of Li Huang-chang; however, the document cited by Jo(p.95) does not give information to support his point.

에 대해 논했지만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정세가 변했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하여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고, 아마 이는 하루 아침의 공은 아닐 것이다."[107] 이유원은 조선이 서방의 개방 풍토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비교적 늦고, 청나라가 개항을 치밀하게 계획해 줄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개항하려는 것은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결일본에 대한 반대한 소리가 많다. 예를 들면 1877년 초대 주일사절단을 따라 일본에 도착한 여경(余瓗)은 나가사키 주재 영사관을 지냈으며, 나가사키는 조선과 가까워 조선에서의 일본 동향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 여경은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나오는 '결일본'에 대해 찬동하지 않고 『경진시무서』(敬陳時務書)에 "일본이 조선에서 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없으며, 조선의 환난은 실로 러시아이다. 어찌 일본을 연합하여 러시아를 방어할까? 이런 견해는 식견이 원만하고 사려가 깊다고 여기지만, 일본의 재앙이 이미 매우 임박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몸으로 비유하자면, 러시아는 정말 재앙인데 그 병이 경맥에 있으며, 일본이 조선을 침식하는 것은 외부의 사기가 이미 심복으로 침입되었다는 것과 같다. 경맥상의 병은 처방을 얻으면 고칠 수 있지만, 심복의 근심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약이 있어도 고치기 어렵다. 러시아의 강성으로 정말 조선을 호시탐탐 노린다면 어디 일본이 어찌할 수 있겠는가? 설령 일본이 조선을 도울 힘이 있다고 해도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마침 앞문에서 호랑이를 방어하고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 것과 같으니 조선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중국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는 러시아는 조선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조선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러시아는 나쁜 병으로써는 신체적 고통에 속하며 치료할 수 있으나 일본의 조선 침략은 치료할 수 없는 심복의 질병이다. 현재 '연일본'을 하여 일본의 힘을 빌려 러시아를 방어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독이든 술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이 중국에도, 조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큰 것은 사실 일본이며 일본은 심복의 근심임을 지적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책략』이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며,

107) 『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 卷1, 故宮博物館, 1932, pp. 370~371.

황준헌은 만약 곤혹스러움을 더 설명하지 않으면, 책략을 실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조선책략』은 또 조선을 자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황준헌 등은 조선이 개방된 외교 정책을 실행하여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외 무역의 왕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 교육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나는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여러 나라와 맹약을 맺고 상호 견제를 통해 조선 보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문을 닫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조선이 적을 막으려면 반드시 자강해야 하고 자강하려면 문을 닫고 스스로 지키면 안 되고 개항해야 한다.

비록 『조선책략』이 러시아에 대해 취하는 다음 단계의 행동과 방법과 책략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상세하고 책략이 뚜렷하며, 해석이 완전하고, 동아시아 각국 간의 정치 관계 및 향후 발전 노선을 최초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학자 켄이치로 (平野健一郎) 는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짓는 책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되지 않다고 말했다. [108] 조선에 전략 문서로 넘겨진 것은 더욱 설득력이 있어 중시되지 않은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각국의 관계에 관한 국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선책략』의 외교 구상

황준헌은 1877년 주일본공사관 참사관으로 임명되었는데, 하여장 공사의 일본 도쿄 출사(出使)를 수행하여, 대사관의 외교, 문서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1880년 8월, 도쿄에서 조선수신사 김홍집과 수차례 회담하였다.

조선의 종주국으로서 러, 일 등 열강의 조선에 대한 등등한 기세에 맞서, 황준헌 등은 중국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외교의 초점을 조

108) 平野健一郎. 『黄遵憲「朝鮮策略」異本校合--近代初頭東アジア国際政治における三つの文化の交錯について』, 日本国際政治学会, 2002, P.1.

선 문제에 두었다. 1880년 8월 조선 정부의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이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방문하자 황준헌 등이 스스로 김홍집을 만나 대책과 견해로 『조선책략』을 전달했다. 책략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첫 걸음은 김홍집에게 개항통상이 조선에 매우 유리하다고 믿게끔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김홍집에게 조선 임금에게 개항통상을 권유하도록 해야 했다.

1) 조선 수신사 김홍집과의 회담

1880년 8월 조선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그동안 청나라 주일사단과 6차례에 걸쳐 회담하였다, 이 중 황준헌이 직접 참여한 회담은 1차와 5차 회담이었는데 5차 회담에서는 황준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냈다.

5차 회담 시작부터 황준헌은 그 주요한 취지를 밝혔다. "지금 바로 의견을 책략서로 썼는데 수천 마디정도 된다. 귀하께서 일정이 촉박하시니 한두 번만 만나면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까봐 근래 수일의 시간으로 이 책략서를 작성하였다. 만약 그중에 과격한 말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오."[109] 황준헌으로 대표되는 주일사단은 여전히 유연한 외교 책략과 수단을 보여 주었고, 서신의 형식을 채택하여 김홍집을 송부하게 한 것은,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회담이 청나라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조선왕실이 현재 조중 쌍방이 처한 국제적 배경과 어떻게 대처 하고 있을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으로서 청나라는 지금까지 내정외교를 간섭하지 않았으며, 이 또한 일본인과 서방국가에 구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해 말하자면, "조정의 풍토는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불변의 규칙만을 고수할 뿐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어찌 하냐?[110] 중국 측의 서한을 빌어 국내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물리치고, 조선을 개항시키는 것도 좋은 방책이었다.

---

109)(일) 伊原澤周『근近代朝鮮的开港 : 以中美日三国关系为中心』,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8, pp 299

110) 伊原澤周.2008, pp.297

회담에서 황준헌과 김홍집은 조선의 쌀 수출과 관세 확립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황준헌은 이 문제에 대해 관세 자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관세는 우리나라가 자주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가장 좋다……조선 본국을 위해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보다는 이후 흉년에 물건을 들여오는 것에 영향을 줄 까봐 자주적으로 관세를 확정하는 것이 좋다.”[111] “아편전쟁 이래 청나라는 서방 국가와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관세를 자주하지 못했다는 위해를 깊이 받았으며 관세 자주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이 자강하려면 관세는 반드시 자주적이어야 하였다. 회담에서 황준헌은 예시 등을 통해 통상의 중요성과 무해성을 설명하였는데, 김홍집은 황준헌이 말한 통상의 무해함을 알고 있었지만, 국내 보수파의 반대가 두려웠다. “우리나라 독서인들은 모두 통상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긴다.”[112] 황준헌은 “오늘날도 관문을 닫으려면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운 것이다.”[113]

황준헌과 김홍집이 회담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황준헌이 『조선책략』의 요지에 따라 담화하고, 조선에 개항하여 통상하고 관세를 자주하며 자강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의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김홍집에게 넘겨 『조선책략』의 정식 출범을 알리는 한편, 회담을 통해 조선의 개방을 권유함으로써 김홍집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통상 의지를 굳히게 함으로써 『조선책략』을 상정하여 조선 개항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책략』은 일부 조선 신하들에 의해 폄훼되었지만, 일본에서는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 요코하마 법문보관은 『조선책략』 전문을 번역해 “황씨의 관직은 이홍장보다 훨씬 낮고, 이홍장의 식견은 황씨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평론하였다.[114]

2)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111) 伊原澤周.2008, pp.300
112) 伊原澤周.2008, pp.301
113) 伊原澤周.2008, pp.301
114) 黃遵楷,『事實述略』

김홍집이 귀국한 후, 『조선책략』을 조선 국왕 고종에게 바쳤는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곧 국내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1880년 11월, 병조정랑 유원식이 고종에게 상서하여 조선의 대외 개항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김홍집 등을 직접 겨냥하여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켰다. 1881년 3월 영남지역의 선비 이만손 등이 『조선책략』에 반대하는 '만인소'를 올렸다. 조선 고종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조선책략』의 의견을 채택하여 반대파를 진압하였다.

이때의 중국은 북방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미일 연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홍장도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일본과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중조 양측은 일정 기간의 의사소통 끝에 청정부는 마침내 조선 정부의 개방 정책을 설복했다. 1882년 1월, 조선은 영선사 김윤식을 파견하여 이홍장과 미국과의 통상 사항을 협의하였다. 1882년 3월, 조선 정부는 신괴, 김홍집 등을 대표로 천진에 파견하여 미국 대표 슈펠트(R. W. Shufeldt)와 담판하여 상약을 맺었다. 이후 이홍장은 도원 마건충(馬建忠), 수사단 통령 제독정여창(丁汝昌)을 보내 3척의 군함으로 조-미 대표단을 인천으로 보내 협상을 타결 짓고 5월 22일 조미조약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조선에서의 각종 특권을 획득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이 조선과 잇따라 조약을 맺었[115]고 조선은 이때부터 문을 활짝 열었다. 일·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홍장·정여창·하여장·황준헌 등이 한반도에 균세를 형성한 목적은 일단 실현되었다.

미국은 1876년 조일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이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맺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슈펠트(R. W. Shufeldt)는 당시 미국의 유명한 장교로, 강한 확장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페리가 일본의 국문을 열었던 것처럼 은자의 나라인 조선을 개항하여 청사에 이름을 남길 매우 희망하였다. 1882년 1월, 미국은 슈펠트를 협상대표로 임명하여 중국 측 대표인 이홍장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게 하였으며, 네 차례의 정식 담판을 거쳐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은 인천에서 정식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담판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홍장은 조약에 "조선은 중국의 속국"

115) 『清史稿』, 卷526, '屬國傳· 朝鮮'.

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를 명문 조약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중조 조공 제도를 수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약은 이후 구미 각국과 조선이 맺을 조약의 청본이 될 수 있으며, 이어서 열강에게 중조 종속 관계를 인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조항을 조미조약 본문에 넣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양국은 조미조약과는 별도로 조선 국왕이 각국을 조회하여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과 구미 국가가 체결한 첫 번째 정식 조약으로, 조약 내용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상호 외교 공사 파견, 수출입 관세, 식량 수출과 통상 항구 등을 포함한다. 그중 다섯 번째 항은 관세 자주와 세율에 관한 규정이다. "미국 상민, 상선이 조선으로 가서 무역을 하고 화물을 수출입을 하는 데 모두 세금을 내야하며, 그 조세 징수권은 조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모든 수출입 세목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모두 조선 정부가 규칙을 세우기로 한다. 수입품 중의 민생 일용품과 관련된 것은 가격대로 세금을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치품, 예를 들면 술과 담배와 같은 것은 가격대로 세금을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산품수출은 100에서 5를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무릇 수입 화물은 관세를 낸 후, 내륙 어느 곳에나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 상선은 입항 후에 반드시 톤세를 내야 하는데 1톤당은 은 5전을 내야 한다.[116] 이것도 역시 중국 측이 아편전쟁 이래 불평등 조약의 교훈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홍장 등은 애써 조선의 협정 관세를 피하고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세율을 상정하여 조선의 자강에 도움이 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1882년 6월 영국·독일도 조선과 조약을 맺었고, 1884년 6월 러시아·이탈리아도 조선과 조약을 체결했으며, 1886년 6월 프랑스도 조선과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조선의 전면적인 개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선책략』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책략』의 일부 내용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은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책략'을 세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책략을 내세웠는데 이는 조미통상조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117]

---

116) 伊原澤周 2008, pp 214~215.
117) 강만길 지음『고쳐 쓴 한국근대사』파주 : 창비 2006.

3.『주지조선외교의』와 청국의 대조정책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후 조선을 침탈한 정세는 황준헌의 "류큐가 기멸하고 조선에까지 이를 것이다"는 예상이 그대로 증명되었다. 조선은 당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속국이었고,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동북은 이른바 만주족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청정부 외교의 첫 번째 문제였다. 황준헌은 엄한 형세에 맞서 형세에 따라 "조선 외교를 주재"하여 조선의 재앙을 해결한다고 주장하였다.[118]

사실 일본은 류큐를 병합하면서 이미 조선에 대한 먼저 침략하고 나중에 병합할 계획을 책동하고 있었다. 이때 북방 러시아의 침략 세력도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일본의 침략 야심이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역사상 일본은 조선을 여러 침범했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수호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조선 섭정대원군 이하응은 이를 거절했다.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양호가 조선의 강화도 인근 수역을 무단 진입하여 측량하자 조선군은 포를 쏴 경고하였는데 일함이 그 기회를 타 공격해 "조선의 포대를 파괴하고 영종성을 불태워 조선병을 죽이고 무기를 탈취하고 갔다."[119] 일본은 관문을 닫고 쇄국하는 정책을 펴는 조선이 종주국인 중국과만 왕래하자 육군 중장이자 참의 겸 개척 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특명취급대신으로 보내 병사를 이끌고 조선에 가서 강화도 사건에 대한 군사와 외교적 공갈을 벌였다. 한편, 그해 12월 외무소보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고 조선의 종주 청정부와 교섭했다. 조선 교섭에서 총리아문은 일본 측에 "조선은 우리 번속이지만 내정외교는 자주에 맡기고 우리는 종래로 간섭하지 않았다"[120]고 하였다. 그러나 또 1871년 중일『수호조규』제1조

118)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 主持朝鮮外交議
119) 羅惇,『中日兵事本末』,『中國近代史 資料選集』, 1980.pp.298.
120) 羅惇曧。1980. pp.298.

의 “양국이 속한 국토도 각각 예의로 대하므로 조금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들어 일본이 조선을 침범한 것을 질책했다. 그러나 모리 아리노리는 조선의 ‘내정외교는 자주’라는 총리아문의 말을 붙잡고, 고대 동아시아 전통 종번 관계의 실속을 도외시한 채 조선을 ‘자주의 나라’로 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총리아문에 “나라 간의 일은 누가 강한지에 달려 있고 조약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 우리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횡설수설했다. [121] 결국, 청정부는 타협정책을 봉행하면서 일본이 1876년 2월 26일(광서 2년 2월 2일) 조선 정부에 강화조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강화조약은 첫머리에 요지를 밝혔는데 “조선은 자주지국으로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이전에 친분이 단절시켰던 각 규정부터 없애야 한다.” [122] 일본은 이를 통해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인 종번 관계를 법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강화조약』에는 또 인천·원산을 상업 지역으로 개방하고, 조선에서 영사재판권과 해안측량권을 일본이 누릴 수 있다는 조약이 있다. 일본이 『강화조약』이 체결된 지 3년 만에 류큐를 병합하자 청정부는 “일본은 오늘 류큐를 멸망시켰으니 내일 조선까지 이른다.”[123]고 통감했다. 이때 러시아 세력도 빠르게 남하하여 조선으로 들어가 일본과 조선을 쟁탈하는 형세가 되었다.

중국과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는 조선이 무너지면 중국은 순망치한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준헌은 주일공사 하여장과 상의했고, 그는 하여장에게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를 작성하여 1880년 봄(광서 6년) 총리아문에 올렸다.

‘주지조선외교의’는 총리아문에 두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제1항은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의 형세가 날로 급박하므로, 오늘날의 중국의 형세를 논하여 조선에 대신을 주둔시켜……무릇 내국의 정치가 외국의 조약을 받는 것은 모두 중국이 주관하므로, 외부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124] 이 책략은 ‘조선 내정외교는 자주’라는 종번(宗藩)의

121) 『清朝外交史料』 卷22. pp.7.
122) 王雲生, 『60年東亞 中國和日本』, 卷22. pp.135.
123) 溫廷敬. 『茶陵三家文鈔』 卷 2. ‘朝日國情論議’.

원칙을 실질적으로 바꿔 조선에서 중국의 전통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 관여 정책을 펴려는 것이었다.

이 관여 정책은 1881년 조선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에서 채택되었고, 원세개(袁世凱)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주재 전권을 위임받아 중일 청일전쟁 발발 이전 10년간 청나라의 전통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 책략에 대해 황준헌은 훗날 조선의 사신 김홍집을 그리워하는 시가의 주석에서 "광서 6년, 총리아문에 상소하여 조선을 군현(郡縣)으로 폐위시켜 후환을 끊도록 한다."[125]고 하였다. 이는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와 잘 맞지 않지만, 황준헌 당시에 표출되지 못했던 본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1886년(광서 11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주재 공사였던 유서분(劉瑞芬)이 이홍장에게 조선 문제가 난치병이 되었으니 중국이 조선 전 지역을 행성으로 바꾸는 것이 상책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더군다나 1885년 여름, 청정부가 보정(保定)에 연금되어 있던 조선 왕의 아버지 이하응을 귀국시키려 하자 이하응은 조선에 국감 대신을 두라고 요구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중국이 조선을 내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홍장에게 건의했을 정도였다. 이에 이홍장은 깜짝 놀랐다. 이는 일본이 조선 후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청나라가 약하고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당시 조선의 대 외인식이 이미 상당부분 서구 쪽으로 치우치[126]고 조선 민족의식이 각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로는 통하기 어려웠다. 어쨌든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에서 조선에 관여하고 후환을 막기 위한 대책은 조선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이홍장과 원세개에게 효과적으로 채택됐다.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의 두 번째 책략은 "어쩔 수 없

---

124)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 '主持朝鮮外交議'.
125) 黃遵憲,『(續懷人詩·懷朝鮮金宏集』,『人境廬詩草』, 卷7,
126) 일찍 18세기 말부터 조선에서의 분위기는 홍대용의『의산문답』에서 나타나듯이 중 화사상을 상당 부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출처: 전재성,『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 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125~126.

이 그 차선의 책략을 생각하여 러시아 한 나라가 조선을 차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천하의 만국들과 균등하게 나누어 유지함으로써 조선이 미국·독일·영국·프랑스 제국과 통상을 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127] 이 책략은 청나라 정부가 조선이 서방 제국과 모두 통상 조약을 맺도록 하고, 서방 제국에 시장을 개방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침탈 야욕을 견제토록 하는 것을 건의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로 한반도에 정치적 군세를 조성하려는 의도였다. 황준헌은 "중국이 이 균열에서 주도적 지위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는 이어 "지금 중국이 조선을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될 것이 없다. 다만 조정에서 회의하여 외교적인 이해에 밝은 관원을 속히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조약 맺는 것을 대신 주재해야 한다. 그러면 종주국과 속국의 구분이 더욱 밝아지기 때문에 훗날에는 바깥 틈이 생겨도 우리는 조종할 수 있으니 북양의 요충지를 견고히 하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한다."[128] 특히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는 중국이 조선 외교를 주도하는 것은 근대적 국제관계 관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서양의 속국을 고찰해 본 결과는 서양 각국은 모두 그 속국의 정치를 주재한다. 또 서양의 통례를 고찰해 보니 속국과 반식민지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그 통할하는 나라가 주재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129] 황준헌은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낸 또 다른 보고에서 "조선이 보존되면 조선은 우리 동쪽 삼성에 인접해 있으므로 저절로 변경을 견고히 하여 우리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130] 이 건의는 조선에서 중국의 종주 지위를 강화하고, 조선에 대한 일·러의 노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황준헌이 하여장을 위한 작성한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는 총리아문과 이홍장의 중시를 받았고, 조선과 서양 열국 간의 통상 조약에 관한 책략은 이홍장 등의 생각과 일치했다. 총리아문 대신 정일창(丁日

127)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主持朝鮮外交議'.
128)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主持朝鮮外交議'.
129)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主持朝鮮外交議'.
130) 黃遵楷,『事實述略』.

昌)은 조선과 서방 열국이 조약을 맺어 “일본의 침략이 계속될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상주하였다. 또 “조선이 서방 제국과 잘 통하고 장차 일본이 도발하면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모두 와서 일본의 잘못을 비난하면 일본은 꺼릴 것이 없을 정도는 아니다."[131]고 말했다. 이때 주중 영국공사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도 “조선이 각국과 교통하지 않으면 류큐의 연속이 될 것이다.”[132]고 경고하였다. 그는 중국이 조선에 서양 각국과 통상의 체결을 권고하라고 제의하였다.

이홍장은 이리 위기 때 조선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유원과 비밀리에 교신하며 조선에 일본과 연합하여 러시아를 방어하라고 건의하였다. 일본이 류큐를 병합하자 청정부의 명을 받아 이유원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에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각국과 통상하는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이유원에게 “귀국이 먼저 영국·독일·프랑스·미국과 통상하면 일본 견제뿐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조선을 노리는 것도 철저히 막을 수 있”고 권했다. 그는 이유원을 통해 조선 국왕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에 있어서의 월권행위에 관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외교적인 이해에 밝은 관원을 속히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조약 맺는 것을 대신 주재하지 않았고 조선이 사람을 파견하여 직접 미국의 해군 대표와 천진에서 중국 관리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외교에 신중했던 이홍장은 “비밀유지를 해 주면 자유롭게 진퇴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분명히 대모한다면 조선은 우리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각국은 우리에게만 책임을 물을 지도 모른다. 훗날 반드시 호랑이를 타고 내릴 수 없는 기세가 되어 방촌의 땅이 쉽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133]”고 말했다. 이홍장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다른 외교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오히려 일본 세력을 조선 정계에 급속히 침투시켜 1882년 여름의 임오군란과 1884년 말의 갑신정변을 불러왔다. 그때서야 청나라 정부

131)『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1, 故宮博物館, 1932, pp. 32.
132)『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1,故宮博物館, 1932, pp. 32.
133) 錢仲聯,『黃公度先生年譜』, 光緒6年.

는 원세개를 ‘주조선총리’(驻朝鮮總理)로 임명하여 조선의 외교 통상 사무를 교섭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 조선 문제는 이미 상당히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졌다. 결과적으로 청나라는 조선을 열강 앞에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훗날 조선을 잃게 될 화를 자초하였다.

‘주지조선외교의’에서 황준헌이 스스로 부정한 이른바 '군현으로 바꾼다', 즉 “조선에 주재 대신을 설치한다. 몽골, 티베트처럼 내국의 정치와 외국의 조약은 모두 중국이 주관한다.” 는 건의는 일본의 1879년 류큐에서 ‘번을 폐지하고 현으로 설치한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황준헌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지도권을 강화하여, 러시아와 일본이‘감히 넘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조선을 ‘내지와 통일한다 ’는 것이 아니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결코 일본이 류큐에 대한 정복 관계가 아니었다.

중조 간 전통적인 책봉 조공관계보다는 ‘군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나 ‘외교 주재’를 한다는 것은 모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조공제도의 ‘내정 불간섭 외교’와는 또 다른 관행이었다. 이는 조공을 책봉하던 화이(華夷)질서가 아니라 만국공법의 기초 위에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에 더 가까워 보였다. 이런 결과는 황준헌 등이 생각해 온 외교 전략이기도 했다. 황준헌과 하여장은 류큐 교섭 때부터 ‘아시아 공헌(貢獻)지국 속토(屬土)론을 하면 안 된다’는 난관에 봉착해 조공제도와 조약제도가 충돌하면서 근대 외교협상에서 구유의 번속 관계를 보전할 방법을 모색해 왔고, 조공 책봉의 전통적 관계를 ‘합법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해 왔다.

VI. 황준헌의 외교론

1. 대일관

1) 일본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

황준헌은 류큐 병합을 통해 일본이 중국을 향한 탐색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일본이 새 정치를 추진하면서 급속히 강해지면서 영토 확장 의욕도 급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 측은 영국의 세 섬으로 자신에 비유하지만 자강(自强)을 도모하고 비록 자수(自守)라지만, 실제로는 약소(弱小)에서 점차 강대해져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포부다.”[134] 그리고 황준헌은 류큐 사태의 심각성이 조선과 대만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데 있음을 예리하게 알고 있었다. “류큐가 멸망하면 조선에까지 이를 것이다.”[135] 조선 문제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류큐 사건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는 꽤 식견이 있는 강경파의 입장을 보였고 대일 담판에서도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류큐 담판 당시 중국은 러시아와의 이리 사건 교섭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다. 황준헌은 일본의 공갈을 거부하고, 특히 중일조약과 통상규약 개정을 거부하며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관세 혜택과 영사재판권을 획득해 청 정부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황준헌은 “이는 일본이 류큐 사건을 계기로 조약을 바꾸려는 것이다. 류큐 남쪽의 여러 섬을 중국에 할양하고, 우리가 서방에 허락했던 내륙 통상, 영사재판 및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는 그 조항들을 일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을 구원하느라 자기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방 사람들은 부유하여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내륙으로 내려가 간혹 비단과 찻잎을 사고, 그들은 도의를 중시하고 작은 이익을 가벼이 여겨 그

134) 黃遵憲.『日本國志·書』. 台北:文海出版社, 1974, pp. 4-246.
135)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卷8, 商務印書館, 1921, pp. 3~4.

런대로 괜찮다. 일본과 우리는 땅이 가깝고 종류가 같으며 문자도 같고 일본 사람이 대부분 가난하고 그 성이 탐욕스러우며 함께 허락해 준다면 그치지 않고 계속 와 보따리를 들고 오거나 가게를 차리고 그들은 종가세 5%의 관세를 납부하는 이외에, 그것의 반, 즉 2.5%를 납부하면 지방 통과세를 과세하지 않는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가벼워 서민의 생계를 전부 빼앗을 것이다. 일단 일이 생기면, 즉 영사가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방종하여 그들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법률적 차별이 있다. 백성들은 관리가 자신을 남보다 못 대하는 것을 보면 원한이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복병이 클 것이다.[136] 그는 하여장에게 거듭 이해를 말하고, 하여장 대신 상소문을 기초하여 청정부에 올렸다.

1878년 12월 14일, 황준헌은 일본의 우인 이시카와 고사이 (石川鴻齋) 와 필담하면서 류큐 문제를 언급하자 황준헌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류큐는 근래에 귀국의 소인배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류큐가 우리나라를 500여 년 동안이나 복속시켰는데 구원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준헌은 일본 통치자의 류큐 병합 시도를 비난하였다. “도둑질하는 쥐와 도둑질하는 개처럼 얼마나 수치스러운가!”[137] 즉, “북도(北島), 중도(中島)는 일본, 남도(南島)는 중국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 이전에는 중국과 맺은 계약서에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다른 조약국들과 이익을 골고루 나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 내용을 조항에 가입하려 한다.”[138] 류큐를 실제 지배하고 “이익을 골고루 나눈다”의 불평등 조항을 얻으려는 의도였다.

그해 10월 『류큐 특별안 초안』, 『가약 초안』, 『인환증 초안』에 가서명하고 양국이 최종 서명하고 효력을 발휘시키기만을 기다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들끓는 가운데 황준헌의 견해는 한 마디로 정곡을 찔렀다. 그는 “남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일본과 우

136) 『人境廬集外詩輯』附錄 부록.
137)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卷8, 商務印書館, 1921, pp. 2~6.
138) 黃紅秀.清史幾本言[M].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pp 86

리는 땅이 가깝고 종류가 같으며 문자도 같고 일본 사람이 대부분 가난하고 그 성이 탐욕스러우며 함께 허락해 준다면 그치지 않고 계속 와……서민의 생계를 전부 빼앗을 것이다 ……남에게 땅을 베어 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기타는 여전히 보존할 수 있다. 만약 생계가 날로 어려워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혈이 날로 마르고 가냘프고 메말라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가 이 방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내륙 통상을 허락하고 영사재판 및 이익을 균등하게 받아 일률적으로 누릴 것"을 더욱 반대했던 것이었다. [139]

일본이 이미 류큐 군도를 점령한 사실에 대해, 황준헌은 하여장에게 책략을 바쳐, 청정부에 상소하였다."이 남부 제도는 중국에 속해 있는 것을 어서 성명하여 서양 제국이 류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다음 류큐 국왕 친족을 찾아 남부 제도를 다스리게 하고, 중국 운남(雲南), 귀주(貴州) 등 지방의 소수 민족의 세습 족장 제도 와 일체하게 한다면 우리는 류큐의 땅을 탐하지 않을 것이며, 그 류큐 국왕도 자기의 지파를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니, 지금은 거기에 관리를 둘 필요도 없고, 또한 난처할 것도 없다."[140] 류큐 남부는 중국 영토임을 선포하되, 운남, 귀주 지역의 세습 족장을 대하는 제도로 류큐 왕을 대우하고 류큐 왕에게 중국이 토지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충분한 통치권을 주자는 뜻이다.

그러나 황준헌 등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리 위기를 빨리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 강화하고 러시아를 방어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지동(張之洞)은 "러시아인들은 멀리 와서 일본을 믿고 후방으로 삼는데 속히 일본과 연락하여 그들이 의논하는 상무건은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일찍 허락하며, 일본이 중립하여 러시아와 서로 돕지 아니면, 러시아의 세력은 스스로 저지될 것이다."[141] 이홍장도 "이쯤 되면 일

139) 陳錚,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黃俊憲全集 (下卷) 』[M]. 北京: 中華書局, 2005: 90-1575.
140)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 2. '復總督辦論爭球事書'.
141)『清朝外交史料』卷22. pp.10.

본에서 물러난 셈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142] 러시아에 집중하기 위해 외교담당 총리아문은 중국이 일본을 너무 심하게 거부하면 일본은 더욱 러시아를 맺게 된다. 이 방안은 류큐를 보존하고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인데 할 만한 책략이다."[143] 이홍장은 이 사건에 대해 천진에 남아 있는 류큐의 유신 상덕홍(向德宏)에게 "남도가 메말라 류큐인이 얻어도 자립할 수 없다. 류큐왕과 그 세자를 일본은 다시 돌려주지도 않는다."하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그도 "섬을 나누는 방안"에는 이견을 보이지만, 지연책을 주장했다. "마침 러시아와의 충돌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이때 마구 요구하는데, 그것을 허락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거절하면 적을 하나 더 만들게 될 텐데, 다만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일본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일이 해결된 후 류큐 사건이 처리하면 당연히 힘이 집중되어 세력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총리아문은 1880년 10월 일본 대표들과 '류큐 전문 조약'과 조약 증가'조항을 협의하였다. 두 조항에 따르면 일본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때 중-러 간 이리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홍장은 러시아와 화해하고 일본을 제압하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일본에 많이 양보해도 일본이 우리를 도와 러시아를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본에 손해 보고도 러시아에 손해 보고, 차라리 러시아에 조금 양보하고 러시아 덕분에 일본에 위압을 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144] 이홍장은 "중국은 류큐 왕실과 국토의 존립을 중요시하며, 완래 류큐의 땅을 탐하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 전의 조약의 변경에 대해 상의해서, 만약 류큐 왕이 석방되면 중·남 두 섬을 가지고 한 나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그 이해득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 마지못해 허락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은 그 이익을 누리고,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입으며, 내륙 지역 이익까지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일본은 류큐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145]고 말하였다. 이홍장

142) 吳汝綸. 1921, pp. 25-27.
143)『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1, 故宮博物館, 1932, pp. 9-10.
144)『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1, 故宮博物館, 1932, pp. 9-10.

이 “내륙 지역 이익까지 잃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황준헌이 기초한 상소문의 영향을 받았다.

이홍장의 반대로 청정부는 총리아문과 일본 특사가 합의한 류큐 특별조항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였다. 일본 사신 시시또 타마키 (宍戸璣)가 귀국하면서 “중국은 스스로 전의 조약을 포기했고, 앞으로 류큐에 대해 아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중일 양국은 몇 차례 교섭을 거쳤으나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류큐 교섭이 실패한 후에도 황준헌은 하여장과 만회책을 논의하였고, 하여장과 같이 상신서를 작성하여 총리아문에 보고하고, 중국이 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를 연락하여 일본을 제압하고 류큐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총리아문에 올린 공문에는 “서양제국은 유리하면 따라가고 해로우면 피한다. 통상 이래로 반드시 성의를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나 미국은 우리와 친선을 도모한 이래, 시종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우리를 위한 그 열정은 다른 나라보다 낫다. 영국과 러시아 양국는 해상에서 패권을 쟁탈하고, 아시아 대국은 모두 우리나라의 친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두 중국을 잘 맺으려는 마음이 있다. 일본에 이득을 볼 것이 없어, 모두 멸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 통상에 지장이 있으니, 영국·독일 등 각국도 이에 부화뇌동하여 나와서 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먹어 견지하면 류큐는 보존할 수 있고 평화스런 국면을 보존할 수 있다.”[146] 황준헌은 또 중국은 태평천국이 진압된 이래 “사(士)는 모두 전쟁을 맡았고, 원공(遠攻)은 비록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겠지만 가까운 데서 수비하는 것은 충분하다. 일본의 모든 병선을 조사한 결과는 겨우 자아방위를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병사의 장관조차 부족하고, 화기, 무기가 부족한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일본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내버려두면 일본은 더 방자한 요

145)『清朝外交史料』卷22. pp.6.
146)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구를 할 것이고, 내일은 조선을 가지려고 하고, 후일은 계약을 바꾸자고 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 땅을 빼앗고, 10년도 안 되어, 변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호랑이를 길러 화를 입히듯, 일본 내정이 점차 안정되고 국고가 풍부해지며, 병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 나라가 모두 이익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세력을 날로 외롭게 하고, 저들의 세력을 날로 횡행하게 하므로 그때 되면 조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류큐뿐만 아니라 조선, 대만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147]

황준헌은 "오늘의 시세는 종횡무진하며 내부의 반란을 평정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려면 실력으로 육해군을 정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병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을 것"[148]이라고 말했다. 청나라 정부는 군사적으로 위축되어서 안 되었다.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 때, 『선바오(申報)』,에 청정부에 류큐를 보위할 것을 호소하는 글이 있었다. "류큐는 일본에 병합되고 중국은 결코 묻지 않으면 일본인의 기세는 더욱 세지고, 담력은 더욱 커진다. 동쪽을 정복한 후에 이어서 서쪽을 침범할 것이다. 조선을 휩쓸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때 심양(瀋陽), 요녕(遼寧) 각 성이 어찌 베개를 높이 하고 걱정 없이 잘 잘 수 있겠는가?"[149] 대중 여론은 국방 차원에서 일본이 장차 조선과 중국의 동북 3성을 노리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류큐를 중국 장벽으로 삼아 진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홍장은 류큐 소국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짧은 평안을 얻으려 하고 마치 장기할 때 차를 버리고 장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바다에 인접한 류큐를 버리고 육지의 조선과 본토를 지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황준헌이 하여장을 위해 쓴 '조선 사무 및 일본 국정서'에서 대일 강경책을 주장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세아의 대국을 보면 일본과 우리가 으레 한통속으로 연결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 양보하고 일본

147)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48)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49) 議厚屛藩以固根本[N]. 申報,大清光緖己卯 4월8일.

도 우리를 얕잡아봐서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일본을 의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날로 일본의 침략을 조장하기보다는 일본의 국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틈을 타 그 모략을 굽히고, 그 기운을 꺾고, 우리와 밀접한 이해관계 를 가진 나라들과 연합하여 일본의 끝없는 환난을 없애야 한다."[150]

요컨대, 황준헌은 일본에 대한 비타협 입장의 고수해왔으며 류큐·조선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아시아 국제정세와 중국의 장기적 이익 차원에서 지적한 것은 전략적으로 원대한 견해였다. 그러나 청정부의 나약한 타협으로 일본의 류큐 병합은 사실로 드러났다. 황준헌이 우려했던 '호랑이를 키우면 화를 초래한다'는 것과 변란이 거듭될 것도 사실이 되었다.

2) 만국공법의 수용과 적용

만국공법은 청에 서양 국제법을 체계적인 형태로 소개한 최초의 서적 이라 할 수 있다.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용어의 유래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0년 寧波로 건너와 포교 활동을 시작한 미국선교사 마틴(W.A.P. Martin, 중국명 丁韙良=丁韙良)이, 1862년부터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초판 1936)를 중국어로 번역에 착수하였다.[151] 이 소식을 접한 청 정부는 4명의 總理衙門章京으로 하여금 마틴의 번역 작업을 돕게 하여 1864년 만국공법으로 완성하였다. 만국공법은 300부 인쇄되어 고위 관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

그 제목을『만국공법』(萬国公法, 1864)이라고 붙였던 것이 그 유래이다. 비록 이 책이 미국인에 의하여 번역되었지만, 동아시아에 소개된 최초의 국제법 서적이었으며, 그 이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유럽공법의 수용과정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

150)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和朝鮮事件討論及日本國情書』,

151) 청 정부에서도 마틴에 대해 "마테오리치처럼 중국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자"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籌辦夷務始末(同治)27, 26면 참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 질서가 깨진 것은 일본의 굴기에서 시작됐지만 그 종말은 조선 문제 중심이었다. 류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류큐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청정부는 일본이 류큐를 침탈한 후 교섭을 할 때에도 현황 유지, 양쪽에 속함, 조인(調印) 회피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류큐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조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미 류큐의 교훈을 받은 황준헌 등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구의 근대 외교 규칙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황준헌은 1970~80년대 동아시아의 구도 변경을 맞아 기존의 조공제도가 무력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류큐를 중국과 일본에 동시에 속하도록 쟁취했지만 결국 안 되었다는 것은 좋은 예였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구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황준헌은 '구장(舊章)'을 어떻게 약간 바꿀 것인가'에 대해 서구식 외교관계 모델에 맞춰 전통적인 종번 관계를 수정하고,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관계를 서양식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로 '합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나라가 류큐를 대하는 것이나 조선에 대하는 것은 절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전체이고 이는 또한 전통 조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류큐 사건을 거치며 번속 보호에 실패했던 청 왕조와 외교관들은 기존의 전통 책봉 조공 관계를 근대 조약제도의 언어 환경 속에 방치한 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다.

동아시아 세계의 조공국이 서양 조약체계의 속국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황준헌은 이러한 서양의 개념을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그 적용의 목적은 조선을 서양식 속국으로 개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구의 힘에 의해 개입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페이정칭(費正清)의 표현대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제도는 굉장히 느슨한 관계이고 중화제국의 힘이 강할 때나 청나라 말기에 쇠락할 때나 조공관계는 모두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조공국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류큐 교섭 때 '양쪽에 속한다는 것을 복원'하자고 호소하는 것부터 조선

문제에 대해 '주지조선외교를의'를 건의하는 것까지 황준헌의 대외사상은 겉으로 서방 조약체제로의 '접근'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서구 조약제도와 차별화된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조공제도는 일본의 도전으로 와해되고 종식될 운명에 처했지만, 여전히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황준헌이 마음속의 일본에 대항하고 서방조약 체제에서 약육강식의 힘 대비 관계를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3) 경일(輕日)에서 사일(師日)로

어려서부터 엄격한 봉건 가정교육을 받은 황준헌은 고염무(顧炎武)·황종희(黃宗羲)·왕선산(王船山)의 '경세치용(經世治用)'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고염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152] "천년 미증유의 변국"에서 태어난 황준헌의 사상 전환은 시국만큼이나 기복이 심했다. 류큐 사건는 그의 사상 전환의 중요한 유인물이었고 류큐 교섭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은 대략 일본을 얕잡아 보는 것부터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것까지의 과정을 거쳤다. 황준헌은 처음에는 다른 만청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청나라 왕조를 천조상국, 일본을 '서복(徐福)이 일본으로 건너간' 결과로 중국 전통문화의 '미망인'으로 보았다. 그는 『일본잡사시』에서 "진나라 남녀 3000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넜는데, 해외에는 하늘과 땅이 따로 있다. 일본 황실의 신기(神器)인 거울(八咫鏡)과 옥새는 입봉전(笠縫殿)에서 영원히 전해지는데, 신선으로부터 받은 것(사실 모두 진나라 양식)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153]

또 "더 이상 외적을 물리치는 논조는 꺼내지도 마라, 동서는 원래 한집안이다. ..... 어디나 다 똑같은데 일률적으로 대중화에서 오지 않은 것은 없다. [154] " "이런 머리와 이런 복부를 가지고 여정에 올랐는데 이

152) 鄭海麟 ,《黃遵憲傳》。北京:中華書局,2006, pp.13.
153) 鍾淑夏 ,《世界叢書·日本雜史詩光州·史東略略並攝·史東詩錄》。壯士:嶽麓敘事 1985, pp.58-592.

여행은 정말 기이할 따름이다. 여러분은 내 신발 끝이 뛰어오르는 것이 안 보였는데 나는 부상(扶桑)에서 발에 묻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호호탕탕한 바람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나는 배를 타고 동방 원정에 갔다. 제왕의 사자가 일본의 세 섬으로 건너왔고, 황제의 은혜가 비영(裨瀛,규슈 안팎의 바다)을 비추고 있다.”[155] 황준헌은 일본을 출사하는 것을 ‘발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것’이나 ‘동방 원정’으로 보았다. 중화(大中華), 부상(扶桑), 비영(裨瀛) 등의 용어는 동아시아의 모태문화(母體文化)의 전포자(傳布者)를 자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의 은혜를 입고 일본 세 섬에 출사하였다. “온 성에 햇빛이 붉은 깃발을 비추고 있는데, 신무(神武)가 그 때 이 기초를 닦았다. 막 장목재로 진나라의 난을 평정하고 또 의관으로 한나라의 예의를 차렸다. 중원의 옛 종족은 멀리까지 전해져 사방이 한집안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것은 기이하게 여긴다. 이 땅의 백성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온종일 난간에 기대어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시는 더더욱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네 편의 시는 각각 부임 직전과 부임 도중 쓴 것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과 일본 문화에 대한 내려다보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황준헌의 애초 태도는 ‘일본을 얕잡아 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외교사절단의 정사이 하여장과 부사인 장사계는 일본에 대한 태도는 그와 조금 달랐다. 하여장의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중요하고, ‘대조 고사를 하고 광범위하게 고찰하며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사동술략』에 이런 구절이 있다. 득실의 집단, 평탄하고 험난한 곳, 천시와 인사의 성쇠는 대조 고사를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요령을 찾기 어렵다. 시간을 들여 사물의 전말을 자세히 탐구하고, 진위를 잘 알고 구별하여 자세히 기록하며, 그것을 거울로 삼고 참고하는 것이 사절이 본래 해야 할 일이다.”[156] 반면 장사계는 때로 수구적인 입장에서 일본 유신을

154) 鍾淑夏 1985, pp.58-592.
155) 鍾淑夏 1985, pp.58-592.
156) 鍾淑夏 1985, pp.58-592.

비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역복색(易服色, 복장을 바꾸는 것.)' 이라는 시에서 '머리를 추형의 상투를 트는 것은 천 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양보하였네. 이는 마치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사람처럼 꾸미는 것과 같다. 또 복장을 바꾸는 것은 개 꼬리를 담비 꼬리에 잇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남을 모방하는 것은 남에게 웃음거리를 더할 뿐, 자기 본래의 뿌리를 잃게 된다. 요즘 일본인들은 모자 벗고 절하고 예전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과 같지 않네." 라고 하였다. [157]

이에 비해 황준헌은 하여장의 객관적 중립도, 장사계의 보수적 배척도 아닌 둘 사이의 경시라는 점도 황준헌 태도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주일 참사관 시절 황준헌은 왕타오(王韜,『신바오』편집, 저서 『류큐조공고(琉球朝貢考)』, 『류큐향귀일본변(琉球向歸日本辨)』)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그중에서도 류큐 사건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이 같은 서한들을 해석해 보면 그의 사상 변화의 파장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 그는 일본 사회의 현달한 인사들과 비교적 폭넓게 교류했지만, 그의 눈에는 류큐 문제에 있어서 일본 문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 열흘 전 『여야신문』에서 류큐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후일 누군가는 그를 호응하여 우리나라를 헐뜯었다. 우리는 웃어넘겼을 뿐이지만 누군가 수다를 떨고 시비를 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158] 황준헌은 1879년 일본이 류큐를 폐번시키자 '류큐가'를 썼다.

"메이지 정부는 방금 류큐 사절에게 연회를 베풀었으나, 얼마 후 류큐국을 일본의 번으로 격하시킨 조칙은 속보로 류큐를 보냈다. 류큐 사절을 도쿄로 불러들였을 때 류큐와 우호관계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류큐를 폐지하고 현으로 설치'했다. 한탄스러운 것은 결국 류큐 왕이 메이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죄수를 호송하는 배를 타고 도쿄로 끌려갔을 때 온 종족이 일본에 동행해야 할 정도로 아무도 저항하

157) 鍾淑夏 1985, pp.58-592.
158) 陳錚, 2005 pp 90-157.

지 못했다. 류큐는 지세가 험하고 주민의 위세가 대단하기로 유명하지만, '류큐를 폐지하고 현으로 설치'한 후 류큐의 왕이 권력을 잃었고, 지금은 신하의 경멸까지 받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슈리성 인근의 어원이 일본군에 접수된 뒤 물살이 흐르고 붉은 낙화가 물 위에 드문드문 떠 있는 모습이 한없이 처량하다. 주인을 잃은 수도성에는 지금도 대청황제로부터의 조칙이 걸려 있고, 주자금인봉지에 봉인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주인을 잃은 슈리성에는 지금도 대청황제로부터의 조칙이 걸려 있고, 주자금인(朱字金印)봉지에 봉인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책봉의 사절을 맞은 영은정(迎恩亭) 주변은 파초 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지나가던 노인들조차 류큐의 멸망에 울음을 터뜨렸다. 류큐 관헌에 걸린 깃발에는 중화풍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옷차림과 비녀, 관대는 여전하다. 촉나라의 두견새는 밤낮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는다. 춘추시대 때 구욕새가 노국에 날아왔는데, 그 울음소리는 노소공(魯昭公)이 타국에서 고난을 겪다 객사할 것을 예언하는 것 같았다. 이미 멸망한 류큐를 부흥시키려 해도 진나라 귀족 가부(嘉父)와 같은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에서 성을 내린 쇼타이(尙泰) 일족도 망국 후의 은칠족(殷七族)처럼 메이지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저항할 힘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관청의 통제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는데 수차례 고향을 멀리하고, 타향을 방황하며 가족을 찾는가? 북극성처럼 먼 북경에 살고 있는 대청 천자는 류큐인의 구조 요청을 들을 수 없다. 류큐의 복국은 동해의 물이 말라도 불가능하다. 그랜트 전 미국 대통령이 고귀한 신분으로 중일 양국의 중재에 직접 나섰지만, 탁상공론처럼 소용이 없었다. 현재 중류와의 관계는 매년 류큐 난민이 중국으로 떠돌 때 연안의 관리가 조정에서 전통적으로 류큐 난민을 구하고 구휼하라는 명령에 따라 조정에 올라가 류큐인을 우대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159]

이 시는 류큐와 중국의 조공과 종번의 관계를 추소하고 류큐국의 불행을 한탄하면서도 일본의 횡포를 고발하였다. 이후 류큐 사건을 둘러싼

159) 陳錚, 2005 pp 90-157.

교섭에서 황준헌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적대국으로 취급했다. '각서사건'이 나오자 의견이 분분하고, 황준헌은 이를 아는 사람으로서 왕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각서가 무례하다며 격한 언사를 철회하라는 의견이 많다. 이 일은 본래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만 사건이 합의 후 서로 조회를 철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일본이 반드시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의 진부하고 무식한 사람이 도리어 문자로 화를 불러올까 두려워하여, 그들과 논쟁할 수 없다. 일본은 류큐를 멸망시키려고 한지 오래되었고 우리 사자는 류큐의 조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쟁취함으로써 류큐국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원래는 명을 받들어 처리한 일이었는데, 이를 군기처(軍機處)에 상달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발단한 것이었다. 이 중의 곡절은 국외자는 깊이 알 수 없다."[160] 황준헌은 일본이 스스로 도리를 알고 일부러 구실을 붙여 중요한 것은 피하고 지엽적인 것을 채택하여 침략 야욕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류큐 분쟁 초기에는 사자와 외무경이 여러 차례 의논하였다. 그들은 고집이 세서 공문을 보내 변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일에 대해 스스로 도리에 어긋한 것을 알고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일을 일으켜 우리의 처음 각서 표현이 과격하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 그들은 본래 이것으로 지연하고 수다스럽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지만 그의 경세지책(經世之策)은 천자에게도 들리지 않고, 국내의 고리타분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못소리'에도 대항하지 못한다. [161] 1880년 중일 쌍방이 북경에서 회담했을 때, 황준헌은 매우 걱정했다. "높은 궐정을 우러러보니 내 마음도 수심에 잠겼다."[162] 그는 당시의 정세를 잘 알고 있었다. "류큐 사건은 모두 아시아 대국이다. 그쪽은 국내 우환이 매우 깊어 우리에게 자주 간구하는 것이다."[163] 10월 13일 편지에서는 북경 평화회담에 주일 사신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

160) 陳錚, 2005 pp 90-157.
161) 陳錚, 2005 pp 90-157.
162) 陳錚, 2005 pp 90-157.
163) 陳錚, 2005 pp 90-157.

한 불만과 내국인의 외교력에 대한 실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그들이 무지몽매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사신을 북경으로 파견하여 전권으로 회담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 대사관에서조차 모두 참의를 할 수 없는데, 국외에서는 물론 더욱 참의를 할 수 없다. 만국공례는 모두 사신이 전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복건(福建)의 제군이 중국의 천백 년 전 소진(蘇秦), 장의(張儀)가 유세의 예를 인용하여 오늘 이 일에 사용하려 하는데 외교는 이렇게 막연하니, 정말 가소롭고 불쌍하구나!”[164]

황준헌은 내국인에 대한 희망이 없어 일본으로 눈을 돌렸고, 일본측 협상대표인 시시또 타마키(宍戸璣) 임행 직전 시 한 수를 증정하였다. “최근 해금을 개방하여, 기회를 틈타 많은 영웅들이 모여든다. 맹세용 기구에는 맹서가 들어 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전함을 날린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나라 사이의 도의는 화평에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안다. 당신이 지금 사절을 지냄으로써 대대로 가문의 명성이 성대하다. 당신은 박학하고 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를 쫓는다. 동행한 두세 분도 모두 재능이 있다. 당신은 과실을 메울 수 있다면, 서적에 당신의 공로를 새길 수 있다. 오늘 당신을 보내니 갑자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다. 중국에서 멀리 일본을 돌아보면 햇빛 아래의 그림자는 대부분 흐릿하다.”[165] 시에서 중일은 이해관계가 밀접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시또 타마키(宍戸璣)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가 과실을 메우고 류큐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뒤의 두 구절에도 그의 시시또 타마키(宍戸璣)에 대한 의심이 드러나 희망이 희박해 보인다. 이는 호랑이에게 고기 달란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일 담판을 하는 동안 황준헌은 감정과 사상이 복잡했고,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공갈을 한 것도 밉지만 국민들이 외국 일에 관해서는 무지했다. 그는 “중국의 사대부는 외국 일에 대해 막막하다. 옛날 요나라 군주가 송나라

164) 陳錚, 2005 pp 90-157.
165) 陳錚, 2005 pp 90-157.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국사는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일은 너희가 모른다.'고 하였는데 지금 중국과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66] 그들은 동쪽으로 이웃한 일본에 대해도 모두 "가까이 바다만 끼고 있지만 마치 열 겹의 안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167]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열강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류큐 사건 외에도 일본 메이지 유신 이래의 풍토와 민정과 전장 제도를 다룬 『일본국지(日本國志)』를 저술했다. "일본과 서양의 일을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다"는 취지였다.[168] 이때 그의 일본으로 배운다는 사상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황준헌은 1877년부터 1881년까지 14곡의 『근세애국지가(近世愛國志士歌)』를 썼는데, 주로 일본 메이지유신의 영웅 인물을 칭송한 것이다. 예를 들어, "네 나라의 위업을 능히 알 수 있고, 오직 님만이 시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시는 사쿠마 쇼잔 (佐久間象山)을 칭송하는 것이고, "대장부는 뜻이 사방에 있으니 어찌 함거 안에서 죽으랴. 만약 칠생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면 중국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는 요시다 쇼인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단순히 일본 유신지사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출된 십 수 명을 뽑아 시로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다. [169] 이를 보면 그가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태도는 애국심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1880년 봄 황준헌이 하여장에게 '주지조선외교의'를 작성하여 총리아문에 올렸는데 본서와 이홍장의 중시를 받았다. 얼마 후 그는 조선이 도쿄에 파견한 수신사 김홍집을 만나 『조선책략』을 작성하여 모색해 주었다. "현재 조선의 급선무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인데 러시아 방어책은 어떠한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170]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국내로 가져오자 조선의 군신은 이를 중시하고, 의견이 엇갈

166) 陳錚, 2005 pp 90-157.
167) 陳錚, 2005 pp 90-157.
168) 陳錚, 2005 pp 90-157.
169) 陳錚, 2005 pp 90-157.
170) 陳錚, 2005 pp 90-157.

려 두 파로 갈라졌다. 후에 이 『조선책략』은 일본에 전해져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조선책략』은 조선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대외 개방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총리아문에서 하여장 등을 소환하려 하자 황준헌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도(王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생은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아, 『일본지』를 급히 탈고하려고 하였으나, 걸핏하면 하공(하여장)과 밤낮으로 이 일을 토론하곤 한다. 이 책은 대략 현재의 일을 상세하게 썼고, 고대 일은 간략하게 썼으며, 최근의 일은 상세하게 썼고, 이전의 일은 간략하게 썼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너무 많고 방대하여 쉽게 정리할 수 없다. 바쁘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친구들이 왕래하는 것은 대부분 사양한다. 하지만 올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책이 거의 다 완성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를 주장하며, 설사 깃발을 내려놓고 절교하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류큐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일본은 국고가 비어있고 나라가 하약하며 감히 다시는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입국복군(立國復君)을 원한다면 사절 철회와 상인의 동맹 파업 없이는 대항할 수 없다."[171] 강한 애국심에 힘입어 황준헌은 열심히 일본에 대해 배우고, 일본을 알아보고, 외사를 책으로 만들었다.

어쨌든 황준헌의 대일 사상은 하여장, 장사계 등에 비해 훨씬 탄력적이었다. 허여장, 장사계 등과 달리 황준헌은 대일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수용·인정하고 메이지 유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일본은 유신 이래로 모든 정령의 연혁, 제도의 손익, 아침에 공포한 법이 저녁에 바뀌고, 달이 다르고 해가 다르다. 메이지 12년까지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규모가 비교적 정해졌다. 그러나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적지 않다."[172] 황준헌이 『일본국지(日本國志)』를 쓰고 나서 시를 지었다. "호해(湖海)에서 돌아왔지만, 호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천(憂天)의 뜨

171) 陳錚, 2005 pp 90-157.
172) 黃遵憲. 『日本國志·範例』, 上海古書出版社, 2001, pp. 4.

거운 피가 언제 용솟음칠까? 이 책은 일본의 『오처경(吾妻鏡, 일본의 역사책)』을 참고로 하였다. 인경려(人境廬, 황준헌의 거처)의 사방 벽에는 모두 그림이 걸려 있다. 제도를 바꿔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이 책은 내가 스스로 『황서(黃書, 왕부지王夫之의 정치평론책』로 비유한다. 몇 년째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의 악천후, 닭 울음소리가 코앞에 다가왔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쳤다. 눈물을 흘리며 등불의 심지를 돋워 스스로 진퇴하였다.” 『일본국지』의 완고는 그의 일본으로 배운다는 사상이 정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초기 개량파의 설복성(薛福成)은 『일본국지』에 대해 “기작인데, 수백 년 동안 이런 저작은 드물었다.” 173) 황준헌의 『일본국지(日本國志)』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유위(康有為)는 『일본변정고(日本變政考)』에서 일본의 ‘3직제(三職制)’, ‘태정관제(太政官制)’, ‘학제(學制)’에 대해 설명했는데, 『일본국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고증이다. 양계초는 『가응황선생묘지명(嘉應黃先生墓誌銘)』에서 『일본국지』에 대해 진일보하여 평론하였다. “선생님은 고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일본국지」는 40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20년 전에는 일본이 두려워할 줄 몰랐으나, 이 책은 이미 일본유신의 효험이 판명되고, 일본이 강해지면 먼저 그 충격을 받은 자를 우리 중국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후에 선생님의 말씀이 다 효과가 있사오니 선견에 유복하심이로구나.”174) 청정부도 황준헌의 일본으로 배운다는 사상을 진지하게 본받았고 광서황제는 황준헌과 『일본국지』를 충분히 긍정하였다. 그는 무술변법(戊戌變法) 이전에 두 차례나 옹동화(翁同龢)에게 『일본국지』를 진상하고 하였는데, 읽고 깨우침을 받아 “사병을 훈련하고 병기만 연마하면, 강해질 수 없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근본을 중시하는 데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 175)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일본을 아는 데 있어서 모두 황준헌보다 못하다”고 말했다.176) 황준헌은 근대 중국 “일본으

173) 黃遵憲.『日本國志·書』. 台北:文海出版社, 1974, pp. 4.
174) 黃遵憲.『黃遵憲集 (下)』, 天津:天津人民出版社, 2003, pp. 800
175) (清)趙爾巽.『清史稿』, 北京:中華書局, 1977, pp.545-14625.

로 배운다”는 사상을 처음 제창했다고 할 수 있다.

2. 아시아 부흥론

황준헌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글에서 종종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근세초기에 일본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서양인의 저작에 접하여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갔고, 아시아라는 지리적 범주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아시아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마테오 리치의『곤여만국전도』[177]를 통해서였다.[178]『곤여만국전도』의 5대주설및 지구설(地球說)에 의해 일본의 전통적 세계관인 삼국관과 불교적 수미산설(須彌山說)은 변경되었고 마테오 리치의 세계상이 수용되어 그 이후 일본인의 세계인식을 규정하는 하나의 원형이 되었다.[179] 청이나 조선과 비교할 때 일본이 그 세계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180] 비록 중국인들 또한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일본에서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다.

일본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아시아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 중반, 일본과 중국이 서구 세계와 접촉한 이후부터이다. 즉 만국공법이 강제적 수용과 적용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서양세계에 연결하고 편입시킨[181] 상황에서 시작했다. 유럽에서 생긴 이 말이 동아시아에 들어

---

176) 黃延纘,『我國近代中日文化交流的先驅黃遵憲』, 廣東文史資料, 1963, (29):174.

177)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는 1602년에 예수회 이탈리아인 신부 마테오 리치와 명나라 학자 이지조(李之澡)가 함께 만들어 목판으로 찍어 펴낸 지도로서, 가로 533센티미터, 세로 170센티미터이며, 〈리치 지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묵와랍니가(오세아니아+남극)를 나타내고 있고, 각지의 민족과 산물에 대해 지리지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역사적인 설명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려졌고 동해의 일본 쪽을 일본해, 태평양 쪽은 소동양이라고 표기하였다.또 타원형의 세계지도 바깥에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모습, 아리스토 천체 구조론에 의한 구중천설, 일월식도, 천지의도 등이 그려져 있다. "아시아" "일본 해" "적도" 등 유럽의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178) 三谷博 "'아시아'개념의 수용과 변용 , "渡邊浩 • 박충석 (공편),『한국 • 일본 • '서양'』(서울:아연출판부,2008), p201

179) 山室信一,『思想課題としてのアシア-基軸 • 鎖 • 投企』(東京:岩波書店,2001) ,p207

180) 같은 책, p.210

181) 장인성,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근대한국의 경험과 관점",

올 당시에는 유럽에서 바라 본 동방 전역을 가리키는 잔여개념으로 쓰였고, 한자문화권 사람들은 그것이 공허한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182]라고 요령있게 정리한 바 있다.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는 중국과 외교 또는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거의 없었다. 각 조공국들은 개별적으로 종속국이라는 신분 인정을 받아들이며 중국과 사대관계[183]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속국 간 동맹 관계 금지와 중국에 대한 순종 방침은 이들 국가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시켰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공동체 의식의 발달을 저해했다.[184]

1871년 일본의 중국과의 조약 제안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위치에 대한 도전이었다. 일본의 요구를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안휘성(安徽省) 한 보수파 관리는 중국이 속국인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다면, 나머지 조공국들도 이를 따라 하게 되면서 조공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일본이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그의 인식은 틀렸지만, 그의 주장은 중국 중심 세계의 논리와 일치한 것이었다.[185]

반면에 이 조약을 옹호하는 자들은 느슨한 고삐 전략으로 야만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186]또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일본과 조약체결을 찬성한다.

1) 이홍장과 황준헌의 아시아 인식

일본과 조약체결을 주장한 이홍장은 일본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정 치사상연구』 9, 2003, p.123

182) 三谷博 "'아시아'개념의 수용과 변용 , "渡邊浩 • 박충석 (공편),『한국 • 일본 • '서양 '』 (서울:아연출판부,2008), p189

183) 동주 이용희는 사대를 현실적 사대관계라는 사실의 면, 사대의 제도라는 면, 사대주의라는 가치관으로써 사대관계를 정당화하는 사상과 이념의 면이 있다고 하였다. (각주 42번 참고). 장인성은 이를 원용하여 각각 현실적 사대(사대정책), 제도적 사대 (조공책봉), 이념적 사대(사대주의)라고 하였다. 출처: 장인성, "중화체제와 '사대': 한 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2), 2014

184) Banno Masataka,Kindai Chugoku seiji gaikoshi,pp.76-78.

185) 『안회 총독 잉한 기념집』 (TC9/J10/26) Ch'ing-tai ch'ou-pan I-wu shi-mo (북경,1930) III 79

186)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하면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요(柔遠人則四方歸之), 그리하여 제후를 포용한다면 천하가 모두 노나라를 경외할 것입니다(懷諸侯則天下畏之)-『중용(中庸) 416』(21) 제20장(4): 수신으로 열어 수신으로 닫는다

일본이 서구와 반중국 동맹을 맺는 것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일본은 중국의 순응을 강요하기 위해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구와 유대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략적 이유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물론 이홍장은 서방의 침략이 상호 원조 때문에 저지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홍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와 다른 협상가들이 그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들은 서양인들이 자신들(일본)과 조약을 맺도록 강요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며 서양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한다. 일본은 서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중국과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홍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187] 그런데도, 이홍장은 외교의 원칙대로 일본의 이중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숨기고, 이 조약에 양국이 제3국과의 분쟁에 연루될 경우 상호 도와줘야 하는 조항을 첨부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그 조항이 서구 열강에 의해 잘못 해석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이홍창은 고수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홍장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들의 지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더 큰 목적은 일본이 중국과 서방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이홍장과 대조적으로, 황준헌은 아시아에 평화와 위신을 가져다주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진정으로 지지했다. 그는 모든 아시아 민족이 서구인들의 침략으로 고통받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미래의 굴욕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시아를 일으켜라"라는 생각을 높이 샀다. 그가 육군사관학교 개교기념일에 아리스가와 다루히토(熾仁親王) 왕자에게 바친 시는 일본의 근대화 군대에 대한 감사와 아시아의 번영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예전부터 아시아의 이웃들, 중국과 일본은 협력해야 한다.

187) 『黃遵憲 紀念集』, in ibid.,79,47-48.

맞물리는 두 톱니바퀴처럼

아니면 한팀이 되는 두 명의 사냥꾼

한 명은 사슴의 뿔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뒷다리 잡듯이 말이다.

우리는 모두 부와 권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설 때, 외부인들의 조소는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기뻐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원대한 평화 속에서[188]"

황준헌은 일본의 근대화를 자랑스러워했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 업적을 칭찬했다. 이는 중국의 어린 동생 정도로 간주되었던 작은 나라에 대한 동정심에 기반했다. 동시에, 그는 일본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황준헌이 일본에 있는 동안, 초기 범아시아주의 단체 중 하나인 흥아회를 조직하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이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의존하도록 지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다. 흥아회의 주요 조직자인 소네 토시토(曽根俊虎)는 중국에서 서구의 영향력을 관찰한 후에 황준헌의 흥아회 조직을 지지했다. 소네는 요네자와 출신의 전직 사무라이로 해군 장교였다. 그는 1873년 외무성 소에지마 다

188) Huang,"Lu-chun kuan hsueh-hsiao k'ai-hsiao-li ch'eng-fu ch'eng Arisugawa Taruhito ch'in-wang(On the anniversary of the army officer's School, I composed a poem to delicate to prince Arisugawa Taruhito), JCLST,p.87

네오미(副島種臣)의 호위로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의 임무는 비준된 중일 우호 조약의 사본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2) 아시아 부흥론의 주요 내용

이처럼 황준헌이 일본을 출사하는 동안 그 아시아관의 모태가 이미 초보적으로 나타났다. 그가 쓴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와 『일본국지(日本國誌)』에서는 비교적 일찍 그의 아시아관을 서술한 적이 있다. 후에 꾸준히 보완하여 무술유신을 전후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의 아시아관은 아시아의 역사적 조우, 상통하는 문화, 현실적 운명, 인종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황준헌의 아시아관은 개략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요점이 있다.

첫째, 그는 아시아의 부흥에 대한 믿음, 특히 중화민족의 부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황준헌은 아시아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서 문물이 항상 1위"라고 생각했다. 다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아시아 고대 문명의 나라가 모두 타족에게 침범당했다."[189]고 말했다. 서방으로부터의 외래 침략이 아시아의 쇠락을 가져왔다. 그는 "유럽 부강법이 최근 아시아에까지 퍼진 이상 공자와 맹자의 학설은 앞으로도 반드시 유럽에 널리 퍼질 것이다."[190]고 지적했다. 아시아 부흥은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흐름으로 앞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중국 부흥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하였다. "국력의 약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남의 약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중국의 4천 년의 역사, 4억 명의 언어 풍속에 의지하여, 한 명의 성자와 많은 명달한 학식에 의지할 수 있다." [191] 그는 서학을 힘써 배우고, 그 바탕 위에 세계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는 중국 문화를 세운다면 중화 문명의 재흥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화민족의 부흥도 멀지 않다고 생각했다.

둘째, "경계를 없애고 선입견을 버리자."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손잡고 아시아를 진흥시켜야 한다. 아편전쟁 후, "영국·프랑스 등 서구 열

189) 陳錚,『黃遵憲全集：上冊』, 北京 , 中華書局, 2005, pp. 287.
190) 陳錚。2005, pp. 717.
191) 黃遵憲, 『黃遵憲集：下卷』, 天津人民出版社, 2003, pp. 495.

강들이 아시아를 침범하여 중국과 중국의 이웃 나라들을 노리고 있다."[192] 서방의 중국에 대한 침략 정도가 날로 가중되었다. 서방의 세력이 동쪽으로 침략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여러 아시아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끊임없이 침범당했다. '서방 제국이 날로 억압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마주하여 황준헌은 아시아 각국이 더욱 친밀해져 공동으로 서방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황준헌이 보기에 아시아는 황인종의 아시아이며 아시아인들은 아시아를 부흥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아시아 각국이 힘을 합쳐 외적을 물리치고, 독립적인 지위를 쟁취하며, 나아가 아시아 전체를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근래 서구의 세력이 크고 아시아가 허약하여, 아시아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서구식 민주주의자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다. 이를 위해 '균세지법(均勢之法)'과 '합군의 길(合群之道)'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황준헌은 강대한 이웃 나라들이 주위에서 엿보는 정세를 불안하게 여겨 아시아 각국이 열강의 활동을 경계하며 아시아 각국이 특히 서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날 만국을 보면 전국보다 더 종횡무진 싸우고, 열국들이 사방에 총총 분포되어 무사를 지키려면 반드시 약함도, 강함도 없이 서로 유지해야 한다."[193]고 지적했다. 지금 구미 열강이 아시아를 바짝 압박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 함께 강적에 맞서야 한다. 황준헌은 "합군의 길은 독립에서 시작돼 자치에 이어 군치(群治)까지 이어지는데 그 안에 공덕이 있고, 힘이 있고, 선법(善法)이 있다."[194]고 주장했다. 그리고 열강의 처지에서 벗어나 독립함으로써 "모두 독립할 수 있고, 자치할 수 있으며, 군치(群治)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지(民智)를 높이고 민권(民權)을 인도하여 국민의 공덕(公德)·국가사상(國家思想)·권력의무(權務)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 각국이 자립자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러시아에 저항하자며 특히 '중·

192) 陳錚, 2005, pp. 123.
193) 陳錚, 2005, pp. 254.
194) 黃遵憲, 2003, pp. 506.

일·조 3국 연합'을 강조했다. 19세기 중기 경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보이콧에 밀려 서아시아로의 확장이 좌절되자 침략의 창끝을 동쪽으로 돌렸는데 먼저 공격을 받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제2차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잇따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광범위한 영토와 기타 권익을 잃었으며, 중국 국민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다.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 주변 인접국으로의 확장과 침공으로 아시아인들의 격렬한 반발과 불만을 초래했다.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아시아 국가의 급선무가 러시아 방어라고 절규했다. 왕도(王韜)가 "지금 천하의 형세를 보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일이다. 지금 러시아는 전국시대의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호랑이나 늑대와 같아 사실 오늘날 아시아 최대의 환난이다."[195]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시 청나라 내부에서도 상당수의 관료가 이를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황준헌이 1880년 쓴 『조선책략』은 일본과 조선과 연합하여 러시아에 저항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조선책략』에 "조선은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인데, 러시아를 방어하는 책략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여 자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196]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글은 황준헌이 개인 명의로 조선 정부에 일본과 연합하여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중국과 일본, 조선 3국은 물론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 러시아와 서방의 침략을 막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이 책략은 동아시아 지정학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청나라 정부의 동아시아 문제 접근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청정부의 외교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일본과 조선 두 나라가 이 책략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 결국 이 책략은 주장에 그치고 무산됐다.

넷째,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식 제도를 배워 변법 자강함으로써 피식민과 피노역의 지위에서 벗어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황준헌은 10여 년의 해외 주재 대사관 근무 경험으로 서양 열강의 아시아인에 대한

195) 王韜, 『漫遊隨錄·扶桑遊記』, 長沙』湖南出版社, 1982, pp. 201.
196) 陳錚, 2005, pp. 251.

강제 노역 상황, 특히 중국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아시아 각국이 호랑이 입에 있듯이 위험하다” 즉 '만국공법의 의의'에 대한 제한적인 인정 하에서 '유교관념의 적극적인 투사를 통해 권력정치에 무력한 만국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육강식과 전쟁상태의 국제질서를 변혁하려는 것'[197]이라는 인식에서 황준헌은 변법하여 자립하지 않으면 망국멸종의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변법 자강하여 외욕을 막아내는 구국 사상과 서양제도를 배우고 변혁을 실행하는 내용은 전후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기물에 국한된 것에서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3) 아시아 부흥론의 변모

황준헌의 아시아관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청일전쟁을 경계선으로 삼아 그의 아시아관을 전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탐구함으로써 그 변화의 궤적을 파고들 수 있다.

청일전쟁 전 황준헌은 전통적인 이하(夷夏, 오랑캐와 중국) 관념에 얽매여서 서양의 아시아 침략이 ‘이이변하(以夷變夏)’로 중국의 ‘천하 종주’의 지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서양 각국이 나날이 강대해지면서 점점 흑인과 황인종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198]는 탄식을 내뱉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강대화는 황인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황백인종 간의 투쟁을 강조하며 서양 열강과 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인종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당시에 연대론이 공통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지리', '인종', '문화' 등 요소[199]를 고려 한 산물이라

197) 장인성은 당대 조선인이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원리적 이해로써 만국공법의 존재의의와 자연법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 둘째는 현상적 이해로써 만국공법의 현실적 질서원리와 실정법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 셋째는 만국공법의 허구성을 간파하여 그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경우, 넷째는 만국공법의 의의는 인정하되 유교관념의 적극적인 투사를 통해 권력정치에 무력한 만국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육강식과 전쟁상태의 국제질서를 변혁하려는 경우이다. 출처: 장인성,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 200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24

198) 黃遵憲, 2003, pp. 95.

할 수 있다. 근대 서양의 세력이 점차 침투한 중국은 “국세가 쇠퇴하고 인종이 천박하다.” 황준헌은 중국이 인도·터키 등 아시아 국가들과 운명을 같이할 것을 매우 걱정했다. “세상 사람들은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백인종과 황인종으로 나눈다. 흑인 노예는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은 황량하고 먼 남쪽 지방에 가 본 적이 있다.”[200] 그래서 그는 중국의 개혁과 변법하여 강해지기를 절실히 바랐다. 일본의 침략과 약간 좀 늦을 때의 열강의 분할 소동으로 인해 중국이 망국멸종 위기에 처하자 황준헌은 “큰 변혁이 아니면 중국을 구할 방법이 없다”라며 “민족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랜 인종적 편견을 버리고 근대적 민족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민족의 힘으로 열강을 막아내고 아시아의 약소민족이 연합해 제국주의 강권에 반대하자고 주장하였다.

황준헌 후기 아시아관의 눈에 띄는 변화는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고, 이러한 변화는 청일전쟁의 참혹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청일전쟁 전 황준헌이 일본과 연합하는 것과 일본을 방어하는 두 가지 사상이 교차하는 양상이 있었던 것도 일본에 대한 인식의 모순성을 보여주었다. 황준헌은 중일 양국이 “다 아시아에 자리 잡고 고대부터 우호적인 이웃이었다. 양국의 관계는 볼과 입술, 또는 벽과 모서리의 관계와 같다. 각자 부강하면 서로 보필할 수 있다. 동류가 분발하면 외부의 위협은 서서히 사라지기 마련이다”。[201] 중일 양국은 일의대수를 끼고 있고 문자와 인종이 같으니 함께 외적을 막아 아시아 진흥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황준헌은 “일본 유신의 효과는 성공적이었고 일본이 강해지면 먼저 그 충격을 받을 자는 우리 중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 그러나 청나라 정부의 일본을 연합하여 러시아를 억제하는 외교 사상에 좌우되어 또는 중·일 우호의 대승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그는 일본에 대한 대비심이 느슨해지고 중·일 우호를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러시아의 동쪽 확장에 자극받아 중일 양국은 민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나 대립보다는 협력 쪽

199) 장인성,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4, 2000, p.124
200) 黃遵憲, 2003, pp. 223.
201) 陳錚, 2005, pp. 95.
202) 黃遵憲, 2003, pp. 801.

에 기울고 주일사로 근무하다 관참찬의 황준헌도 예외가 아니었다.

1880년대 초, 일본은 여전히 일본의 군사력 특히 해군과 그 경제적 자원이 중국에 비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880년대 초에는 낭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범아시아적 견해를 밝힌 일본인들이 평등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형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1894~1895년의 청일전쟁 이후가 되어서야 일본 내에서 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일본의 임무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확립되었다.

1882년 서울에서 일어난 임오군란 항일항쟁 이후, 일본인들은 아시아 내 이웃 국가들과의 형제 관계에 대한 희망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1882년 이후 나타난 한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은 일본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임오군란은 중국과 조선,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일 관계의 전환점이었다. 청 정부는 종속국의 '대내외 정책 불간섭'이라는 전통적 관습을 벗어나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조선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 후에 일본 국내에서 아시아 내 이웃 국가들과의 형제적 협력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줄고, 일본은 서구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일본은 1885년까지 탈아론(아시아에서 떠나)으로 공식화되는 국가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주요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황준헌은 1882년 임오군란 몇 달 전에 일본을 떠났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던 시기, 즉 서구를 모델로 한 제국주의 정책으로의 이행기에 일본에 체류했다. 이 짧은 과도기 동안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지배를 종식시킬 진정한 협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황준헌이 중일 협력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하였다.

청일전쟁 후, 청정부는 일본과 주권을 상실한 치욕스러운 『마관조약』을 체결하여, 국민에게 일본에 대한 원한을 불러일으켰다. 황준헌도 일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토로했다. "새 조약은 이미 정해졌으니 천지개벽이다. 동남의 여러 성과 200여 년 동안 연락하여 울타리로 삼아 왔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네. 뼈를 두드려 골수를 빨듯이 이 거금을 잃고 또 일본인은 중국에 기계를 설치해 상품을 만들어 우리 생업을 빼앗는다.” 203)

이런 국세에 맞서 그는 “시국을 구하기 위해 오직 혼신의 힘을 다하라”라고 호소했다. 중일 양국의 분쟁은 그를 일본을 배척하는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배우겠다는 신념을 굳혔다. 황준헌은 이홍장 등의 러시아를 연합하여 일본을 억제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현재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사유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일본을 본받아 유신 변법으로 자강하고 망국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의 역사도 이를 증명하였는데, 황준헌의 뛰어난 식견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황준헌은 "아시아 부흥"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일본이 아시아 협력의 이상에 부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국과 류큐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일본이 기존에 주창했던 협력적 기조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청나라 정부에 보낸 한 공식문서에서 황준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의 양보는 일본의 무시로 이어졌다.” 그는 비상시에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점점 더 중국에 대해 더 탐욕스럽고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호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황준헌은 일본의 국력이 강화되기 전에 일본의 오만함을 타파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일본이 류큐를 침략한 것이 작은 욕심이나 이익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을 경시하는 것으로 서양에 대한 강한 찬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방에 대한 찬사와 중국에 대한 경시가 1945년까지 일본의 행동방침이 되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멸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과 일본의 위압적인 자세가 서구에 대한 문화적 재편성의 결과라는 것도 황준헌

203) 陳錚, 2005, pp. 350-351.

이 예리하게 관찰하고 지적한 바이다.

요컨대 황준헌의 아시아관은 국가 간 지위가 평등하다는 이념으로 타국을 대하는 등 전통적인 종번관념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전통적인 화이 국제관을 버리고 근대 서방의 국제관계 규범을 점차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부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국제화가 강화되고 아시아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황준헌의 아시아관을 되살리는 것은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가 크다.

VII. 황준헌과 청국의 외교정책

1) 류큐와 조선에 대한 인식

황준헌은 류큐 문제에 대해 '류큐삼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류큐 문제를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1878년 5월에 이홍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실제로는 내우외환이라 감히 함부로 변경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만약 일본인이 류큐를 폐멸시키도록 내버려둔다면 "일본인은 류큐인을 병사로 훈련시킬 수도 있고, 류큐인을 몰아내 강도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변방의 재앙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홍장은 류큐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랐다. 이홍장은 이날 황준헌에게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류큐는 방촌의 땅으로 외롭게 해외에 나가 있으며, 중국에서 멀고 일본보다 뒤떨어진다. 춘추 시대에 위(衛)나라인이 형(邢)나라를 멸망시켰고 거(莒)나라인이 증(鄫)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제(齊)나라와 진(晉)나라는 비록 강대했지만, 이 일에 관여할 수 없었다." 비록 이웃을 환난에서 구제하려 하였으나 지세는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었다."[204] 이로 인해 이홍장은 류큐가 방촌의 땅일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멀어져 전략적 지위가 조선에 비해 훨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또한 중국이 류큐의 조공을 받는 것은 "원래는 큰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며, 만약 "위력으로 승부를 가려 작은 나라의 공물을 쟁탈하고 헛된 명성을 위해 힘을 쏟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205] 일본인과 논쟁할 때, 중일 양국의 1871년 『중일수호조례』의 "이후 중일 양국은 화목하게 지내며, 양국에 속한 국토는 조금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면 되었다. 이홍장은 하여장이 제기한 류큐삼책에 대해 6월 9일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서한에서 "병선을 보내 일본을 문책하거나 류큐인과 그들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확정한 것이나 모두 하찮은 일을 요란스레 처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를 당황하게 할 것 같다."[206]며 하여장의 삼책에 찬동하지 않음을 나타냈

---

204) 왕운생 『60년 동안 중국과 일본:1871년 동치(同治) 조약부터 1931년 9.18사변까지』. 생활·독서·신지 삼련서점, 2005년, 158쪽.
205) 왕운생 2005년, 158쪽.
206) 왕운생 2005년, 159쪽.

다. 또 말하기를 : “류큐는 외진 곳에 있는 것이니 우리나라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곳이다. 만약 일본의 욕망은 한이 없어 조선까지 침범하려면 우리가 어찌 좌시할 수 있겠는가?”[207] 다시 한 번 류큐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군사전략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과 류큐는 비록 함께 청나라의 조공국에 속하지만, 둘의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청나라가 서로 다른 군사적 전략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청나라 정부는 조선을 더욱 중시하여 조선을 중국 동삼성의 차단막으로 여겼다. 황준헌은『조선책략』에서도 특히 조선의 전략 지위를 설명하였다: “지세는 맞닿아 있고, 중국의 수도를 호위하는 것은 마치 왼팔과 같이 고통과 환난을 함께 하는 것과 같다. 베트남은 우리와 거리가 멀고 미얀마는 외진 곳이라는 점에서 조선은 이들과 거리가 멀다. 향자 조선에 일이 생기면, 중국은 반드시 천하의 급료를 조달하고 천하의 힘을 다하여 쟁취할 것이다.”[208] 그 중요성은 다른 조공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여장은 사신으로 일본에 나가 있는 기간에 쓴『조선외교의』의 첫머리는 바로 이렇게 썼다: “조선 한 나라는 아시아 요충지에 있으며, 서북 여러 국경은 길림과 봉천(豐天)과 인접하여 중국의 왼팔이 된다. 조선이 존속하면 바깥으로는 대양을 방위하고, 안으로는 황해, 성산, 부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성원하며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조선이 망하면 우리의 왼팔이 끊어지고 울타리가 다 철거되어 후환이 끝이 없을 것이다. 천진이나 상해에서 수천 리 이내로 직통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도의 문호는 더욱 견고해지고 북양 일대에는 막힐 걱정이 없다. 서양 국가들은 조선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터키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대청은 동쪽에서 일어난 후, 먼저 조선을 평정한 후 명나라를 토벌하였다. 강희·건륭조에 이르러서는 조선에 관한 무슨 일이든 청나라는 다 들어 알고 있었다. 거의 내륙 군현과 다를 바 없다. 베트남은 우리와 멀고 미얀마는 외진 곳이라는 점에서 조선은 이들과 차이가 크다.[209] 류큐는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조선처럼 수도를 수호할 수 없으니 청나라의 전략상 굳이 방촌의 땅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이홍장 등이 류큐를 경시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청나

207) 왕운생 2005년, 160쪽.
208)(일)伊原澤周 2008년,307쪽.
209) 溫廷敬.『茶陵三家文鈔』『何少詹文鈔』, 文海出版社, 38~39쪽.

라가 류큐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타협 태도를 초래하였다. 1874년에 일본군이 대만을 침범하여 중국 해안 방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였다. 같은 해 11월 총리아문에서 『海防亟宜切籌武備必求實際疏』(해안 방비 절실히 필요하고, 조달 시 반드시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소)를 상정한 후 정일창(丁日昌)은 후에 『해방조의』(海防條議)와 『해군수사규약』(海軍水師章程)을 상정하였고 청정부가 해방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이때 변방도 침범 당해 청정부 내에서 해방과 변방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이견이 생겨 이홍장으로 대표되는 '해안 방어'파와 좌종당(左宗堂)으로 대표되는 '변방 방어'파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듬해, 청정부는 매년 경비를 지출하여 10년 내에 북양, 남양, 복건 세 수군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1880년에 이홍장은 독일의 철갑선 두 척을 주문하여 북양 수사에 편입시켰는데, 이 두 척이 바로 유명한 진원함과 정원함이었다. 우리가 중국 해방의 건설과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류큐 문제 교섭 시기에, 마침 중국 해방 사상의 이론이 형성되고 있는 때에, 중국 해방은 이론에서 진정한 실천 시기로 향하고 있으며, 멀리 해외에 홀로 있는 류큐에 대해 청정부는 류큐의 진정한 전략적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류큐를 지킬 저력과 실력이 더욱 없었다. 19세기 80년대 이후에야, 일본이 조선을 침범한 위기에 직면하여, 청정부는 비로소 연해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해방군력이 생겼는데, 이 시기에는 이홍장 등의 해방 사상이 류큐 문제 때보다 훨씬 심각하고 적극적이었다.

2) 지연책에서 적극 대응으로

황준헌은 총서에 류큐삼책을 상정한 후, 외교 행동을 전개하여 각서 사건을 일으켰으나, 이홍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리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연합을 방지하려고 이토록 강경한 방법은 동의할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류큐 조공국을 잃지 않으려 하였으며, 후삼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서양의 사례를 본떠 토지를 변경하거나 금화를 배상하는 것을 허락한다."[210] 외국의 중정에 기대어, '분도 계약'의 방법으로 담판을 벌였는데, "이는 류큐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방어

210)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211)]" 그러나 청나라 정부의 대신 진보침(陳寶琛)은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우리가 류큐 사건을 가볍게 매듭지으면, 러시아인에게는 원용할 만한 전례가 생기고, 중국은 말문이 막힌다. 러시아가 출병하여 조선을 점령하면 끓는 물이 눈에 붓기는 듯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날로 핍박하고 있어 우리와 이해관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심복지환이다. 화는 조선에서 시작되지만, 중국의 변경은 더욱 위급하다."고 말하였다."[212)]

그는 청정부가 전력을 다해 러시아에 대처하기를 희망하며, 먼저 '지연법'을 채택하면 싸우지 않아도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홍장은 고심 끝에 "중국은 체통을 중요시하는데 일본과 이치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러시아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중국의 힘으로 당분간 동시에 둘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본인이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허락하면 크게 손해를 보고, 거절하면 적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 다만 지연시키는 방법만이 가장 적합하다."[213)] 청정부가 '분도 계약'은 반드시 황제의 친필로 비준하여 3개월 내에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성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연(遲延)법을 채택하여 러시아에 관한 소식을 듣는데, 만약 3개월 내에 중러의 일이 끝나지 않으면, 혹은 조정의 기한을 제한하거나, 조정으로 다시 넘겨 의론하도록 한다." 류큐 문제를 이렇게 지연시킨다.

앞서 1874년 일본이 대만에 출병한데 이어 류큐 사건까지 만들면서 일본의 야심은 점차 청나라 정부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류큐 사건'은 청나라의 대조선 정책 전환을 촉진하였다. 1879년 이홍장은 당시 조선 영의정 이유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귀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과 계약을 맺었고, 통상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로는 독으로써 독을 물리치고, 위험은 위험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기회를 타서 서방 각국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4)]"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이 귀국한 후 조선 국왕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왕은 '류큐국은 이미 복국되었는가?'라고 물었다. 김홍집은 '이 일은

211)『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2, 故宮博物館, 1932, pp.8.
212) 『清光緒朝 中日交涉史料』卷2, 故宮博物館, 1932, pp.15.
213) 孔昭明.『台灣文學史料總刊』第4集, 大同書局, 1984, pp 39.
214) 郭廷以, 李毓澍,『清朝中日關係史料』, 中華印書局, 1972, pp 366~369.

의문이 있는데 남에게 물어 본 적이 없으며, 듣자니 이미 그 국을 폐지하고 현으로 바꿨다고 한다.' "[215] 이를 보면, 조선 내부에서도 류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청나라가 류큐 속국을 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1882년 7월 23일, 13개월째 군비를 지급 받지 못한 조선 병사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켜 봉기 사병들이 조선의 관원을 살해하고 일본 사관을 공격하였고, 이미 권력을 잃은 대원군은 이때 세력을 회복하여 조선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

'류큐 사건'은 청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조선에 대한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임오군란'은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전례를 열어 속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천조상국의 조공 제도를 직접 바꾸면서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게 하였다.

『류큐삼책』와 『조선책략』에 나타나는 청나라 정부의 류큐와 조선의 외교 업무 추진 방법을 비교해보면 청나라 정부가 류큐보다 조선 외교 업무 해결을 위해 더욱 성숙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이는 조-일 내에는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고, 영향도 더욱 컸으며, 청나라 정부가 지연법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나아가게 된 본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였다.

황준헌은 『류큐삼책』을 제기한 후, 이홍장은 하여장의 각서 행동이 너무 강경하다고 여겼으며, 사건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류큐삼책』에서 언급하였듯이 "혹은 공법을 인용하여 각자의 사신을 요청하여 이치를 따지도록 한다. 일본인은 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줄 알고, 류큐인은 요행히 생존을 도모할 수도 있다"[216]고 하듯이, 외부의 힘을 받아 류큐를 보존하는 방법을 실현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이전의 중국 대외 관계의 각종 실천에서 취한 조치와 수단과 확연히 달랐다. 페이정칭(費正清)은 일찍이 중화제국 통치자가 대외 관계에서 사용한 주요 수단으로 군사 정벌, 행정 동화, 혹은 외면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두 가지 극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외교 관계는 '이것이 아니면 곧 저것이다'의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였다."[217] 이로

215)(일) 伊原澤周 2008년,324쪽.
216) 溫廷敬.『茶陵三家文鈔』卷2.'復總督辦論爭球事書' 1~5쪽.
217) John King 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부터 우리는 근대에 이르러 외세의 침입으로 조공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취한 조치라면 이미 이전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홍장은 『류큐삼책』의 하책을 채택하여 외국의 조정과 '분도 계약'의 방법으로 류큐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이홍장은 외국의 조정에 힘입어 류큐 문제가 청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분도 계약'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은 청정부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홍장 본인은 부득이하게 지연의 방법을 채택하여 분도 계약의 조정은 흐지부지 되었다. 조선 문제 때까지만 해도 『조선책략』으로 조선의 개항을 강력히 권유하던 상황에서, 이홍장도 계약을 주동적으로 권유하여 조미 통상 업무를 성사시키려 하였다. 그 후, 청정부는 조선과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류큐삼책』이 제시한 수동적 조정에서 『조선책략』이 제시한 자발적 계약에 이르기까지, 청나라의 대외 관계 실천에 커다란 변화를 반영하였다. 『류큐삼책』은 청정부의 '수동적 대응'을, 『조선책략』은 '능동적 해결'을 보여주었다. 하여장은 『류큐삼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다면, 대만과 펑호 열도 사이가 더 이상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나 이홍장은 일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 다시 '모란사 사건'을 일으켜서 그 행위가 갈수록 자행되었고, 이홍장은 크게 놀라면서, "국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여전히 부강한 방법이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교활한 책략으로 비용을 배상 받으려 한다. 그러므로 수년 동안 먼저 대만에 쳐들어간 후 조선을 도모하고, 또 류큐를 폐지하였다…… 이 때 만약 중국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면 분쟁을 일으키겠지만, 만일 내버려둔다면, 중국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니 반드시 욕망은 한이 없어 사방으로 출병하여 거칠 것이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218] 이홍장은 그제야 일본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고, 류큐 문제의 후퇴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조선책략』이 제출된 후, 조선 문제에 직면하여, 이홍장은 책략에서 말한 '연미국'의 방침에 매우 찬동하여 주일공사관(駐日公使館)을 통해

---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68. pp 12

218) 薛福成, 『庸庵文別集』卷4, pp124~125.

조선수신사 김홍집에게 조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도록 권고하기를 원하였고, 이것이 후에 『조미통상조약』을 성립시켰다. 『류큐삼책』이 제안하고 시행한 '수동적 조정'에서 『조선책략』이 제안하고 실현한 '능동적 계약'까지 청나라의 대외 관계 실천에 한 차례의 거대한 비약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3) 만국공법의 수용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01년 신축조약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열강들이 체결한 조약은 무려 306개에 달하였는데, 이 과정 역시 청나라 정부가 조약 관계에 대해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었으며, 서방 열강들은 점차 다양한 조약 관계로 중국에 하나의 조약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얻었다. 이홍장은 바로 조약 관계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전에 중국과 영국, 프랑스 두 나라가 세운 조약은 모두 먼저 전쟁을 치른 후에 화해된 것이었고 그들의 협박을 받으면서 속아 넘어갔으며, 체결한 조항은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았고 많은 조항들이 지구 공법을 위반하였다. 그 후 미국·독일 제국과 네덜란드·벨기에 등 소국들이 잇달아 중국에 와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중국은 외무상의 이해득실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이익이 두루 묻힌다는 조항을 조약 안에 다 포함시켰으며, 한 나라가 얻은 것은 모든 나라가 편안히 앉아서 향유하고, 한 나라가 요구하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여 이익을 도모하여 안정된 동맹을 형성하는 추세가 있다."라고 말했다.[219] 이는 조약 관계로 중국의 조공 체계를 지켜주기를 바랐다는 것이었다. 청나라 정부는 류큐를 잃은 위기 속에서 만약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조선이라는 중요한 속국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류큐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조선책략』의 출범을 상징으로 하여 청정부는 조선이 열강들과의 조약을 정식으로 권유하여 조선반도 내 열강 세력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선과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 관계로써 중조의 종번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러한 봉건사회에서는 종주국과 그 속국이 맺은 종번 관계

219) 『妥籌球案折』, 『李鴻章全集·上集』, 安徽教育出版社, 2008, pp198.

의 확립 및 강화에 관한 서면 협약을 번속 조약이라고 한다.[220]

1882년 5월, 청정부의 도움으로 조선과 미국은 인천에서 『조미통상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6월에는 영국, 독일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1884년 6월에는 러시아, 이탈리아가 조선과 조약을 맺었으며, 1886년 6월에는 프랑스가 조선과 조약을 맺었다. 1882년 10월 청나라와 조선은 톈진에서 『중조상민수륙무역규정』을 체결하였다. 조약에 "조선은 줄곧 청나라의 속국이었으며, 청나라의 책봉을 받았으며, 의례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의론이 필요 없다"고 쓰여 있다."[221] 중국 '천조상국'의 지위를 구현하고 서방 국가와의 특수한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약에서 또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 속국이었기 때문에, 수륙무역 규정은 모두 중국이 속국을 우대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었으며, 기타 각국의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는 범위 안에 있지 않다."[222] 이를 통해 청나라는 서방이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방지하였다. 이어 1883년 청나라와 조선은 『봉천과 조선변민무역규정』, 『길림조선상민무역규정』을 차례로 체결하여 조약으로 양국의 무역을 보장하고 청나라의 조선 무역에 대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였다. 1885년 중조 양국은 『중조전선조약』도 체결하였으며 조약은 의주(義州)의 전선을 중국 전력 부문이 가설·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청나라는 조약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조의 조공 제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조선에 있는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중조 조공제도에 대한 강력한 충격에 직면한 청나라 정부는 전통적인 조공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조선이 다른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근대 국가 간의 조약 체계를 빌려 중조 조공제도를 공고히 하고 중조 조공 제도를 조약 체계에 포함시키려 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천조상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제도와 근대 국가 사이에 세워진 조약 체계는 본래 서로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에 속하지만, 이례적인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속에서 이 두 가지 자체가 모순된 관계 제도는 묘하게 결합되었다.

---

220) 왕영. 『이홍장과 만청조약연구』, 호남사범대학 박사논문, 2010년, 88쪽.
221) 王鐵崖, 中外 舊約章 匯編(1卷), 三聯書店, 1959, pp404~405.
222) 郭廷以, 李毓澍, 1972, pp984~986.

청나라는 서양과 일본의 조공 제도를 향한 공격 하에 조선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근대적인 조약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고대 조공 제도를 수호하였다. 반면, 청나라는 조약 체계를 통해 조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중조 고유의 조공 제도에서 점점 멀어져 결국에는 조공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청나라의 대조선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이 두 가지의 전환과 격렬한 충돌 속에서 여지없이 보여준다.

강화도 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 정부는 조선의 종주국 청나라와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데, 1876년 일본 정부는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북경으로 파견하여 당시의 총리아문 대신과 교섭하여 청정부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 당시 대신인 심계분(沈桂芬)은 "조선은 비록 중국에 속하지만 일체의 정치와 종교의 금령은 완전히 자주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여태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223] 심계분의 태도는 당시 청나라 대권을 장악한 이홍장의 태도를 대변하였다. 청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표명한 것은 많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이유는 바로 예로부터 중국의 조공 제도에 편입된 속국이 천조상국에 대해 신복함을 표시하고, 중국 정부가 속국을 수유하는 것은 모두 내정 불간섭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소위 "이렇게 해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직 승복하지 않으면 인의예악(仁義禮樂)의 정치 교육을 다시 이수해 그들을 귀순하게 한다. 그들이 귀순하러 왔으니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한다."고 한다.[224]

두 번째 원인은 당시의 이홍장은 보수적인 정책을 더 많이 채택하였는데, 조선과 일본이 조속히 이 일을 해결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조선 정부에 비밀 서한을 보내어 작은 분개를 참으라고 권하고…분쟁을 그치고 서로 편안히 지내기 위한 계책이다."[225] 이홍장은 이 일로 인해 영국·미국 등이 중국 일에 개입할 구실을 얻을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의 구미 각국도 일본을 많이 지지하였다. 세 번째 원인은 당시 이홍장은 서양 각국이 중조 사이의 조공 체제를 인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의 대화중에 "조선은

---

223) 大久保利謙.『森有禮全集 第一卷』, 1981. pp127~139.
224) 孔子,『論語·季氏』,『季氏將伐顓臾』.
225) 吳汝綸.『李文忠公全書·史學年報·關於日本對朝鮮派遣使節的論議』卷4, 商務印書社, 1921, pp30~31.

중국에 몇 천 년 속했는데, 누가 모르겠느냐"[226]고 말한 것과 같다. 조일 간의 교섭과 담판의 결과는 중조 간의 조공 제도를 흔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일본공사 모리 아리노리는 일찍이 구미에서 유학하여 서양 근대 국제법, 조례를 익혔으며,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완전한 자주'에 대하여 점차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는 일본 정부에 상정한 보고서에는 "이른바 종속국은 유명무실하고, 조선은 완전한 자주 행정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공법』 및 구미 제국에 공인되어 있다"[227]고 썼다. 이것은 이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약』에서도 조선의 자주독립을 명문화하였는데[228], 구미 각국이 볼 때 국제법에 입각하여 조약에는 "조선국은 자주지국으로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여겼다. 영국 공사는 "서방 국가 인사들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 상태가 미묘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독립국인지 종속국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229]

중조 간에 수립된 조공 체제는 조약과 법률로 확립된 근대 국가의 대외 관계 앞에서는 서양 여러 나라들에 의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을 외교 이념으로 삼는 서양 각국은 청나라 정부가 말하는 속국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근대에 천 년 동안 없었던 변동에 직면하여 이러한 충돌은 더욱 뚜렷해졌다.

서양의 국제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230]으로,

---

226) 吳汝綸. 1921, pp36~38.

227) 大久保利謙.『森有禮全集 第一卷』, 1981.pp142~143.

228)『조일수호조약』 제1항: 조선국은 자주지국으로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229) Samuel F. Bemis, ed. The American Secretaries of States and Their Diplomacy, VIII(New York: Pageant Book Company, 1959), p 38

230)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미국의 기독교 장로회 선교사로, 자는 관서(冠西), 호는 혜삼(惠三)이다. 1846년 인디애나주 대학을 졸업하고 신올버니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연구하였으며, 1849년 장로회 목사로 서임되었다.1850~1860년 중국 닝보(寧波)에서 선교하였다. 그는 중국어를 잘 알고 방언을 잘 쓰기 때문에, 1858년 중미 담판 기간에 일찍이 미국공사 William Bradford Reed의 통역을 하여 『톈진조약』의 기초에 참여하였다. 1860년 귀국하여 Lafayette College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863년부터 북경에 정착하여 장로회를

그는 휘튼(Wheaton)의 저서 『만국공법』을 선택하여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에 소개하였다. 비록 처음에 중국의 대신들은 『만국공법』[231] 번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청나라 정부의 대외 담판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국제법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황준헌의 『류큐삼책』중의 하책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동의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 혹은 공법을 인용하여 각자의 사신을 요청하여 이치를 따지도록 한다. 일본인은 스스로 도리에 어긋난 줄 알고, 류큐인은 요행히 생존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홍장도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시 하여장이 공법상회의 각국 공사를 초청하여 대의를 분명히 하게 해야 한다. 각국의 사신들이 비록 우리를 도와 일본을 억누르지는 못해도, 일본인은 각 나라가 다른 마음 생길까 봐 류큐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다."[232]라고 생각하여 공법으로 사단을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류큐 위기를 처리하는 중에, 청정부는 이미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법을 빌려 외교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여, 청나라의 동아시아 외교 의식의 각성을 어느 정도 나타냈으나, 국제법에 대한 진정한 운용은 『조선책략』이 성립된 이후에야 한 것이었다. 1880년 조선방일수신사 김홍집과 주일 중국공사관의 필담 기록에는 "황준헌이 말하기를: 저의 졸견으로 귀하가 동경에 상주할 수 있다면, 반드시 국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세는 실로 4천 년 동안 없던 일이며, 요순우탕(堯舜禹湯) 등 선조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 옛 사람의 처방을 가지고 오늘의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총명함과 식견 때문에 장차 국사를 주재한다면 반드시 아시아에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미 아세아의 총체적인 의식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또 『조선책략』에서 "조선 입국은

창립하였다. 1864년 북경 동문관 영문 교습 초청에 응하였다. 1866년에 개봉에 가서 유대교의 재중유적을 답사하였다. 1869년에는 총교수로 승진하여 만국공법을 교수하고 서양어 저서를 번역하였다.1878년 임낙지 등과 함께 상해 성교서원을 설립하였다. 1898~1900년 경사대학당 초대 총교사로 부임하였다. 『신축조약』이 체결될 때 그는 각국이 중국에서 세력 범위를 획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2년 장지동(張之洞)의 초청으로 무창대학당(武昌大學堂) 만국공법교습(萬國公法教習)에 임명되었으나, 이 학당이 설립되지 않자 1905년 퇴임하였다. 1911년 장로회에 재입사하였다. 1916년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231) 본 글에서는 좁은 의미로써의 『만국공법』이라는 단행본이 아닌, 현대학자에 의해 체제·규칙·질서· 등으로 정의되는 넓은 의미로써의 '만국공법'에 주목한다.

232) 王芸生 2005, pp 160.

수천 수백 년인데, 이해관계를 잘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결정은 왕에 있고, 모략은 추부(樞府,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에 있으며, 시무(時務)를 중시하는 것은 조정에 달려 있고 오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은 사대부에 달려 있으며 분발하여 일어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는 것은 국민에 달려 있다. 그 길을 얻으면 강해지고, 그 길을 잃으면 망한다. 일념 사이의 일은 조선의 사직(社稷)과 아시아의 대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병에 이로운데, 어찌 위험한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겠는가?"[233] 조선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지향해야 자강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야 아시아 안정의 대세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조선책략』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 구도를 잘 본 건의문서로, 청정부가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또한 외교적 수단을 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 함으로써, 청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의식이 이미 각성되었음을 나타낸다.

233) (일)伊原澤周 2008,pp 315.

VIII. 결론

이 논문은 청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외교관 겸 문장가인 황준헌(黃遵憲)을 통하여 그의 대일본관과 외교 사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 하에서 중국 유교지식인들이 국제정치관과 주변국 지위의 변화에 인식에 주목하고자 했다. 황준헌은 청나라 외교관으로서 일본과 류큐(琉球), 조선 사건 교섭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황준헌의 일본 인식은 변화하게 된다. 이 논문은 황준헌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1877년부터 1882년까지, 연구 자료를『류큐삼책』과『조선책략』에 드러난 황준헌의 인식에 주목했다. 또 정치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역사적 기술방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황준헌의 외교사상의 특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류큐와 조선은 명청시대부터 줄곧 중국과 왕래가 가장 밀접한 조공국이었다. 둘 다 번속국으로서 중국에 조공하고 무역을 행하였으며, 중국-조선과 중국-류큐는 사대교린의 관계를 유지했다.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어 갔다. 조공과 책봉을 매개로 작동하였던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서양의 근대 국제법인 만국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질서로 변화되어 갔다. 즉 만국공법이 강제적 수용과 적용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서양세계에 연결시키고 편입시켰다.[234] 류큐와 조선은 모두 서양 열강,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침해를 당했다. 이는 청나라의 조공 체제가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 근대의 하여장, 황준헌 등 외교관들은『류큐삼책』(琉球三策)과『조선책략』을 제안하여 대처하였다.『류큐삼책』은 각서 사건과 외국의 조정 실현을 추진하였다. 조선수신사(朝鮮修信史) 김홍집(金弘集)의 필담을 통해『조선책략』은 조선에 소개되어 이를 통해『조미통상조약』(朝美通商条約)의 체결이 추진된다.

황준헌은 류큐 문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실상 중국을 향한 일본의 탐색 메시지였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급속히 강해지

234) 장인성,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근대한국의 경험과 관점",『정치사상연구』9, 2003, p.123

지면서 영토 확장 의욕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일본관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황준헌은 류큐 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에 비타협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황준헌은 이후 전통적인 유교 국제정치관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을 수용과 이용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을 얕잡아 보던 문화적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메이지 유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1880년 황준헌은 하여장과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를 상의한 뒤 조선이 일본 도쿄에 파견한 수신사 김홍집을 만났다. '조선이 개방하여 생존을 도모한다'라는 견해로 김홍집을 권유하여, 『조선책략』을 저술하였다. 조선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러시아를 방어하여" 스스로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을 권고했다. 황준헌은 러시아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고 일본과 동맹을 맺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수용과 인정하고 일본의 근대화와 군사력 강화 업적을 칭찬하였으며 일본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이는 황준헌이 저술한 『일본국지』에 반영되어 있다. 이후에 일본에서 "흥아 兴亚"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 공동체 의식을 내보였다. 당시 이홍장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들의 지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더 큰 목적은 일본이 중국과 서방 사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이홍장과 달리 황준헌은 아시아에 평화와 위신을 가져다주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진정으로 지지했고 초기 범아시아주의 단체들 중 하나인 흥아회를 조직했다. 그의 아시아 부흥론은 아시아의 역사적 조우, 상통하는 문화, 현실적 운명, 인종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황준헌의 아시아관은 개략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요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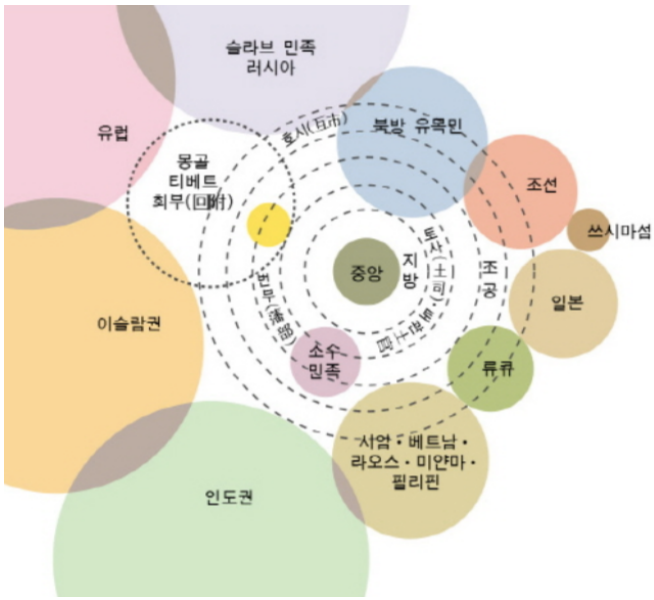
그리고 황준헌의 아시아관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청일전쟁 전 황준헌은 전통적인 이하(夷夏, 오랑캐와 중국) 관념에 집착하여 서양의 아시아 침략이 '이이변하(以夷變夏)'로 중국의 '천하 종주'의 지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민족의 힘으로 열강을 막아내고 아시아의 약소민족이 연합해 제국주의 강권에 반대하자고 주장하였다. 청일전쟁 후, 중일 양국의 분쟁은 그를 일본을 배척하는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배우겠다는 신념을 굳혔다. 황준헌은 이홍장 등의 러시아를 연합하여 일본을 억제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나려면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사유를 계속하여 사용할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일본을 본받아 유신 변법으로 자강하고 망국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준헌은 “아시아 부흥”을 지지했고 일본이 아시아 협력의 이상에 부응하기를 바랐지만 한국과 류큐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일본이 기존에 주창했던 협력적 기조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황준헌은 일본의 국력이 강화되기 전에 일본의 오만함을 타파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일본이 류큐를 침략한 것이 작은 욕심이나 이익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을 경시하는 것으로 서양에 대한 강한 찬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준헌은 국가 간 지위가 평등하다는 이념으로 타국을 대하는 등 전통적인 종번관념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전통적인 화이국제관을 버리고 근대 서방의 국제관계 규범을 점차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부흥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글로벌화가 강화되고 아시아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황준헌의 아시아관을 되살리는 것은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귀감이 크다.

마지막으로 대외 정책은 한 국가 또는 정부의 의지의 대외 표현 방식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西勢東漸) 하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변동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중국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과 태도 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동북아 국제정치의 형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으로서 ‘지정학(Geoplitics)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전적인 지정학의 시각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 전략, 19세기 동아시아에 있는 중일 경쟁과 오늘날의 미중 경쟁, 한중일 삼국협력 등을 설명하는 데 이 논문이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부록 1:



<그림 1>과 주변 세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개념도로 기준 시점은 청나라 시기이다.

출저:浜下版清朝華夷秩序概念図

참고문헌

1. 일차자료

1) 한국 측

『김홍집유고 (金集遺稿) 』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
『대청흠사필담 (大清欽使筆谈) 』

2) 중국 측

『清史稿』
『茶陵三家文鈔』
『人境廬詩草』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清季外交史料』
『日本國誌』

3) 일본 측

『興亜会報告・亜細亜協会報告』

2. 이차자료

1) 단행본

(1) 한국어

1. 장인성. 2002.『장소의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

코이 쇼난과 김윤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 황준헌, 김홍집 지음 ; 윤현숙 옮김, 2019,『조선책략·대청흠사필담』파주 : 보고사
3. 전재성. 2011.『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4. 이선근 1966『한국사韓國史 (현대편)』을유문화사
5. 송병기 1985『近代韓中關係史硏究 :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서울 : 檀大出版部
6. 강만길 지음 2006『고쳐 쓴 한국근대사』파주 : 창비
7. 전해종.1970.『韓中關係史硏究』. 서울 : 一潮閣,
8. 최소자.1997.『明淸時代 中·韓關係史硏究』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9. 김용구 ,1997,『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동양 예와 서양 공법』나남출판사
10. 이용희. 2017.『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고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 나미히라 쓰네오 지음 ; 윤경원, 박해순 옮김. 2019.『근대 동아시아 역사 속의 류큐병합 : 중화 세계 질서에서 식민지 제국 일본으로』. 과천 : 진인진
12. 말로제모프 지음; 석화정 옮김 2002『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캘리포니아판

(2) 영어

1. Samuel C. Ch, Kwang-Ching Liu, 1994, Liu Hung-Chang and China's Early Modernization, Routledge
2. Hosea Ballou Morse, Harley Farnsworth MacNair, 1931, Far Ea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Houghton Mifflin,
3. John King Fairbank,197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Late Ch'ing 1800-1911
4. John King Fairbank,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5. Kamachi, Noriko, 1981 Reform in China : Huang Tsun-hsien and the Japanese model ,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6. Howland, Douglas R 1996, Borders of Chinese Civilization: Geography and History at Empire's End ,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7. Kim Key-Hiuk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 Jerry. D. Schmidt 1994: Within the human realm: The poetry of Huang Zunxian, 1848-1905,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중국어

1.鄭海麟.1988.『黃遵憲與近代中國』.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方民. 2013.『李鴻章對朝政策研究』.延邊大學出版社
3.米慶余，1998.『琉球歷史研究』.天津人民出版社，
4.王承仁，劉鐵君.1998.『李鴻章思想體系研究』.武漢大學出版社，
5.王明星.1998.『韓國近代外交與中國』.中國社會科學出版社，
6.李慶.1999.『東遺墨一一近代中日文化交流稀見史料輯注』.上海人民出版社，
7.何慈毅.2002.『明清時期琉球日本關系史』.江蘇古籍出版社
8.王蕓生.2005.『六十年來中國與日本:由一八七一年同治訂約至一九三一年九一八事變』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9.陳錚.2005.『黃遵憲全集』.中華書局出版社
10.鄭海.2006.『黃遵憲傳』.中華書局
11.陳景彥.2006.『19世紀中日知識分子比較研究.吉林人民出版社
12.黃增章.2006.『陳志雄.傑出的詩人外交家:黃遵憲』.廣東人民出版社
13.謝必震，胡新.2010.『中琉關系史料與研究』，海洋出版社，

14.孟曉旭.2010.『漂流事件與清代中日關系』.中國社會科學出版社 ,
15.劉雨珍.2011.『清代首屆駐日公使館員筆談資料匯編』.天津人民出版社 ,
16.張禮恒.2012.『在傳統與現代之間-1626-1894年間的中朝關系』.社會科學文獻出版社 ,
17.米慶余.2013.『日本近現代外交史』.世界知識出版社

(4) 일본어

1.鹿守之助 1970『日本外交史第3巻一近降諸国及び領土間題』, 鹿岛研究所出版会
2.信夫清三郎 1942『近代日本外交史』.中央公論社
3.濱下武志著 1990『近代中国の国際的契機 -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 東京大学. 出版会
4.村田雄二郎先生.2004.『罕为人知的中日结盟及其他——晚清中日关系史新探 』巴蜀書社
5.西里喜行 2005 『清末中琉日関係史の研究』、京都、京都大学学術出版社
6.原田禹雄 2003『琉球と中国ーー忘れられた冊封使』、東京、吉川弘文館
7.佐藤三郎 1984『近代日中交渉史の研究』、東京、吉川弘文館
8.島田久美子 1963『黄遵憲』、東京、岩波書店
9.山城幸松, 金容権 2003『日本「帝国」の成立 : 琉球・朝鮮・満州と日本の近代』、東京、日本評論社
10.信夫清三郎(Shinobu Seizaburō),『日本外交史 1853-1972』, 毎日新聞社, 昭和49年, pp 186.
11.明治財政史編纂会.『明治財政史』第3巻.明治財政史発行所, 1937, pp.167~733. (인텃넷 자료)

2) 논문

(1) 한국어

1. 김시태,1963 , 黃遵憲의 朝鮮策略이 韓末政局에 끼친影響
2. 장인성, 2003,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한국정치사상학회 , 정치사상연구, Vol.9, p.117-143
3. 장인성. 2000.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국제정치논총』40권 4호.
4. 장인성 2003. "근대동북아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만국공론: 근대 한국의 경 험과 관점".『정치사상연구』9권.
5. 장인성. 2014. "중화체제와 '사대':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13권 2호.
6.이헌주, 2006,「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조선책략'의 도입」,『한국사학보』25.
7.함동주, 1997,'明治期 아시아주의의 아시아상',『일본역사연구』5.
8.김경일 , 강창일, 2000,「'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역사연구』8.

(2) 중국어

1.何芳川,1988.近代東方的沈淪和日本的起19世紀日中成敗的比較 世界歷史 ,
2.翁飛.2014.李鴻章的海防思想與海軍建設一一兩次海防大籌議過程探討.學術界 ,
3.李慶.1995.《琉球三策》作者考一再論黃遵憲的日本觀及他與李鴻章、何如璋的關系 覆旦學報社會科學版
4.陳峰君,1995 朝鮮半島的戰略地位及其發展前景.國際政治研究
5.王明星.1998.朝鮮政府的“決意外交”與《朝美條約》一一兼論《朝美條約》談判中李鴻章的角色錯位.韓國研究論從
6.張新革.1999.試論中俄《伊型條約》簽訂的國際、國內背景.伊犁師範學院學報 ,
7.李良玉.1999.侵台戰爭與吞並琉球一一近代日本“大陸政策”的初步形

成.阜陽師院學報
8.夏曉虹.黃遵憲與日本明治文化.學術界，2000年第1期
9.戚其章.2000.日本吞並琉球與中日關於琉案的交涉.濟南學報
10.夏曉虹.2001.黃遵憲與日本明治文化學術界
11.柳垠在.2001.黃遵憲的《朝鮮策略》對舊末政局的影響.北京大學
12.張雅晶.2001.何如璋日期間的外交活動歷史教學
13.謝必震.2002.明清士大夫與琉球福建師範大學學報
14.周典恩.2002.李鴻章與“球案”.井岡山師範學院學報
15.徐斌.2004.明清士大夫與琉球一以中、日、琉三國關系為中心.福建師範大學
16.魏明樞.2004.論黃遵憲的《朝鮮策略》.江西師範大學學報
17.賀琤.2004.琉球事件中的中國社會關於宗藩體制的論一以《申報》為主要考察對象.清史研究
18.蘭美琴.2005.《朝鮮策略》看黃遵憲的外交思想，零陵學院學報
19.黃俊華.2005.李鴻章的國際法意識與琉球宗主權的喪失.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學報
20.張君法，李健.2006.略論清朝與《朝美通商條約》，井網山學院學報
21.王瑛.2006.李鴻章與琉球宗主權的喪失.雲夢學刊
22.範春聽.2006.地緣政治視野下的琉球交涉.三明學院學報，
23.王營.2006.日本吞並琉球與清代中琉宗藩關系的終結.東北師範大學
24.錢文華.2006.清政府弱化琉球宗主權的歷史考察.中國邊疆史地研究，
25.蘭嵐.2007.試論中國近代海防思想的發展.理論界
26.張靜,吳振清.2007.黃遵憲《朝鮮策略》與近代朝鮮的開放.南開學報，
28.成其章.2007.李鴻章與中日琉球交涉.歷史教學
29.權赫秀.2007.關於黃遵憲《朝鮮策略》版本及其原文校勘.韓國研究論叢
30.宋慧娟.2007.論清政府與《朝美修好通商條約》的締結.吉林省教育學院學報，
31.朱莉麗.2008.從“球案”看近代初期中日外交理念的差異山東大學學報

32.潘曉偉.2009.俄國對朝鮮政策研究1860-1910.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33.戴東陽.2009.何如璋與早期中日琉球交涉.清史研究
34.鐘鴻昌.2010.清政府引導朝鮮開港策略研究.河北師範大學
35.朱法武.2010.外力沖擊下的中琉封貢關系研究.山東大學
36.孫玉風.2010.何如璋與日方琉球交涉.西安社會科學
37.王瑛.2010.李鴻章與晚清條約研究湖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38.高暢.2011.從琉球問題看李鴻章的海防思想.雞西大學學報
39.石少穎.2012.試論近代朝鮮對清朝政策的演變(1863-1905)青海社會科學
40.王希亮.2012.略論甲午戰爭前《中日修好條規》的簽訂及其波折.抗戰史料研究
41.楊邦勇.2012.亞洲視域下的琉球興亡史研究.福建師範大學
42.李細珠.2013.李鴻章對日本的認識及其外交策略一以1870年代為中心.社會科學輯刊
43.姬淩輝.2013.“琉球案”與黃遵憲對日認識之轉捩.華中師範大學研究生學報
44.萬紅軍.2013.東亞國際秩序的變遷與琉球題，華中師範大學
45.徐磊.2013. 清政府的對日情報收集研究(1871-1894).吉林大學，
46.郝群歡.2013. 近代朝鮮全面開港的決定因素新論.蘭台世界

(3) 일본어

1.平塚篤,1929 ‘日清間の琉球談判’.『明治文化研究』
2.佐藤三郎,1940‘明治维新以后日清战争以前における支那人の日本研究’.『历史学研究』,
3.佐々木扬,1985‘同治年间后期における清朝洋务派の日本论-李鸿章の场合中心として’『东洋史研究』, 第44卷第3号，
4.澤彰夫,1993,「興亞會の中國語教育」,『興亞會報告o亞細亞協會報告』, 不二出版.
5.黑木彬文,1993,「興亞會o亞細亞協會の活動と思想」,『興亞會報告o亞細亞協會報告』,不二出版.

Abstract

Huang Tsun-hsien's diplomatic activities and ideology

Focusing on『Ryukyu Samchaek』and『Strategy of Joseon』

YANG LI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will systematically examine the changes in Japan policy of a major diplomat and poet of the late Qing Dynasty, Huang Tsun-hsien (黃遵憲). The thesis concentrates on perceptions of Chinese Confucian intellectuals regarding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status of neighboring countries under

a shifting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s a Qing dynasty diplomat, Huang was in charge of negotiating with Japan on the status of Ryukyu and Joseon. Hwang Tsun-hsien's perception of Japan changed throughout these negotiations. This thesis focuses on Huang's perceptions, as revealed in *Ryukyu Samchaek* and *Strategy of Joseon*, with research materials from 1877 to 1882, when Huang was active in Japan. In addition, the thesis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Huang's diplomatic ideology by using historical and descriptive methods, with a focus on the political approach.

Ryukyu and Joseon were the tribute countries closest to China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Both of them sent tribute to China and carried out trade as vassal states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in the late 19th century, as the Western powers invaded inearnest,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was rapidly reorganized. As the traditional Chinese order collapsed,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was transformed into one governed by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the West. Both Ryukyu and Joseon suffered invasions from Western powers and Japan. This meant that the China's tributesystem was in jeopardy.

Facing such a crisis, modern Chinese diplomats, including Huang, responded by suggesting *Ryukyu Samchaek* and *Strategy of Joseon*. *Ryukyu Samchaek* led to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between Japan and China and the mediation of U.S. president Ulysses S Grant. Through the writings of Kim Hong-jip (金弘集), a minister of the Joseon dynasty(朝鮮修信史), *Strategy of Joseon* was introduced to Joseon and promoted thesigning of the Korea-U.S. Trade Treaty (朝美通商条約).

During this period, Huang Tsun-hsien's view of Japan changed as follows. First, Hwang maintained an uncompromising position with Japan, as seen in the Ryukyu case. However, he later developed his diplomatic ideology,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view of

international politics towards acceptance and use of international law. Subsequently, he shifted from the cultural centralism that looked down on Japan to the position that China should learn from Japan, when he saw the developments promoted by the Meiji Restoration. In *Strategy of Joseon*, he advised Joseon "to seek survival by getting closer to China, aligning with Japan, connect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defend against Russia." He also argued that Russian's aggression was a greater threat to the whole of East Asia, including Korea and China, and advocated for an alliance with Japan. He was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Renaissance of Asia" (兴亚)in Japan and began to use the term "Asia" in his later work, which shows a sense of Asian community. At the time, Li Hong zhang did not want Japan to become a branch of Western powers in Asia, but his greater purpose was to makeJ apan act as a buffer between China and the West. Unlike Li Hong zhang, Huang genuinely supported China-Japan cooperation to bring peace and prestige to Asia, and was in one of the earliest pan-Asianist groups. His theory of Asian revival was constructed based on sever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encounters in Asia, shared culture, realistic fate , and common race. He declared that Asian countries would unite for the revival of Asia.

Currently, globalization is intensifying and Asian integration is becoming visible. Huang's view of Asia is a great example of how to create a community of destiny in Asia. In particular, recently the discussion on the revival of geopolitics as a theoretical perspective to explain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s drawing attention. This thesis is useful in explaining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plomatic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towards it. Sino-Japanese competition in East Asia in the 19th century has common points with U.S.-China competition today, as does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Keywords: Ryukyu Samchaek, Joseon Strategy, Haejang, Huang Tsun-hsien, Asia Renaissance, Geopolitics, East Asian Policy Theory
Student Number: 2017-20778